I·SEOUL·U
너와 나의 서울

2020
서울기록원 아카이빙북

서울은 당신을 기억합니다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2020
서울기록원 아카이빙북

서울은 당신을 기억합니다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여는 글

시민기록 네트워크의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공공기록물법에서 정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과 역할은 행정기록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방(또는 로컬)에서 요구하는 것은 행정기록 관리기관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 기록문화 생태계를 위한 구체적 지원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로컬리티 기록관리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꽤 오랫동안 주장에서 크게 나아가지도, 그 실체와 내용을 내놓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시작이 서울기록원 등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였습니다.

서울기록원은 출발부터 기록관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기록원이 생각하는 기록관리의 공공성은 '공적 영역에서 기록을 다루는 실천'입니다. 즉,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한정하지 않고, 서울이라는 로컬과 시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여러 기록 활동에 더 진력하는 '진짜 로컬 아카이브'를 지향하는 것이 서울기록원 기록관리의 공공성입니다.

서울기록원은 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거버넌스형 기록수집, 시민 기록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좌충우돌하며 여러 실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시민기록 네트워크의 조력자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서울기록원 아카이빙북은 '기록하는 시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만나기 위한 하나의 노력입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기록덕후'들, 서울기록을 수집하는 중에 만난 사람들, 경계를 넘어 여러 분야에서 기록을 활용하고 관리하는 사람들… 아카이빙북은 곧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카이빙북 속 '기록활동' 그리고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서울의 기억과 기록에 관심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Contents

2020
서울기록원
아카이빙북

Part 1
호모아카이브, 서울의 기록덕후를 찾아서

SPECIAL THEME 1.
서울의 기록인

10
세상 가장 따뜻한 기억과 기록을 소개합니다
치매케어아카이브 구상하는
'아같사TV' 홍명신 대표 멘토

14
'맛의 방주'가 기록하는 생명과 맛의 다양성
소멸 위기 종자·음식 보전 프로젝트 펴는
고재섭 이사

18
특별한 동네가 있는 게 아니라
기억이, 시선이 동네를 특별하게 만들죠
스케치로 서울 동네 풍경 그리는 정연석 작가

24
도시의 표정, 오래된 간판 속으로
걸어들어갔다
간판사진기록가 양두환씨

28
알록달록 마을기록키트로 다시 그리는
우리 마을
해방촌 마을기록단 심수림 대표

32
사진아카이브, 마을과 서울 그리고
역사를 기억하는 길
서울기록원과 소장 사진 위탁 협약 맺은
이경민 사진아카이브연구소장

SPECIAL THEME 2.
기록의 길을 묻는 사람들

36
의료봉사단체가 왜 기록관리를 공부하냐고요?
기록관리 컨설팅 받은
'프리메드' 최지원 상임대표

40
유쾌한 시민기록대회, 첫발을 떼다
지상중계 제1회 서울기록페어

SPECIAL THEME 3.
디지털로 만나는 기록세상

42
디지털아카이브,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속해요
디지털야구박물관·자원봉사아카이브

46
디지털아카이브,
서울과 가까워지는 또 하나의 방법
서울정책아카이브, 서울시 공유허브,
서울혁신파크아카이브

Part 2
서울을 수집하다

FEATURE 1.
코비드19 팬데믹과 기록

50
마을잡지, 주민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다
마을학교 '산아래문화학교' 김유선 대표의
코로나19 이야기

54
1946년의 콜레라, 기록으로 만나는 서민열전
교과서 밖 보통 사람들의 기록물 수집하는
박건호 컬렉터

60
감염병 재난을 대하는 언론의 자세는
정확한 정보와 기록
'코로나 기사 아카이브' 서비스하는
고제규 〈시사인〉 기자

64
한 초등생과 고등학생의 코로나記
'안네'와 친구 되고 온라인으로 연극 공연…
이것이 코로나 실화!

FEATURE 2.
어느 주거공동체의 슬기로운 기록활동 이야기

68
공간을 공유해, 관심을 함께해, 우리를 기억해
기록을 통해 보는
'오늘공동체' 사람들이 사는 법

Part 3
기록, 경계를 넘다

기록과
비즈니스

76
동네문화에서 발견하는
'서울스러움'의 멋·맛·색
도시문화기획가 '어반플레이' 홍주석 대표

기록과
일

80
기록을 꿰고 엮어 특별한 감동을 빚다
큐레이터
서울역사박물관 류위남 학예연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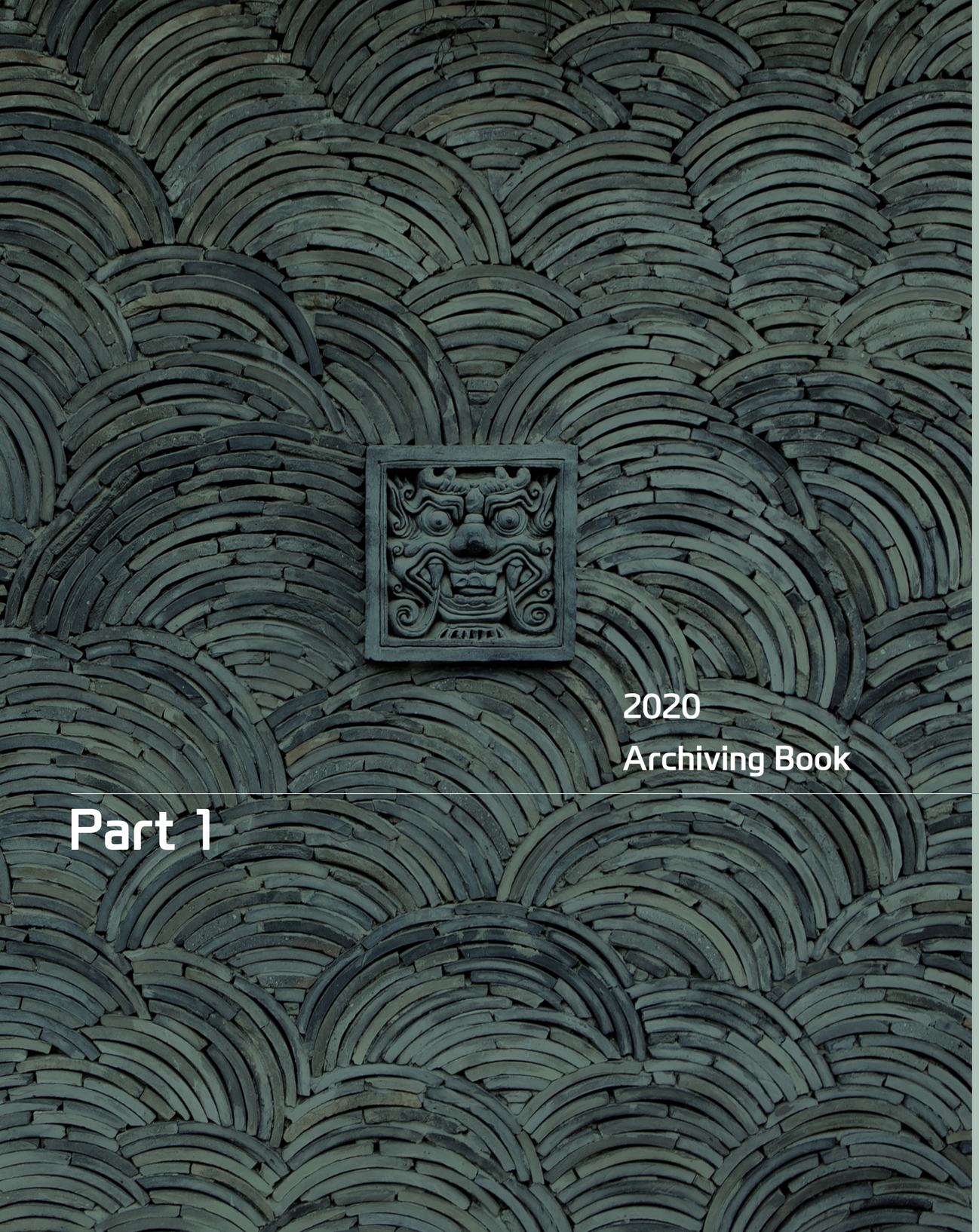
84
떠난 자의 뒷모습에 대한 기록
특수청소업체 하드웍스
김완 대표

기록과
책

88
사라지는, 남겨지는, 기억하는
서울, 책, 그리고
걷기

부록

90
ARCHIVING NEWS
#서울기록원 #전시 #프로그램 #소식
2021년 서울기록원은…



2020
Archiving Book

Part 1

호모아카이브, 서울의 기록덕후를 찾아서

삶이 있는 곳에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무언가를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다시 기록으로 남겨 공유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호모아카이브, 결국 우리는 기록으로 소통하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하여 서울은 거대한 '기록의 도시'입니다. 오늘도 서울에는 주제도 방법도 대상도 제각각인 호모아카이브들이 만드는 총천연색 삶의 흔적이 쌓이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또 다른 세계를 신념처럼 축조해가는 사람들, 서울의 '기록덕후'들을 만났습니다.

세상 가장 따뜻한 기억과 기록을 소개합니다

치매케어아카이브 구상하는 **'아같사TV' 홍명신 대표 멘토**

2019년 9월 초, 용산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 '메모리북'이라는 생경한 제목을 단 전시회다. 저마다의 사연과 함께 전자액자에 담겨 차례차례 등장하는 슬라이드 사진에 찬찬히 시선을 맞추던 관람객의 눈에는 어느새 그렁그렁 눈물이 맺히고, 입꼬리에는 자주 미소가 머물렀다. 전시회장 한쪽 '메모리월'에는 메모도 빼곡했다.

"엄마를 만나는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보고 싶은 당신 정말 모두 미안할 뿐입니다." "멀리서만 뵈었던 치매환자 가족분들의 시도와 용기에 찬사를 드립니다. 가족분들의 애틋함이 느껴집니다."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이런 걸 또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감동적이고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아이 같은 사람들, 아픈 치매환자와 같이 사는 사람들

이처럼 따뜻한 전시회를 마련한 곳은 '아같사'로, '아이 같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의 줄임말, 치매환자 가족들이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멘토링클럽이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처음 열린 메모리북 전시회 주인공은 '아파서 아이가 되어가는' 치매환자들이다. 그런데 메모리북은 뭘까. 궁금증을 살짝 뒤로 하고 모임의 중심인 홍명신 대표 멘토(이하 대표)에게 치매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환자가족들의 자조활동으로 출발한 2017년 당시 이야기부터 들어보자.

"10년 전 아버지가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생의 마지막은 딸과 보내길 원하셔서 다시 같이 살게 됐죠. 다행히 제가 노인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연구자라 노인병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도 치매는 낯선 도전이라 국내 자료뿐 아니라 해외 논문까지 찾아보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버지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데이케어센터에 매일 다니면서 안정을 찾은 거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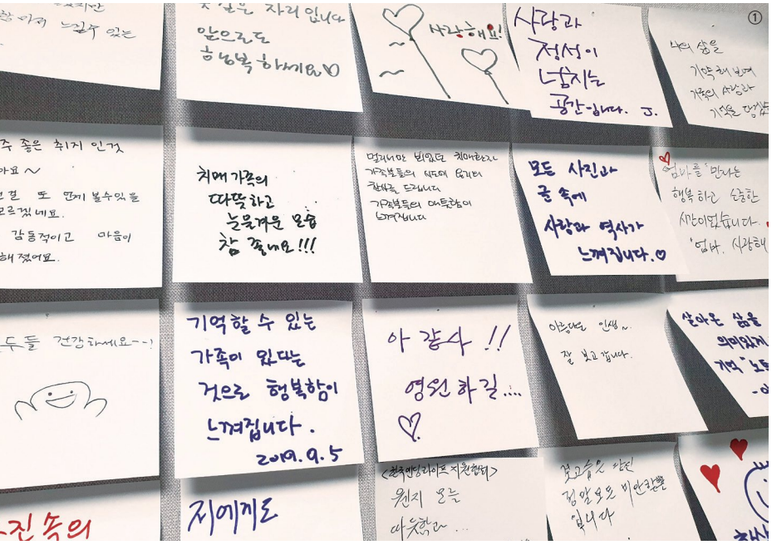
그러다 자치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정보를 접하고 혹여 빠뜨리고 있는 건 없나 싶어 참가했던 홍 대표, 그곳에서 교류와 도움이 절실한 환자와 가족들을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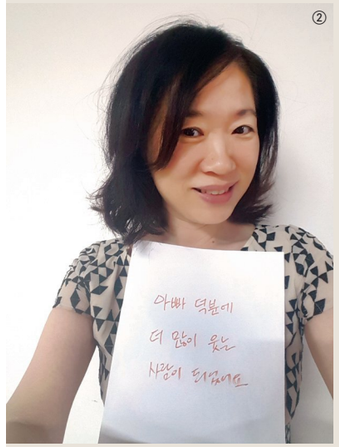
"치매케어도 아동교육처럼 보호자가 바뀌면 환자 상태가 좋아지는 선순환이에요. 그런데 교육에서 만난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 몰라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잖았어요. 제가 공부하고 경험한 걸 좀 나누자 했죠. 경험한 사람이 얘기하면 더 와 닿으니까요."

메모리케어를 발견하다

치매안심센터의 전폭적인 응원과 함께 활동이 시작됐고, 오래지 않아 치매케어 교육과 경험 나누기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님 혹은 배우자 케어를 하는 분께 좋은 차종은 어떤 걸까요? 대개 SUV 차량을 떠올리고, 실제로 구매 비중도 높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차체가 높아 환자가 잘 올라가지 못해요. 가족들은 무거운 휠체어를 차에 실으면서 비명을 터트리지요. 처음에 치매 증상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치매





> 치매 분야에서 외국은 메모리케어를 중시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의료적 접근, 치료 중심이었어요. 그러다보니 치매환자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거고요. 그렇게 메모리케어 도구를 살피다 메모리북을 알게 됐죠.

① 메모리북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이 남긴 메모리월 메시지들
② 아같사TV 홍명신 대표 멘토
③ 메모리북 전시회를 준비하는 회원들
④ 메모리북 전시회 모습

⑤
한 회원이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전시회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⑥
메모리북 전시회 가이드북을
살펴보고 있는 가족과 관람객들
⑦⑧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주최한
2019 서울마을미디어축제에서
도전상을 받은 아같사 회원들이
상장과 상패를 들고 있다.

진행 정도에 따라 케어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이런 경험에서 우러난 실용적인 정보를 나누다보면
서로 만나기만 해도 정서적 힐링이 됩니다. 그러니
모임이 계속 이어지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해외 자료를 보던 홍 대표에게
포착된 정보가 바로 메모리북이었다.
"치매 분야에서 외국의 경우 메모리케어를
중시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의료적 접근,
치료 중심이었어요. 그러다보니 치매환자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거고요.
그렇게 메모리케어 도구를 살피다 메모리북을 알게
됐죠."
대개 노화과정에서 시공간이나 언어, 집중력 등
인지기능이 감퇴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치매는 원인도, 종류도 다양하나
공통점은 기억을 잃어간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기억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맞춤형 도구가
있어야 한다. 이 작업을 시도하기 위해 홍 대표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지원을 얻어 냈고
메모리북 제작에 참여할 가족들을 모집했다. 수십
명의 가족들이 시도했으나 4개월 동안 이어진
교육, 자료 수집, 디지털 입력 과정을 통과한 것은
11가족이었다.

남편 일기장에서 찾은 첫 만남의 순간

메모리북 프로젝트에 돌입한 후 첫 난관은 자료
찾기였다.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가이드북을
만들고 자료를 담을 수 있는 커다란 가방에
'메모리 백'이라는 별명을 붙여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회원들은 오래전 자료를 찾기 위해 창고를
뒤지고, 분가한 자녀들에게 연락해 예전 사진이나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수소문했다. 가족사진, 직업
관련 사진, 일기, 편지, 가훈 등을 모았다. 장군
모자나 훈장처럼 직업적 자부심이 담긴 기념품,
통장같이 평소 아끼던 물품도 컬렉팅 대상이었다.
이렇게 모은 기록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선별해
하나하나 디지털 이미지로 담았다. 디지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 서너 명이
일손을 도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치매환자와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88세 엄마를 케어하는 딸 회원이 있었어요.
자료 수집을 하려고 앨범을 꺼내 보면서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딸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일화를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해내신 거죠. 그날 딸이 단상에
올라가 노래를 불렀는데 당사자도 잊고 있던
그 노래를 딸에게 불러주셨어요. 딸은 엄마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과거의 자신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녀의 메모리북 작품명이
'어머니를 통해 나를 만나다'였어요."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은 '영숙이를 수줍은 꽃이라고
부르고 싶다'였다.
"아내가 17년간 집에서 남편을 돌보셨는데 남편이
치매로 언어기능을 상실하자 아내는 그가 중학생
시절부터 써내려간 일기장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유려한 필체로 한문을 섞어 써내려간 일기장에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의 기록도 있었는데
'영숙이를 수줍은 꽃이라고 부르고 싶다… 거칠고
험악한 산악에 홀로 피어난 청초한 꽃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이분은 남편의
일기 대목을 크게 확대해 원본과 전시했는데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기억은, 기록은 힘이 세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소원했던 가족들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시 만나기도 하고, 앨범
속 사랑했던 그 시절을 소환하면서 서로가 더
애틋해졌다. 홍 대표는 더 많이 웃게 되고, 그러니
더 강해지는 것 같았다고, 힘들고 두려움 컸던
가족에게 모여서 기억과 기록을 나누는 과정이
그대로 치유의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홍보도 하지 않았는데 물어물어 100명 넘는
관람객이 찾은 전시회 이후 메모리북은 더욱
진가를 발휘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 보면서
환자에게 희미해져가는 기억을 붙잡게 할 뿐
아니라 반복적인 질문으로 성가시게 했던 애착물도
바로바로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으니 가족들도
한결 수월해졌다. 모든 것이 기대 이상이었다는 홍
대표는 이어 메모리북의 세 가지 의미를 설명했다.
"메모리북은 무엇보다 환자에게 잃어가는
기억을 두텁게 해줌으로써 자기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줘요. 가족들에게는 케어를 돕고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훌륭한 도구이죠.
한 아내 회원은 메모리북을 만들면서 내내
활기가 넘쳤어요. 예전 사진 속에서 늘 웃고 있는
자신을 자꾸 보다보니 즐거워졌고, 젊고 잘생긴
남편사진을 보며 다시 한번 반해버린 바람에
잘 해주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시절이 있었다는 걸 잊었다면서
행복해했어요. 동시에 개인의 생활사를
기록한다는 측면에서 메모리북을 쌓아가는 일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홍 대표는 메모리북 전시회를 준비하던 중
아버지와 긴 이별을 했다. 그렇지만 전시회 끝까지
함께한 것은 물론 지금도 열정적으로 멘토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색안경을 끼고 치매를
대하는 우리 사회 인식이 여전하거든요. 치매를
TV를 통해 배우기 때문이 아닌가 해요. 드라마에
등장하는 치매환자는 이상하고 포악하거나
폭력적이니까요. 대다수 학대받지 않은
치매환자는 그렇지 않아요. 저나 회원들의 사례를
보면 가족이 이 질병에 대해 공부하고 치매환자를
옆에서 도와주면 오랫동안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치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지식인의 책무 같아요."

케어밥상 나누며 치매케어플랫폼 구상하는 '아같사TV'

'초고위험군'인 치매환자와 생활하는 아같사
가족들은 코로나사태로 그동안 힐링이 되주던
모임을 포기한 지 오래다. 대신 책무를 새로운
방식으로 펼치고 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에 '아같사TV' 채널을 개설한 것이다.
첫 콘텐츠인 '고수에게 배우는 케어밥상'에도
사명감이 뚝뚝 묻어난다. 홍 대표는 활동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이들이 남성들, 그중에서도
초로에 치매 아내 혹은 어머니를 돌보게 된
이들이라고 했다.
"케어도 몰라, 음식도 못해, 집안일도 어려워,
완전히 삼중고를 겪으세요. 심지어 두 명이
동시에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삼식이' 출신이지만
요리를 배워 잘하게 된 분을 찾아서 요리하는
걸 소개해봐야겠다 했죠. 최소한 굶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모시며
터득한 요리를 블로그에서 나누고 책까지 펴낸
'스머프할배' 정성기 선생님을 알게 됐어요.
제안하자마자 흔쾌히 수락하셔서 지금 같이
'치매케어밥상'을 선보이고 있어요."
아같사TV는 코로나사태가 진정되면 회원들과
'수다회'를 열어 상황별 치매 케어 정보를 전할
계획이다. 5년, 10년 넘게 치열하게 얻은 경험이
환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끝나버리고, 또 모두가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사회적 낭비를
막아보자는 캠페인이기도 하다.
"치매가 악화되는 엄마를 증오하던 딸이 웃으면서
돌보는 케어전문가로 변하는 모습과 과정은
감동적인 사회적 자산이에요. 그런데 치매케어
경험은 다양하고 복잡한 속성 때문에 논문으로
남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함께 케어공부를 하고
케어문화를 만들기 위해' 활동해온 우리가 먼저
드러내고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기록으로
남기는 역할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아같사TV 활동이 곧 '치매케어
아카이브'이자 그 목표로 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맛의 방주'가 기록하는 생명과 맛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소멸 위기 종자·음식 보전프로젝트 펴는 **고재섭 이사**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건강과 맛이 좋은,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생태계와 환경에
깨끗하며, 생산자와 공정한 관계까지 충족하는
식생활, 이는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이하 협회)가
펼치고 있는 슬로푸드운동의 원칙이자 지향하는
삶의 방식이다. 협회의 고재섭 상임이사를
찾았을 때 '서울기록원에서도 슬로푸드운동이
필요한 것이냐' 물었다. 얼핏 기록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터인데,
사실 협회는 특별한 기록의 보고이기도 하다.
바로 소멸 위기에 처한 식재료와 지역 고유
음식을 보전하는 프로젝트 '맛의방주' 이야기이다.

맛의방주에 승선한 100개 품목…
고유의 식재료와 음식을 기억하라

전 지구적 문제가 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듯 얼마 전부터는 기네스북도
'멸종위기종'에 대해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이보다
훨씬 앞서 슬로푸드운동의 주요 실천활동의
하나로 2013년부터 시작된 맛의방주는 짐작대로
모든 것을 멸할 대홍수에 대비해 뭇 생명들을 거둔
'노아의 방주'에 견준 프로젝트이다. 생산방식을
왜곡시키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GMO), '싸게
더 싸게'를 강조하는 대형 유통망과 소비 태도,
규모화 등 여러 이유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우리의
'맛'을 찾아 맛의방주에 승선시킨 다음 이를
소비할 수 있도록 알려 명맥을 잇고 문화유산으로
지켜나가는 것이다. 우리 일상은 물론 문화와
생태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처럼 가치 있는 기록도 드물지 않을까.
"경기 남양주에서 열린 '2013 아시아 태평양
슬로푸드 국제대회'에서 1호 제주푸른콩장을
비롯해 모두 8개를 발굴해 등재한 것이
출발이었어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곧 없어질 유산들인데, 적극적으로 홍보해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발굴 기준은 크게 5가지. 첫째가 지역 고유의
맛을 가진 식재료와 식품이거나 지역 고유 토종
또는 야생종, 지역 생산물을 이용해 전통방식으로
만든 가공식품일 것, 둘째는 전통적인 조리법과
가공법 등을 가지고 있고 독창적인 맛과 특성을
가진 식품, 셋째는 지역의 토양 특성과 함께
지역사회의 기억과 정체성, 전통적 지식과 연관
있는 식품, 넷째가 일정한 양만 생산되는 식품,
그리고 다섯째가 멸종 위기에 처한 식품이다.
이에 해당하는 식품을 발견하거나 등재 요청이
들어오면 국내에서 다면적인 조사와 심사를 거쳐
심의를 통과한 품목에 한해 다시 이탈리아에 있는
슬로푸드생물다양성재단에 보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 끝에 등재될 수 있다.

①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의 고재섭 이사
② 연산오계
③ 칡소
④ 장흥돈차
⑤ 울릉홍감자
⑥ 울진갯방풍

칡소, 전래동요 속 얼룩송아지는 '나야 나'

승인을 받아 등재된 맛의방주 품목은 2020년
12월 현재 103개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작은 규모가 아니다. 고 이사는 각 품목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연을 쏟아냈다.
"호랑이처럼 범 무늬를 가진 칡소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하는 그 동요 속 얼룩송아지의 주인공이 이
칡소예요. 목장 등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홀스타인 젖소가 아닌 거죠. 이중섭 화가의 '소',
정지용 시인의 '향수'에 등장하는 얼룩배기
황소도 칡소입니다."
칡소는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과 어울려
살았으나 가축으로 키웠던 울릉도를 비롯해
강원도 산골 일부 농가 등에서만 명맥을 이어왔다.
질병에 강하면서도 온순해 경작에 한 몫을 해왔고,
담백한 육질로 식용으로도 주목을 받으면서
1990년대 후반 칡소 늘리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2013년 맛의방주에 등재 후 순종 보존
노력을 하고 있는 울릉군을 비롯해 각지에서
칡소를 키우는 농가가 많이 늘었다.
남의 말을 쉬 믿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뜻이 담긴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듣느냐'는 우리 속담과 관련된 등재 품목은
'반전'의 매력을 선보인다. 알고 보니 경상북도
지역에 팥으로 메주를 쑤어 담그는 팥장(소두장)이
있었던 것이다. 오래전 흉년일 때 조정의 지시로
개발된 것으로 알려진 팥장은 간장을 빼지 않아
부드럽고 염도가 낮은 것이 특징인데, 메주를
띄우는 과정이 번거롭고 쉬 변해 안동의 소두장
명인 등에 의해 한정적으로 이어지다 지금은
사업화되고 있다.

⑤

⑥

⑦

⑧

⑨

⑩

⑦
먹시감식초를 만드는 모습
⑧
가이드북 〈대한민국 맛의방주 100〉
⑨
예산삭힌김치
⑩
토하

팥장과 앉은뱅이밀의 반전 매력

제주푸른콩장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재된 앉은뱅이밀은 더 드라마틱한 사연을 들려준다. 토종밀인 앉은뱅이밀은 무엇보다 키가 50~80cm로 작아 콤바인 등 농기계 사용이 어려운데다 수확량도 많지 않았다. 달고 고소한 맛이 강하지만 연질이라 제분이 쉽지 않다보니 농가에게도 외면을 받았는데, 경남 진주 일부 지역에서 생산과 함께 정미소를 운영해온 농가가 있어 소량의 제분 작업을 계속해올 수 있었다.

"조사를 해보니 앉은뱅이밀은 물난리도 겪고, 개량종에 밀리고, 수매제도 폐지되는 등 여러 차례 고비를 넘겼어요. 놀라운 점이 그렇게 국내에서 입지가 좁아지던 이 밀을 노만 볼록이라는 미 육종학자가 연구하고 다른 종과 접목하면서 세계 식량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를 해요. 키 낮은 앉은뱅이밀이 오히려 태풍 같은 자연재해나 병충해를 잘 견디며 내성을 키워온 거예요. 그 덕분에 노만 볼록은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2013년 맛의방주에 등재되면서 생산량이 90톤 수준에서 2015년에는 300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맛의방주에 등재하는 효과일 겁니다."

이외에도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지 못해 시래기나 겉절이를 이용해 김치를 담그면서 충남 예산의 고유한 음식문화가 된 예산삭힌김치, 중국의 보이차와 비슷하게 항아리에 넣어 6개월 이상 숙성시킨 후 마시는 전남 장흥돈차 등 등재 품목마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협회는 이를 차곡차곡 모아 〈대한민국 맛의방주 100〉으로 묶어내기도 했다. '효자고기'라는 별명보다 더 특이한 이름이 붙은 '을문이', 우리나라 3대 명주에 드는 감홍로, '벼가 까마귀처럼 검은 닭'이라 붙여졌으나 오골계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연산오계 등 품목마다의 역사와 문헌, 지역의 특징과 그에 영향받은 맛 이야기 등이 촘촘하게 기록돼 있다.

"식탁에서 사라지면 종자도 사라집니다"

품목들 모두 소멸의 길로 향하던 중 다행히 맛의방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이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 품목들의 앞날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비자라는 말 대신 '공동생산자'라고 해요. 소비를 통해 생산에 참여한다는 거죠. 우리가 식탁에서 찾지 않으면 그 종은 사라지고 맙니다. 소비자 또한 책임에 공감하며 농가가 건강한 식재료를 키우도록 지지하고 찾아줘야 합니다."

협회가 지역을 찾아 주민들의 생활문화와 조리법 등을 영상으로 담아 남기는 동시에 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이유도 소비자에게 닿아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이사는 맛의방주 프로젝트가 단순히 건강한 식품을 얻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당장 여행을 가면 그 지방의 음식을 찾게 되잖아요. 빠르게 흐려지고 있지만 지방마다 아직은 기억하고 이어오고 있는 '맛의방주'가 적지 않아요. 2018년 유엔에서 압도적인 결의로 '소농권리선언'과 향후 10년을 가족농의 해로 선포한 이유도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꿀 대안이 지역, 지방, 소농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전 세계인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재난이 주는 교훈도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고민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인류에 대한 경고일 겁니다."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실천이자 지역발전의 핵심에 '맛의방주 프로젝트'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맛의방주 등재 목록

1	제주푸른콩장	53	제비쑥떡
2	앉은뱅이밀	54	준치김치
3	섬말나리	55	칠게젓갈
4	칡소	56	돼지찰벼
5	연산오계	57	고종시
6	제주흑우	58	웅어
7	장흥돈차	59	자리돔
8	태안자염	60	우뭇가사리
9	감홍로	61	는쟁이냉이
10	먹골황실배	62	우슬식혜
11	을문이	63	옥돔
12	먹시감식초	64	톳
13	어간장	65	꼬마찰
14	어육장	66	남도장콩
15	예산삭힌김치	67	갓끈동부
16	예산집장	68	바위옷
17	올릉옥수수엿청주	69	팥장
18	울릉홍감자	70	조청
19	울릉손꽁치	71	구억배추
20	제주강술	72	감자술
21	제주꿩엿	73	노란찰
22	제주댕유지	74	팥줄배기
23	제주순다리	75	인제 오이
24	제주재래감	76	능금
25	제주재래돼지	77	신배
26	마이산청실배	78	보다콩
27	토하	79	수리떡
28	현인닭	80	올챙이묵
29	김해 장군차	81	율무
30	담양 토종배추	82	봉평메밀
31	게걸무	83	가시고기
32	동아	84	칠성장어
33	골감주	85	열목어
34	산물	86	결명자
35	다금바리·자바리	87	대갱이
36	제주오분자기	88	강굴
37	감태지	89	쥐치
38	낭장망 멸치	90	무릇
39	지주식 김	91	명산오이
40	파라시	92	제주재래닭
41	황녹두	93	영암어란
42	보림백모차	94	신안토판염
43	하동 잭살차	95	비로약차
44	밀랍떡	96	버들벼
45	작주부본 곡자발효식초	97	제주참몸
46	누룩곡물발효식초	98	제주전복
47	떡고추장	99	제주홍해삼
48	마름묵	100	갯방풍
49	미선나무	101	제주고소리술
50	산부추	102	붉바리
51	수수옴팡떡	103	물엉겅퀴
52	긴잎돌김		

“특별한 동네가 있는 게 아니라 기억이, 시선이 동네를 특별하게 만들죠”

스케치로 서울 동네 풍경 그리는 **정연석 작가**

정연석 작가

시간이 날 때마다 남의 동네를 돌아다녔다. 살고 있는 동네의 반경 수 킬로미터 이내는 무시로 걸어다녀 샅샅이 기억하고 있는데다 낯선 동네에서 문득 시야에 포착되는 골목, 건축물, 작은 쌈지공원의 풍경이 좋았다. 건축가이자 여행작가이기도 한, 스스로 ‘도시여행자’라 부르는 정연석 작가는 자신의 호기심에 편승해 꾸준히 서울의 동네 곳곳을 스케치로 담아내고 있다.

구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스케치의 매력

“설계할 때 스케치가 도움이 되니까 대학생 때부터 많이 했어요. 머릿속 구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스케치거든요. 그런데 제 디자인이 윗분들에 따라 달라지고 고객의 요구와 공사비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잦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림에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평소 교류해오던 이장희 선생의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라는 책을 접하고 신선한 발상에 충격을 받았다. 건축을 위한 용도로만 생각해온 스케치를 독립적인 장르로 인식하게 된 계기였다. 그림에 대한 욕구가 솟구쳤다. 건축가가 디자인하지 않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도시와 건축물을 스케치하고 평소 좋아하는 이야기를 더한 결과물을 블로그에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다. 이 활동이 한 출판사의 눈에 띄어 2015년 〈기억이 머무는 풍경〉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20년 8월, 정 작가는 이번에는 오롯이 서울의 동네에 집중한 〈서울을 걷다〉를 발간했다. 책을 펼치면 드로잉 스케치 특유의 편안하면서도 정감어린 필선으로 새겨진 서울의 동네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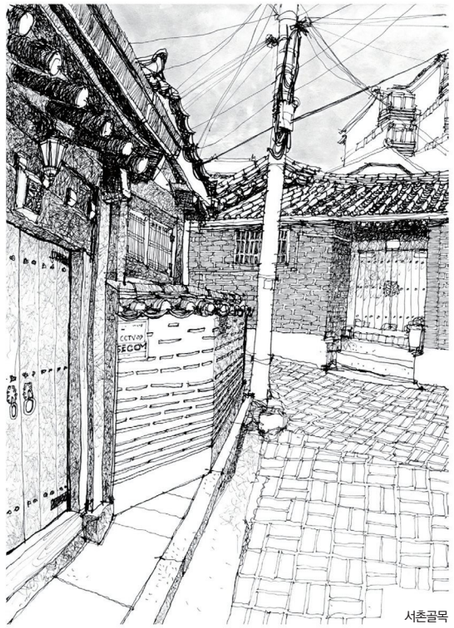
불광대장간

은평구 대조동의 골목부터 격동의 현대사 현장인 동대문운동장을 거쳐 용산 전자상가, 강서구 마곡동에 이르기까지 20여 곳에 이른다.

정감가네, 스케치에 담긴 서울 동네 풍경

“대조동은 서울에 올라와 살았던 첫 동네입니다. 책에 담긴 불광대장간이나 대조시장까지 모두 생활권이었어요. 대조시장 사진을 찍을 때는 사람들이 계속 왔다갔다해서 배도 안 고픈데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주문해놓고 한참을 기다렸던 기억이 나네요. 중화동도 거주했던 곳인데, 중랑천 둑으로 가서 태릉역까지 뛰어갔다 오는 게 중요한 일과였어요. 서울에서 오래 산 분들 중에 중화동을 아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제게 중화동은 평범하지 않은 동네예요. 특별한 동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흔적, 기억들이 동네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동네는 누군가에게는 특별할 겁니다.”

스케치로 기록된 서울의 동네는 대조동이나 중화동처럼 작가가 살았던 동네를 포함해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나머지 둘 중 하나가 ‘역사적’인 공간들이다. 사대문 안 종로와 정동, 서촌 일대는 물론이고 130여 년 전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 서양식 성당인 약현성당과 하나의 작은 도시인 성요셉 아파트가 있는 중림동 등은 내딛는 걸음마다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이다. 젊음과 성균관, 서울 최고의 전망을 아우르고 있는 명륜동, 혜화동도 아무 때고 찾아도 좋은 곳이다. 특히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과 오르막길, 시간이 부유하는 듯한 오래된 고즈넉한 한옥 골목 등에서는 골목의 품격을 느낄 수 있다.


서촌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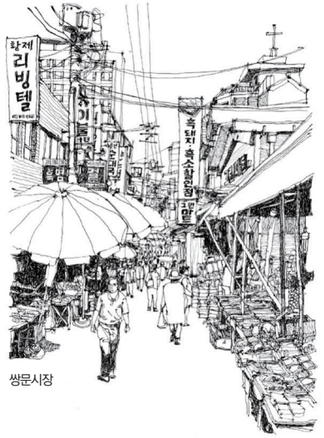
역사적인 공간 종로와 서촌, 마음을 두드린 쌍문동과 후암동

그리고 일 때문이거나 지나는 길에 눈에 들어온 동네가 있다. 인생 드라마로 꼽는 〈응답하라 1988〉의 배경인 쌍문동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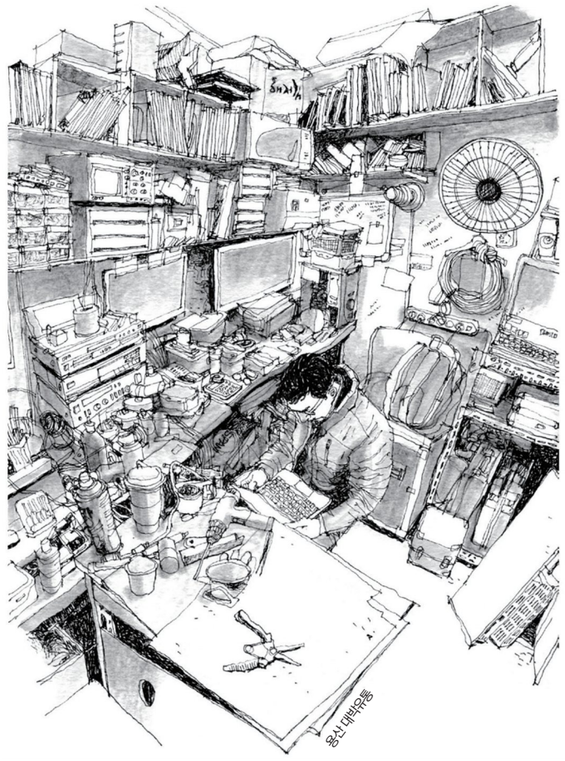
“저 같은 ‘응팔 세대’에게 쌍문동 골목은 그리움일 거예요. 골목의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겐 연대의식 같은 것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드라마로만 만나다 우연히 쌍문동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역시 색달라 그 뒤로 여러 번 갔죠. 이번 책에는 주택가 골목부터 쉼터슈퍼, 우이천, 쌍문시장 등을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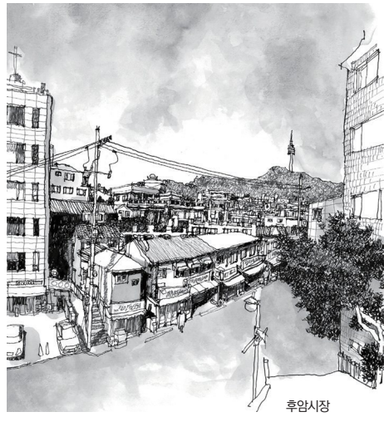
오래된 것과 낙후된 것이 섞여 있는 용산구 후암동도 그랬다. 회사를 다닐 때 이른 귀가가 내키지 않아 무작정 올라탄 버스가 후암동을 경유했는데 확 마음을 두드리는 느낌이 진한 동네였다.

“그럴 때는 내려서 동네를 걷고 사진을 찍어요. 현장 풍경을 수첩에 짧게 그릴 때도 있지만 아무래도 완성도가 떨어져 주로 사진에 담아 와서 A3나 A4 크기 스케치북에 작업을 하죠. 대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 동네 식당을 찾아요. 여행하다보면 당산나무 아래서 만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도시에서는 동네 식당이 그런 사랑방 같은 곳이라 이야기가 궁금하면 식당을 찾는데 후암동에서는 점심을 두 번 먹을 때도 있었어요.”



쌍문시장


중산 대백유통


후암시장

자료관에서 확인한 기록의 의미

사실 정 작가에게 스케치는 이야기에 비하면 선택과 집중이 훨씬 수월한 대상이다. 길 위에 섰을 때 그의 시선을 잡고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만 만나면 스케치로 옮기는 것은 몇 시간이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야기는 다르다.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동네와 건축물 안에 녹아 있는 역사와 의미를 읽어내고 해석하려면 수많은 기록을 조사하고 검증해야 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 검색은 기본, 책과 기록물이 집적해 있는 여러 역사박물관을 찾았다. 그 과정이 힘든 것만은 아니었다. 수많은 반짝이는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화동만 해도 옛날에 미나리꽝이 많았어요.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이라 미나리 재배에 적지였던 거예요. 그런 사실을 접하면 옛날 신문을 볼 수 있는 뉴스라이브러리부터 다 뒤져요. 1970년대 이후로는 항공사진 서비스도 가능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옛날 동네 모습이 어땠는지 보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기록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주간지 〈중앙선데이〉와 '백투더서울(Back to the Seoul)'이라는 연재를 하면서 사라진 건축물을 되살릴 때는 기록의 의미를 더욱 절감했다.

"이미 그 자리에 없는 건축물이라 원형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진이나 지도, 도면 등의 자료를 구하려 애썼는데, 아~기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재 롯데백화점 자리에 산업은행 본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옛 자료를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지하 역사관에 자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곳인데 상황을 설명하고 들어가 자료를 볼 수 있었어요. 건물을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죠."

기록을 통해 논란을 정리한 경험도 있다. 사직단이 있는 사직공원 안에 수영장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실제 수영장 위치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결국 항공사진을 뒤져 정확한 자리를 알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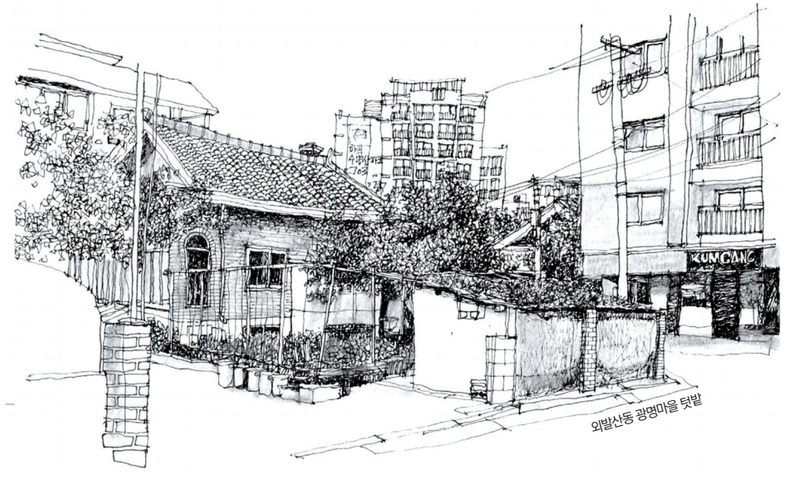
"그러고 보면 어떤 장면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지만 제가 목격한 도시의 곳곳을 기록해놓고 싶다는 욕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을지로나 무악재역 인근 재개발 지역을 찾아 기록해놓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스케치에 더 끌리는 건 사진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장소인데 그림으로 그리면 다른 표정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서울은 여전히 궁금하고 더 알고 싶은 도시

정 작가가 스케치로 기록할 다음 주제는 근대 건축물 등 건축가로서 새롭게 만나고 싶은 풍경들이다.

"건축물이나 공간을 아카이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측해서 평면도와 입면도, 단면도 등 각각의 도면을 그리고 그곳의 객관적인 역사를 종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도면을 그리기보다 하나의 풍경으로서 건물을 조망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들여 근대 건축물의 유별난 부분을 찾고 스케치로 남기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의 동네 어느 귀퉁이에서 그를 우연히 맞닥뜨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467개 서울의 법정동 중 1단계로 담은 곳은 20여개 동에 불과한데다 정연석 작가에게 서울은 '여전히 궁금한 도시, 더 많이 알고 싶은 도시'이기 때문이다.



외발산동 광명마을 텃밭

덕수궁 전경

도시의 표정, 오래된 간판 속으로 걸어들어갔다

간판사진기록가
양두환씨

①

②

③

도시에서는 간판이 꽃처럼 피고진다. 거리에서, 골목에서, 지하상가에서 간판은 시절 없이 피었다 사라진다. 무심히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간판들. 길죽하고 동그랗고, 크고 작고, 밝고 어둡고, 예쁘고 못나고…. 무수한 표정을 가진 간판도 생명처럼 생로병사를 겪는다. 그 수많은 간판 중에서도 유독 빛바랜, 낡고 오래된 간판만을 찾아다니는 이가 있다.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양두환씨(38), 그는 3년째 서울의 '늙은 간판(옛날 간판을 그는 그렇게 부른다)'을 사진으로 담고 있다.

간판도 생명처럼 생로병사를 겪는다

새로운 풍경과 사람을 만나서 그런지 그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거렸다. 아니나 다를까,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약속시간보다 두 시간 전에 도착해, 그에게는 낯설 '충무로' 골목을 어슬렁거리면서 간판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오래된 동네라 그런지 옛날 간판이 많던데요?"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 적은 글이 떠올랐다.

"100개의 오래된 간판을 찍다보니 생각보다 그런 간판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언젠가부터 여유롭지 않은 삶속에 쫓겨 바쁘게 살다보니 익숙한 간판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오래된 간판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안 가본 골목을 돌아다니며 무작정 오래된 간판 사진을 찍었고, 간직했습니다."

양씨가 100번째 간판을 찍으며 기록한 문장이다. 왜 하필 옛날 간판을 찾아다니게 됐을까. 그는 어릴 적 기억을 소환한다.

"어느 날 문득, 나는 왜 오래된 간판을 보면 기분이 좋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어릴 적 나는 딱히 좋아하는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탈 때나 걸어 다닐 때 그저 멍하니 건물에 있는 간판을 보며 숫자, 글자를 따라 읽는 버릇이 있었어요. 어릴 적에 보았던 것과 비슷한 간판을 보면 그때 기억이 떠오릅니다. 어른이 되어 오래된 간판을 보면 마치 보물이라도 찾은 것처럼 행복해집니다."

전주에서 태어난 그는 부산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20대 때 상경했다. 군 제대 후 곧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든 그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내느라 전국을 돌아다녔다. 도시에는 수많은 상점과 매장이 명멸한다. 그만큼의 간판도 생겼다 사라진다. 간판은 가게의 문패이다. 그 문패가 모여 도시의 표정을 만든다. 간판도 세월 따라 울고 웃으며 나이를 먹는다. 그러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몇 년 전 제 삶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힘든 일이 겹치듯이 닥쳐왔는데… 그때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삼십 중반에 겨우 저의 정체성을 찾는 계기였던 것 같은데…, 제가 옛날 간판을 좋아하더라고요. 그 좋아하는 간판이 쉽게 사라져가고 자료도 많이 없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간판을 사진으로라도 남겨 후대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①②③
양두환 씨가 사진으로 남긴 오래된 간판들

④
간판사진기록가라는 영역을 만든 양두환씨

⑤⑥
양두환씨가 간판사진 공모전에서 받은 상장, 그리고 한국옥외광고센터와 함께 발간한 사진집 〈사진으로 보는 옥외광고물의 발자취〉

④

⑤

⑥

옛날 간판 덕후가 된 이유

무슨 걱정이 그리 많았을까. 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웠을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살았을까. 그는 오래된 간판을 바라보며 덤덤함과 무상함을 배웠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다. 사소하지만 꼭 필요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자기 역할을 다하는 간판에서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그는 간판 분야의 '덕후(일본어 '오타쿠'의 한국어 발음 '오덕후'의 줄임말. 특정 분야에 몰두해 전문가 이상의 지식과 열정,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가 되었다.

"옛날 간판 '덕후'가 된 뒤로는 간판만 보고 다닙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간판만 보이고, 인터넷에 들어가서도 간판 사진들만 보고 있습니다. 옛날 간판을 보고 있으면 간판의 표정이 보입니다. 간판이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판을 통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도시의 이면이나 또 다른 풍경을 봅니다."

그가 인스타그램에 오래된 간판 이야기가 아닌 '늙은 간판 이야기'로 연재하는 이유는 간판이 마치 우리 삶의 모습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래된 간판을 보면서 그는 사소한 것도 역사가 되고 기록이 될 수 있겠다 싶었다. 그래서 도시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수명을 다해 퇴색해가는, 언제 사라질지 모를 간판을 기록한다. 마치 어릴 적 기억의 조각을 모아 한 편의 인생풍경을 완성해나가는 것처럼 간판을 찾고 사진으로 담는 작업에 정성을 다한다.

사소한 것도 기록하면 역사가 된다

인왕이발관, 연남이발, 신영사, 로얄사우나, 늘봄이용원, 현대세탁, 삼영이발…. 그가 또 다른 소셜미디어인 유튜브 'old sign story'에 업로드한 영상 제목이다. 그의 작업에 공감한 독자들이 심심찮게 간판 사진을 보내주고, 옛날 간판이 있는 장소를 알려온다.

"저에게 행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늙은 간판'을 보면서 나 자신을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오롯이 '현재'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간판의 모습, 향기, 소리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간판은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발견한 'star 별'이다. 처음에 이

⑦⑧⑨⑩⑪⑫⑬⑭
양두환씨의
오래된 간판 사진기록들

간판을 발견하고 눈이 번쩍 띄었다고 한다. 색깔이 바래고 칠이 벗겨지긴 했지만 제작 당시에는 찾기 힘들었을 귀한 재질과 화려한 네온사인, 독특한 디자인, 한마디로 신선했다. 간판만 봐서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없었는데, 알고 보니 작고 허름한 구멍가게였다. 어떻게 구멍가게에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었을까. 구멍가게 주인의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원래 그곳의 업종은 주점이었다고 한다. 구멍가게 주인이 인수하면서 간판을 바꿀까 했지만 그냥 뒀다고 한다. 그것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금은 가게도 간판도 사라지고 없다.

흐뭇해하는 이가 있어 가끔은 힘이 나네

또 기억나는 간판이 있다. 텔레비전에도 많이 소개된 '성우이용원' 간판이다. 지붕 한쪽이 무너져 내린, 다 쓰러져 가는 낡은 가옥에 위태롭게 매달린 간판. 미용실이나 '뷰티살롱', '헤어숍'에 밀려 사양길에 접어든 지 오래인 이용원(이발소도 아닌)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해 안타까운 마음이 일었다. 말없는 간판은 많은 사연과 역사를 담고 있다.

"수십 년 전 말끔히 꽃단장하고 입구 앞에 당당히 걸려 있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함께했던 늠름했던 녀석들도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이제 나 홀로 주름진 얼굴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네. 알록달록 예쁘게 치장하고 얼굴 봄내는 젊은 녀석들이 너도나도 눈에 띄려 화려한 불빛을 봄내고 있네. 수십 년 전 당당한 내 모습 보는 것 같아 기분 좋다 가도 이내 젊은 녀석들에 밀려 낡아버린 내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네. 그래도 그중에서 나를 보면 흐뭇해하는 이가 있어 가끔은 힘이 나네."

이것은 '삼환공구 볼트 v벨트 용접봉 일반공구' 간판의 입을 빌어 전하는 말이다. 그는 때로 간판이 전하는 사연을 듣(읽)는 것 같다고 말한다. 간판이 말하는 '흐뭇해하는 이' 중 하나가 '양두환'일 것이다.

간판은 삶의 또 다른 이름이자 기억

그는 직장생활 틈틈이 간판 사진을 찍는다. 마음먹고, 어디선가 본 간판을 찾아 나서기도 하지만 대체로 생활 동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찍은 사진이 6000여장. 이 중 400여 장을 서울기록원에 기꺼이 기증하기도 했다. 또 서울기록원과 함께 간판업체인 '동부기업'이 소장한 1970~80년대 간판 사진과 도면을 정리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12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간판사진 공모전에서 입상하기도 한 양두환씨. 그는 '330번째 늙은 간판 이야기'에서 이렇게 적었다.

"자연의 나무에서 꽃이 피고 지는 것과 같이 도시의 건물에선 간판이 피고 진다. 그중에 오래도록 떨어지지 않고 열매처럼 붙어 있는 간판을 보면 '그대 참 잘 익었네'라고 말해주고 싶다."

세월을 따라 간판도 변해간다. 우리네 삶도 그 시간과 함께 흘러간다. 간판은 삶의 또 다른 이름이자 기억이다. 오래된 간판에서는 푸근한 사람 냄새가 난다.

#

제가 좋아하는 간판이
쉽게 사라져가고
자료도 많이 없지만
오래되고 낡은 간판을
사진으로라도 남겨 후대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알록달록 마을기록키트로 다시 그리는 우리 마을

해방촌 마을기록단
심수림 대표

①
서울 용산 해방촌 전경
②
해방촌 마을기록단 프로그램 안내판

'해방촌 마을기록단'을 찾아나선 길, 남산을 휘감아 돌아가는 소월길을 따라가다 보면 아래쪽으로 펼쳐진 마을이 보인다. 행정구역상 용산2가동과 용산1가동 일부인, 우리에겐 해방촌으로 더 잘 알려진 마을이다. 용산2가동주민센터 아래 오거리를 지나 신흥시장 인근. 빨간 벽돌로 된 2층 건물들이 다닥다닥 줄지어 서 있는데 출입구조차 찾기 어렵다. 다행히 해방촌 마을기록단 심수림 대표가 미리 나와 있다. 심 대표가 안내하는 문을 들어서자 비로소 2층으로 연결된 계단이 나타났다. 신흥시장은 1968년 광주리 시장으로 시작해 상인들이 건물을 지을 때 줄자로 재어 점포를 만들고 한 칸씩 받아 사용하면서 이런 건물 구조가 되었다고 한다. 구성원들은 많이 바뀌었지만 풍경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신흥시장 속 한 건물의 좁고 가파른 계단에도 오래된 시간이 묻어난다.

마을 주민을 소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미있게!

해방촌이 뭇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주목을 받게 된 시기는 대략 2015년이다. 이태원과 경리단길이 청춘들에게 '핫플레이스'로 주목받으면서 해방촌에도 외지인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가게를 여는 연예인들도 생겼다. 곧 임대료가 들썩거렸는데, 2016년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면서 공간의 가치를 올리고자 신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임대료는 더욱 올랐고 기존 세입자 상당수가 이주해야 했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해방촌에도 불어닥친 것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도시재생사업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돼 해방촌 마을기록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심수림 대표는 그렇다고 사업 결과물로 갑자기 뚝딱 마을기록단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사실은 2014년부터 신흥시장 안에 저희가 아지트라고 부르던 '해방촌4평학교'에서 해방촌 이야기가 궁금한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공부하고 '사람책'이라는 걸 만들어서 주민의 이야기를 모으는 작업, 마을을 연구하는 마을 공부방 활동을 쭉 해오고 있었어요. 그때는 마을기록 차원이라기보다 여러 활동 가운데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마을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었고요."

그러다 전문가 중심이 아닌,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사람들과 함께 마을을 기록하자는 뜻이 모였고, 준비를 하던 차에 2016년 주민제안사업으로 마을기록단을 모집하면서 활동이 본격화한 것이다. 그리고 마을기록단은 많은 이들이 인터뷰나 영상, 사진 등을 통해 해방촌을 기록하지만 정작 마을 주민들은 그 기록을 공유하거나 이용할 수 없었던 점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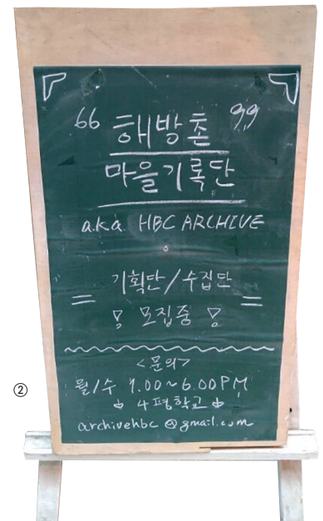
그러면서 '마을 주민을 소비하지 않는 방식'으로 마을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마을기록단은 기획단과 수집단 두 분야로 모집했다. 기획단에 합류한 이들은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마을 곳곳에 흩어진 의미 있고 특별한 이야기를 주민들이 덜 피곤해하면서 좀 더 재미있게 모으는 것을 중요시했다. 이는 마을기록화 원칙을 '마을(이웃)과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들을 즐겁게 모으자'로 한 배경이 되었다.

마을기록 키트 '우리마을 탐구생활'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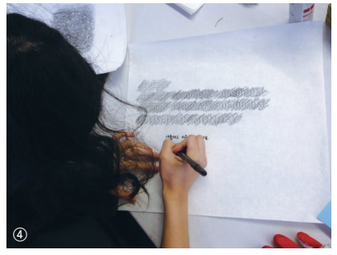
1980~90년대 '국민학교'를 다녔던 세대에게 익숙한 '탐구생활'. 초등학생 방학용 학습교재인데, 해방촌 마을기록단에는 '우리마을 탐구생활'이라는 마을기록 키트가 있다.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컸어요. 좀 더 재밌고 다양한 도구들, 재미를 넘어 이용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사는 마을을 기록하고자 하는 기록 비전문가인 주민들에게 적합한 도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체험교육활동보다는 이웃과 주변을 관찰하고 새로운 발견을 하는 '지역교육활동'이 적합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방학 때 탐구생활을 끼고 마을을 돌아다닌 기억을 떠올려 아이들과 기록을 놀이처럼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보기로 한 거예요."

마을기록 키트의 서막이었다. 다른 지역 기록활동가를 만날수록 마을기록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커졌지만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해서 글로 담아내는 것 외에 기록 도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도 반복이 되면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도구가



②



지나치게 단순하다 보니 다음 단계 활동으로 연계도 어려웠다. 해방촌 마을기록단만의 마을기록화 도구인 '우리마을 탐구생활'은 이 같은 고민이 응축돼 빚어진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또 마을 기록활동의 주체로서 적정한 기록도구를 가진 주민들의 등장은 마을기록활동을 지속성 있게 전개하는 데 핵심적일거라 생각했다. 2018년, 우리 마을을 더 재미있게 기록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한 기록활동가들의 상상이 결국 기록키트로 구체화됐다.

"키트는 총 15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을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해 스크랩하고 주민의 구술자료를 통해 마을의 역사를 연표에 담아보는 '마을연표 만들기'부터 위성 영상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데이터를 이용해 10년 사이 마을의 열지도를 만들고 마을의 무더위 쉼터와 노인인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열대야', 시아노타입(청사진 기법)을 활용해 마을에서 살고 있는 식물들을 만나는 '틈새식물도감 만들기' 등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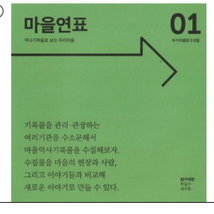
이외 마을의 사물 등을 찾아 탁본을 뜨고 이야기책을 만드는 '누가 나 좀 찾아줘', 마을의 다양한 소리를 수집하는 '소리수집', 마을의 오래된 상점을 인터뷰와 공간 VR로 담는 '오래된 상점의 360°', 해방촌 이야기를 오디오 다큐멘터리 대본으로 만드는 '108계단 이야기' 등 하나같이 유쾌기발하다.

③
마을기록단 활동 모습
④
마을기록키트 제작 과정
⑤
완성된 마을기록키트들
⑥
VR로 촬영한 동네 열쇠가게
⑦
틈새식물 도감만들기 기록활동

우리는 열지도로, 탁본으로 마을을 기록해요~

특이한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동반되는 키트가 여럿 눈에 띈다는 점. '열대야'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우리마을 탐구생활'의 도드라진 이

⑤



미덕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마을 탐구생활은 전문적인 방법론부터 일반적인 방법론까지 마을기록화의 스펙트럼이 넓어요. 이는 디자이너, 도시건축가, 연구자, 영상제작자 등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단원들이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마을기록과 접목해 좀 더 색다른 기록화 방법론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덕분이에요. 각각의 키트를 보면 탐구대장과 탐구대원의 이름이 나오는데, 해당 키트의 방법론을 제안한 사람은 탐구대장, 방법론을 만들기 위해 참여한 사람은 탐구대원입니다."

해방촌 마을기록단이 선보인 다채로운 키트도, 마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관점에서 기록할 수 있는 힘도 결국 주민들 속에서 끌어낸 것이다.

"작가들은 작가의 눈으로, 생태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은 생태적 시선으로 모두 전문 분야 눈으로 보니 다양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기록단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일상과 즐거움은 마을기록을 지속하는 힘

사실 이 부분은 출범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마을기록단이 공통적으로 체감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마을기록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을 주민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인데 현실에서는 관심과 열의가 높았던 주민들이 어느 순간 멀어지고 활동가만 남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해방촌 마을기록단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주민들이 비자발적이고 소극적이어서가 아니라 마을기록화가 새롭고 낯선 분야이다보니 자연스레 전문가나 기존 활동가들의 목소리에 익숙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다.

"주민 스스로 마을기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같이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야 더 의미 있고 지속성을 가진 활동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잖아요.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마을기록은 개별적인 '좋은 경험'으로 그치고 말거든요. 그것이 마을의 자산으로 축적되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물론 쉽지 않은 일, 이 때문에 해방촌 마을기록단의 '노하우'가 널리 공유되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심 대표는 그 핵심에 일상과 즐거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활동이든 우선 모이는 게 어렵잖아요. 마을에 있으면 늘 모일 수 있고, 시간을 맞추기도 쉽고, 거기에 큰 동력이 들지도 않아요. 아침이나 저녁에 쉽게 자주 모이는 경험이 쌓여 일상이 되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거창한 목표보다는 개개인의 욕구와 즐거움 추구하는 것도 해방촌 마을기록단의 장점일 거예요. 각자 본업이 있는 분들인데, 기록단 활동이 의무나 당위가 되면 쉬 지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재미와 욕구야말로 자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동력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주민주도는 일상이라는 관계망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싶은 욕구를 자극할 때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목표인 셈이다.

더 가까이, 더 강렬한 마을아카이브 문화를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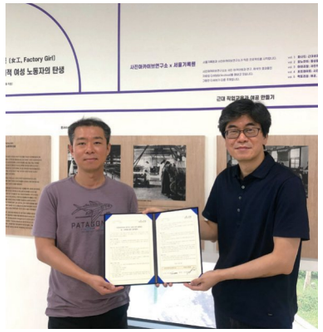
해방촌 마을기록단은 요즘 해방촌을 넘어 마을기록단 활동을 계획하거나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다른 마을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자처하고 있다. 현실의 어려움을 이미 겪은 선험자로서 마을기록에 대한 갈증을 조금은 채워줄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변을 들여다보고 이웃을 만나는 과정에 마을기록이 얼마나 만만하고 즐겁고 의미 있는 작업인지 경험한 터라 그 즐거움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요. 앞으로는 해방촌을 넘어 다른 지역 분들과 마을기록이라는 문화 자체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이미 해방촌 마을기록단 커리큘럼과 마을기록 방법론 등에서부터 마을 기록을 일상에서 지속할 수 있는 방법,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실습을 제안한 곳도 있다. 심 대표는 교육이나 모임을 마칠 때쯤 "이 마을에 오래 살았지만 이웃과 이렇게 밀접한 경험을 한 것이 처음이었고 강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마을기록에 대한 확신이 섰다고 전했다.

"우리가 헤맸던 시간을 다른 분들이 좀 짧게 겪고 지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역할도 감사하죠. 하기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마을기록활동이 주민들과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도구라는 걸 점점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사진아카이브, 마을과 서울 그리고 역사를 기억하는 길



2020년 7월 30일 이경민 소장(오른쪽)과 서울기록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다쉬브Vol.5
팩토리걸: 여공, 근대적 여성 노동자의 탄생

서울기록원과 소장 사진 위탁 협약 맺은 **이경민 사진아카이브연구소장**

위탁 기록물 정리 모습

코로나19 사태로 문 닫은 기간이 잦았으나 서울기록원 곳곳에는 일상적으로 크고작은 전시가 열린다. 2층 특별전시실이나 상설전시실은 물론이요, 기록열람실에서도 다양한 기록을 만날 수 있다. 3층에는 사연 품은 행정박물을 선보이는 공개형 서고와 소규모 기획전시도 마련돼 있다.

식민지의 표정 없는 '여공'들

이어지는 복도 전시. 불도저식 개발시대, 지금은 아련해진 서울의 동네 풍경… 무심한 듯 자리하고 있지만 한 걸음 다가서면 주제와 시간, 장소나 크기와 상관없이 찰나의 현장과 기억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는 시기별 기록들이 방문객을 맞는다. 그 사이로 〈여공(女工, Factory Girl) : 근대적 여성 노동자의 탄생〉 전시가 있다. 식민지 사진아카이브의 하나인 '여공 전시'는 제각각 인물과 장소가 다름에도 마치 연출된 듯 인상적인 조형적 구도를 이루고 있지만 한결같이 표정 없는 여공들 사이로 흐르는 긴장감은 별다른 설명 없이도 묘하게 폭력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전시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뒤따른다.

"(…)'여공을 둘러싼 공장'의 내부 풍경은 주로 원근법적 화면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장 속 '여공'들은 소수의 공장 관리자나 감독에 의해 감시•지도를 받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파놉티콘(panopticon)으로 상징되는 근대적 감시체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서울기록원과 사진아카이브연구소의 첫 협력전시

감시를 받으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한 여공의 삶을 통해 식민의 또 다른 순간을 오늘에 재현하고 있는 이 전시는 사진아카이브연구소(이하 연구소)가 2019년 11월 발간한 사진 아카이빙 자료집 다쉬브(d'Archive) 중 vol.5 〈팩토리걸: 여공, 근대적 여성 노동자의 탄생〉을 작은 복도 전시로 옮겨 놓은 것이다. 서울기록원과 연구소의 첫 협력전시이기도 한 이번 전시는 이경민 소장의 남다른 아카이브 철학에 힘입은 바가 크다.

"공공 아카이브에 결락된 부분은 개인 기록가들의 아카이브로 채워지거나 보완될 수 있습니다. 제도 안팎의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좀 더 온전한 아카이브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담아 프로젝트 전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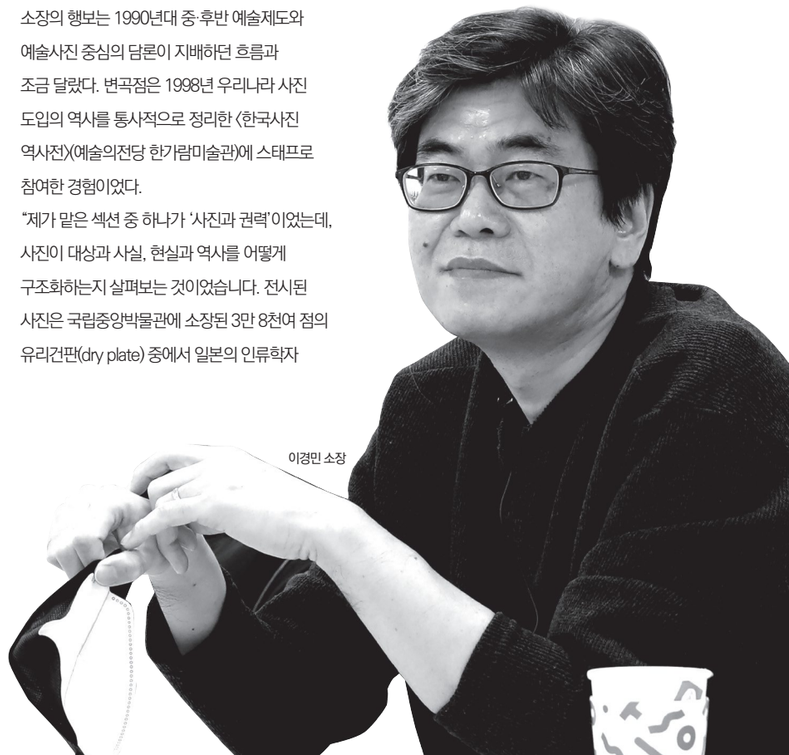
나아가 연구소는 2020년 7월 30일 서울기록원에 700점에 이르는 소장 사진앨범과 사진 액자, 인화사진 등을 위탁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학술적 연구는 물론 전시 등을 통해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록물이 그만큼 풍성해졌다.

그런데 이 소장은 이런 '귀한' 기록물들을 어떻게 소장하게 되었을까. 의문을 풀려면 이 소장이 걸어온 길에 대한 약간의 복기가 필요하다. 이 소장의 행보는 1990년대 중·후반 예술제도와 예술사진 중심의 담론이 지배하던 흐름과 조금 달랐다. 변곡점은 1998년 우리나라 사진 도입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정리한 〈한국사진 역사전〉(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 스태프로 참여한 경험이었다.

"제가 맡은 섹션 중 하나가 '사진과 권력'이었는데, 사진이 대상과 사실, 현실과 역사를 어떻게 구조화하는지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전시된 사진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3만 8천여 점의 유리건판(dry plate) 중에서 일본의 인류학자 도리이 류조(鳥居龍藏)가 촬영한 사진 40여 점인데, 신체측정 방식으로 조선인을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정보가 없어 누가, 어떤 의도로 찍었는지 모른 채 전시를 준비했지만 시각적으로 예술사진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어요."

마침 사회적으로 기록학이 태동하던 시기, 이 소장의 관심은 아카이브를 축으로 하는 전시기획이나 평론 활동으로 확대된다.

"1920~30년대 사진술은 근대 학문과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 안에서 발전했어요. 근대 학문은 사진을 통해 과학성, 합리성 등을 담보받으려 했고, 사진은 근대 과학이 만들어낸 표준화된 형식으로 위치하면서 '객관적'이라는 속성을 부여받는 공모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이것이 식민지 조선을 담고 있는 사진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을 것이고, 그 행간을 읽어내는 일에



이경민 소장

경성부은사수산장 양잠부, 1911
1910년 강제합병 이후 일제는 당시 사회에 만연한 빈곤과 배일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황실의 하사금'인 임시은사금(臨時恩賜金)을 지급하고 조선의 민심을 회유하고자 했다. 조선총독부는 임시은사금의 이자 수입을 기반으로 임시은사금사업을 시행했는데, 무엇보다도 수산(授産)과 교육에 공을 들였다. 수산사업은 선정된 사업 종류에 따라 강습소나 전습소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수산장(授産場)이 설치되어 여러 개의 실습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했다. 경기도에는 경성부은사수산장(京城府恩賜授産場)을 포함 9개의 은사수산장이 설치되었다.

재미를 느껴 오랫동안 몰입했던 것 같습니다."

제도 밖에서 더 많은 것을 알려주는 사진

이 소장은 산학협동프로젝트에서 해방 이전 식민지 시기 사진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관련 사이트를 만드는 등 누구도 가보지 않은 '신세계'에 발을 들여놓았고, 힘들었지만 사진이 제도 밖에서 더 많은 것들을 알려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04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주최한 사진전 〈다큐먼트(Document)〉에 객원큐레이터로 참여한 이 소장의 전시 '구보씨, 박람회에 가다'는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사진아카이브를 소개하는 작업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다양한 출처의 사진들을 주제별 아카이브로 구성했는데, 대상에 대한 객관적 관찰과 기록이라는 사진의 근본적 성격을 중심으로 관람객과 소통하는 기회였어요. 다시금 사진이라는 세계를 성찰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이 소장은 시각문화유산으로서 사진의 가치를 폭넓게 공유하기 위해 사진아카이브연구소를 만든다. 2005년에는 기록학적으로 구축한 최초의 공공 사진아카이브라 할 수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화운동사진 DB 구축'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때 민주화운동 사진뿐만 아니라 '불량식품으로 보는 사회사' 등 다양한 콘텐츠 구성을 통해 한국현대사를 더 풍부하게 기술할 수 있는 사진자료들도 함께 선별했다고 한다. 또한 사진DB를 구축하는 활동과 더불어, 구축된 결과물을 콘텐츠로 엮어내는 일도 시도했는데, 〈유리판에 갇힌 물고기〉처럼 '한국근대사진연구총서'를 발간하기도 하고, 신문에 게재된 사진 관련 기사 색인집인 〈구보씨, 사진 구경 가다 1883-1945〉를 비롯해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카메라당과 예술사진 시대〉, 〈경성, 카메라 산책〉 등 사진아카이브 서적을 꾸준히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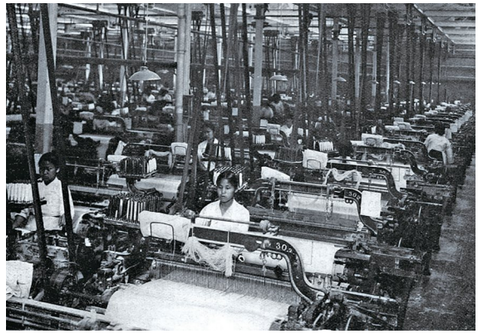
전 국민이 사진가인 시대, 장기 프로젝트인 사진

이처럼 민간 사진아카이브 영역을 개척해온 그의 활동 중 한 축은 사진 분야의 기초학문 격인 사진사(史)로 수렴된다.

"누구나 사진가인 시대, 상대적으로 사진사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는 부족해요. 개별 사진기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진을 둘러싼 맥락을 파악하는 겁니다. 오염된 사진까지 해석할 수 있는 메타비평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 그 이유 중 하나가 1차 자료를 쉽게 만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공공 사진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있으면 기록은 물론 사진이 도입된 개항기부터의 자료를 꾸준히 수집·관리하고 연구 활동을 축적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사진사 정리를 장기 프로젝트로 가져가는 이유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서울사진미술관이 예정대로 추진돼 한국사진사 연구를 위한 공공미술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편으로 이 소장의 주요 활동 키워드에는 '서울의 역사성'도 있다. 기억, 인물, 공간을 주제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열린 '서울사진축제'의 감독이기도 했던 이 소장은 당대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사진을 통해 서울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그것도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말이다.

"아마추어 사진 붐이 일던 2010년 전후 중앙대 사회교육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기초적인 사진 개론부터 출사 등으로 이뤄진 교육은 전시회로 마무리됐는데, 수강생들 열의가 대단했어요. 그 수강생들에게 열정을 색다르게, 그러니까 자신들이 나고 자란 지역의 일상 기록들을 담아보자고 제안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당시 사무실이 있던 운니동의 옛 이름을 딴 '구름재프로젝트'가 출발이었어요."



조선방직주식회사 부산공장(1917년 11월 설립), 1930
가내수공업에 머물러 있던 조선의 방직공업은 1910년대에 이르면 근대적 방직공업으로 변화해가기 시작했다. 특히 1910년대 초반 경성의 공업구조에서 4.1%에 불과했던 방직공업은 1910년대 후반에는 10%를 상회할 정도로 성장했다. 크게 제사, 제면, 직포, 직뉴(織紐), 염색 등으로 나뉘는 방직공업은 여성 채용 비중이 높았던 업종으로, 1930년대 들어서면 여성 비율이 70% 이상 되어 압도적인 여성 산업의 특성을 갖게 되었다.

룰라웰즈재단의 기업 실습, 평양, 1932
미국인 선교사 헌터 웰즈(J. Hunter Wells)의 부인 룰라 웰즈(Lula Wells)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 재단은 "소박맞은 부인, 과부, 취학 못한 소녀 등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한 불우한 여성들"을 돕기 위해 4년의 보통학교 과정으로 만들어졌다. 공장부서는 가난한 젊은 여성들을 돕기 위해 추가로 세운 기관이다.

서울 역사성, 시민기록으로 재현되다

메가시티 서울을 과감히 지역성으로 접근한 시도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주간 프로젝트로도 이어져 각각 '지역아카이브-민중 스스로'와 '천개의 마을 천개의 기억'이라는 자료집으로 묶였다. 이를 통해 도시사, 문화사 연구의 가능성을 확인한 이 소장은 '기억'을 시작으로 인물과 공간으로 이어지는 서울사진축제에 이를 접목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마다 있는 문화원과 지역 주민들의 기념사진 공모전을 했어요. 사진이 갖는 좋은 속성 중 하나가 환기력이잖아요. 시민들의 사진으로 서울의 시간과 장소, 기억을 가족사, 마을사 등 18개 테마로 엮어 전시했는데, 시민들은 장롱 속 앨범 사진이 역사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느낀 계기였고 동시에 시민기록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가늠한 작업이었습니다."

이 소장은 이후에도 통일로 주변 에피소드를 가진 랜드마크를 담은 '통일로프로젝트', 재개발을 앞둔 백련산 밑 동네를 기록한 '응암동프로젝트' 등을 진행해왔다. 서울의 마을 혹은 특정 시공간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프로젝트는 이제 사진사 정리와 함께 이 소장의 소명이 된 듯하다.

"한 외국인이 서울은 600년 역사는커녕 30년 전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도시라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이후 더 사명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많은 단체와 사진가들이 지역아카이브 작업을 하고 있는데, 훗날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이 연구소의 역할입니다. 사진이 아니면 시시각각 변하는 서울을 남길 방법이 없으니까요. 사진사 정리도, 지역이나 시민 중심의 사진기록화도 비인기 영역이라 버겁기는 해요. 그래도 아카이브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없던 때에 비하면 한결 덜 외로우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마나카제사공장의 재조(再繰) 작업, 평양, 1932
1930년대 들어서면 16세 미만 여성 유년공의 비율이 30%를 넘어섰으며, 노동시간도 12시간 이상이 82%에 달했다. 이는 공장법이 마련되지 않아 유년공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료봉사단체가 왜 기록관리를 공부하냐고요?

기록관리 컨설팅 받은 **'프리메드' 최지원 상임대표**

①

2020년 10월 23일 오후 2시 서울기록원 회의실, 평소 기록관리에 어려움을 느껴온 3개 기관 활동가 7명이 관련 교육에 참가하는 중이었다. 교육 중간에 강사가 질문을 던졌다.

"기관이나 단체들이 기록을 관리할 때 직제를 기준으로 하는 걸 피해야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오래지 않아 한 참석자가 답을 한다.

"단체의 활동에 따라 직제가 변할 수 있는데, 그러면 부서나 본부 이름도 달라지니까 기록관리에 혼선이 있을 거 같아요."

단번에 기대 이상의 대답이 나오자 강사도 놀라움을 숨기지 못하는 상황, 기록관리를 '찐'으로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 그는 누구일까.

모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꿈꾸는 청년들

주인공은 '모두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꿈꾸는 청년들이 의료사각지대를 찾아 빈틈을 메우며 생명의 가치를 전하고 있는 의료봉사단체 '프리메드(FREEMED)'의 최지원 상임대표(이하 대표)였다. 프리메드는 서울역 등지에서 무료진료소를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보건교육활동을 진행하며 의료 환경 개선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해오고 있다. 또 케냐에서의 모성건강증진사업을 비롯해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 글로벌 의료봉사활동도 펼쳐온 프리메드에는 2020년 말 현재 단원13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기록하는 일의 의미와 기록화 절차 등의 내용으로 이뤄진 교육에 참가한 프리메드 관계자는 최 대표를 포함해 4명, 참가자의 절반이 넘는다. 의료봉사단체가 기록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흔치 않은' 상황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평소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교육이 있다는 걸 알고 같이 활동하는 분들을 설득했죠. 기록관리를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제 경우 그동안 가져온 문제의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는 희열까지 느낄 정도였고요."

기록관리 방법에서 희열을 얻다니,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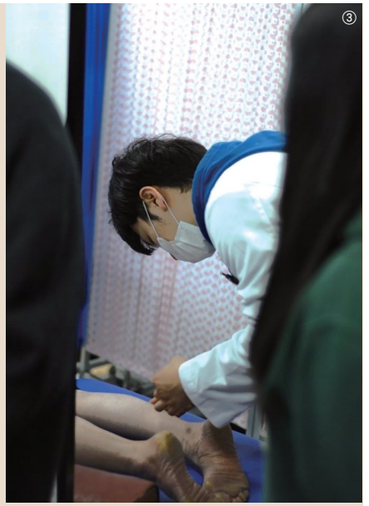
"제가 작년에 무료진료소 사업본부장을 맡았을 때가 떠오르는데요. 인수인계를 했지만 상·하반기 업무가 약간씩 다르고, 찾는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워 초반에는 힘들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협업툴로 '잔디'와 '구글 드라이브'가 있는데, 여기에 웬만한 기록은 다 있어서 필요한 내용은 검색해 알아냈어요. 프리메드가 꽤 오랫동안 활동한 단체다보니 데이터가 부족하지는 않은데 어떤 자료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고 찾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기초부터 쌓아야 하는 게 아니라 보완할 부분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내부 회의는 양식이 있고 공식적으로 작성하지만 외부 미팅은 기준이 따로 없었어요. 올해는 유난히 외부 미팅이 잦아 보고서 양식을 따로 만들어 반드시 작성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어요. 보조금 사업의 경우도 '어떻게, 무엇을' 알려주어야 하는 지에 대해 좀 더 섬세한 지침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좋은 일 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면제받을 수 없기에

최 대표는 인수인계 과정을 체계화하지 않으면 사람이 바뀔 때마다 발생하는 누락들로 인해 결국 단체나 기관의 운명이 좌우되겠구나 하는 위기를 느꼈다.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걸 많이 봤는데,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역량 있는 리더일 때는 괜찮겠지만 아닐 때는 위험하니까요. 좋은 일을

②


③

④

freeMed
free medical service

①②
프리메드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최지원 대표
③
의료사각지대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④
무료진료소 활동 모습
⑤
글로벌 프리메드 활동 모습

⑤

⑥

⑦

⑧

⑥
동작구 치매예방활동에 참여한
프리메이트들
⑦⑧
프리메드 조끼와 활동 모습
⑨⑩
지역아동센터에서 열린 보건교육과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

⑨

⑩

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면제받을 수도 없고요. 단원 모두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활동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하는 단체라는 걸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뢰를 얻는 핵심이 활동 기록을 제대로 남기고, 잘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 '결핵 소동'은 그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다.

"지난 3월 초 즈음이었어요. 활동하셨던 분 중에 '잠복 결핵' 진단을 받았다는 연락을 주셨어요.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알 수 없으나 진료소에서 감염됐을 확률도 없지 않으니 말씀해주신 거죠. 다들 완전히 뒤집어졌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까지 확산하던 와중이라 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EMR(Electronic medical records. 전자의무기록)과 함께 진료소 운영 상황 전반을 기록해 놓은 덕분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었어요."

'결핵 소동'을 통해 확인한 기록의 중요성

과정은 이랬다. 무료진료소를 운영하면서 파악한 모든 진료 내역은 거의 실시간으로 EMR에 기록하는데, 여기에는 진료소 참여 단원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진료소 활동 마무리와 동시에 누가 왔는지, 원래 왔어야 했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가 누구고, 대체자는 누구인지 등을 즉각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각자나 휴가자가 있으면 그 내용까지 빠뜨리지 않았다.

"결핵 감염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EMR 기록을 뒤졌어요. 전파 가능성이 있는 분을 전부 파악해 명단을 만든 다음 모든 분들께 상황을 담은 긴급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요. 이어서 결핵 감염 시 증상, 의심이 될 경우 어떤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이용 가능한 의료시설은 어느 곳인지 등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PPT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렸어요."

상황이 진정된 뒤 프리메드는 감염예방교육을 사업교육 필수과정으로 했고, 마스크 착용 등을 포함해 진료소 운영 지침도 마련했다. 만약 진료소 운영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최 대표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고 덧붙였다. 명단 찾느라 우왕좌왕하다 대처를 제때 못해 어딘가 구멍이 생겼다면 단체로서의 신뢰가 추락하는 것은 물론 그 여파로 프리메드가 쌓아온 원석 같은 경험, 무한한 잠재력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는 최 대표의 경험과 소망까지 잇아가는 일이었다.

기록관리교육에서 쾌감을 느낀 이유

"어머니가 5년 가까이 뇌종양으로 투병하다 제가 스물두 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라 병간호도 쉽지 않았지만 불공평한 우리 의료환경 때문에 화날 때가 많았어요. 고향인 강원도 고성과 서울 간 의료 격차는 상처 부위 드레싱 하나에 이르기까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어요. PD를 꿈꾸던 제가 보건정책관리학으로 전공을 바꾸고, 프리메드 활동에 참여한 것도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 미약하나마 의료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변수 때문에 자신의 활동과 단체의 미래까지 부정당할 수 있다면 대책을 세워야 했다. 최 대표가 기록관리교육을 제안받고 반색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수료증을 내줄 때 코드번호를 부여하잖아요. 그런데 문서에는 왜 도입하지 않을까, 수정의 수정부터 진짜수정, 최종수정 이렇게 어설프게 말고 번호를 붙이면 더 정확하게 정리되고 확인할 때도 수월할 텐데… 이런 생각이 끊이질 않았는데 해법을 알아봐도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기록관리교육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교육을 받을수록 자신이 고민해온 문제에 가 닿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큰 도움이 된 부분이 '규정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해법을 찾을 때 뭔가 전문적인 매뉴얼을 기대했나 봐요. 그런데 교육을 들어보니 어떤 기록을, 어떤 기준으로 생산할지, 어떤 것을 보관하고 관리하지 않을지 등의 규정은 활동 목적에 맞게 단체 안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복잡하거나 많은 시간이 들지 않고 구성원들이 평소 간단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이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문서 코드번호 등 구체적인 기록관리 방법을 들을 때는 '아, 내가 찾던 것이 저거였구나' 하는 쾌감이 일면서 그간 막연하게 제가 정리를 좋아해 이런저런 고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단체의 발전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고민이었구나 하는 걸 확인받는 것 같았습니다."

"기록관리 경험 청년들과 나눌게요"

기록관리 기초교육에 이어 컨설팅까지 받은 프리메드 최 대표는 12월 4일 서울기록페어에 참가해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기도 했다.

"제게 기록관리는 기분 좋은 경험이에요. 기록관리를 만나면서 실제로 프리메드가 더 멋진 단체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핵심 영양소를 공급받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부터 컨설팅, 발표까지 올 초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저와 프리메드는 다시 보건의료 분야 청년들과 나눌게요.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예상하지 못한 위기의 순간이 어떻게 닥칠 수 있고, 이때 기록관리가 단체에 얼마나 유용한 자산인지, 우리의 생생한 경험이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거든요."

유쾌한 시민기록대회, 첫발을 떼다

지상중계
제1회 서울기록페어

①

②

시민의 일상 안에서 즐기고 유통되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시점 혹은 계기가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꿈틀거릴 때, 특정 분야를 상징하는 고유명사를 타 영역에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활용할 때, 그리고 변화의 흐름을 감지한 누군가 연결을 시도할 때. 이런 움직임이 감지되면 그 분야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진전될 내적 에너지를 비축했다고 할 수 있다.

시민기록활동을 연결하다

이후 에너지는 점점 밀도를 높여가는데, 이것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쌓인 에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마당이 축제나 대회이다. 한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새로운 이들을 만나 네트워킹 하고 자극을 주고받으며 개인은 물론 특정 분야의 경험치가 대폭 확장되기 때문이다. 책과 건축, 춤과 노래, 커피와 치맥, 나비와 도자기… 분야와 주제를 막론하고 축제의 주인공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으면서 일상 안으로 들어와 선순환에 성공한 것들이다.
서울기록원이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2020년 12월 4일 온종일 개최한 제1회 서울기록페어를 기획한 목적도 같은 선상에 있었다. 2010년대 중반 서울시 전역에서 마을이나 공동체 기록활동을 추진하는 시민 모임이 속속 등장했고, 최근 몇 년 사이 '아카이브' 개념과 활동은 대부분의 영역과 결합하며 사회적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중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야말로 연결, 서울기록원은 이미 공공 영역에서 선도적인 기록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기에 시민들의 기록활동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기록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하는 과제를 파악하고 있던 터였다. 자연스레 고민은 기록활동을 하는 서울 시민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교감할 수 있는 네트워킹파티로 모아졌다. 그런데 강력한 변수가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악재였다. 대면접촉이 불가능한 상황, 서울기록원은 온라인 페어로 방향을 선회해 행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공공을 넘어 민간 기록활동까지 아우르는 허브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기록원 온라인 홈페이지에 개설된 회의 공간에서 줌(ZOOM)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기록인들의 실시간 소통이 시작됐다. 개회를 알린 서울기록원 조영삼 원장의 인사말에는 서울기록페어 기획 배경과 기대가 잘 담겨 있었다.
"서울기록원이라는 지방아카이브를 준비하고 설립하면서 꾸준히 구상해온 희망사항 중 하나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록대회였습니다. 서울기록원이 공공기록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넘어 기록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록활동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기록페어를 열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기록활동을 하고 계신 시민과 여러 기관이 아카이브 경험을 나누는 기회가 첫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기록페어에서는 서울기록원이 추진 중인 서울기록화사업에 대한 소개에 이어 총 6개 기관이 참가한 3개의 네트워크 세션이 진행됐다. 의료사각지대의 빈틈을 메우고 있는 의료봉사단체 '프리메드'는 조직 운영 과정에서 인식한 기록관리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카예(KAYE)스튜디오'는 마을 미술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기록활동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과정을 발표했다. 정릉 마을아카이브 주민네트워크 '정말기록당'과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기록활동 과정에서의 성취를 나누었고, '오늘 찬'은 창업과정에서 느낀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지킴이캠페인 등 활동 과정에서 생산한 기록과 기록관리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공유했다.

시민 기록활동 연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위하여

서울기록페어에서는 또 '서울을 기록한다는 것'을 주제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김익한 교수의 강연과 함께 '한양도성 밖 첫 번째 마을 창신동'과 '영화 간판쟁이', 코로나19 사태 속 시민들의 모습을 담은 'BC 사라진 시간, AC 나아갈 시간' 등 2019년과 2020년 서울기록화사업 수집활동의 결과물인 다큐멘터리 3편이 상영돼 주목을 받았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기록과 기록활동을 이야기한 첫 대회로 기록될 제1회 서울기록페어에는 모두 137명의 시민과 단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지역과 거리의 경계를 허물고 만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의 장점 덕분에 남해군청, 강원 병무기록관, 탄허기념박물관 등 지역의 기록인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 기록활동을 연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이 뒷받침될 경우 서울의 기록문화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음을 확인한 서울기록원은 벌써 제2회 서울기록페어 준비에 돌입했다.

③_④

⑤_⑥

⑦_⑧

① 개회 인사를 전하는 조영삼 서울기록원장
② 제1회 서울기록페어 포스터
③④⑤⑥⑦⑧ 제1회 서울기록페어에서 소속 기관의 기록활동을 발표한 프리메드, 카예스튜디오, 정말기록당, 금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오늘 찬, 서울환경연합의 활동 모습

디지털아카이브,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속해요

❶ 디지털야구박물관
❷ 자원봉사아카이브

1903 황성YMCA야구단 창립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이하 코로나19)는 2020년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 회사원은 재택근무를 하고, 학생은 집에서 각자 온라인을 통해 수업을 들어야 했다. 식당이 문을 닫고, 회식과 생일파티부터 각종 문화 공연과 전시회를 온라인에서 만나고 즐기는 일이 더 이상 새롭지 않은 시대, 두려움과 당연했던 일상을 향한 그리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한편 '언택트'와 '온택트'로 재구성되고 있는 거대한 흐름 속에는 '디지털아카이브(digital archives)'의 등장도 포착된다. 현장감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그리고 나만의 방식으로 접속하고 즐길 수 있는 점은 상당한 매력이다. 디지털야구박물관과 자원봉사아카이브, 2020년 새롭게 선보인 두 디지털아카이브를 소개하니 느긋하게 향유하시길.

Digital Archives
디지털아카이브는?

인터넷에 거대한 디지털 콘텐츠를 저장하고 축적하는 시공간 압축의 저장고이자 사용자가 접근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아카이브이다. 기록학에서는 디지털아카이브를 기록의 전자적 보존·관리 시스템 혹은 저장소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시정기록과 수집한 시민기록을 잘 정제해 서비스하는 서울기록원 디지털아카이브(SDA)는 '엔진(engine)'과 '웹(web)'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엔진은 기록을 입수해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아카이브의 업무시스템이다. 웹은 기록정보서비스 시스템으로, 서울기록원의 기관 홈페이지이자 소장기록에 대한 탐색 및 검색 서비스인 온라인 카탈로그(catalog)로 구성되어 있다.

1963 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 시상식

1977 제3회 대륙간컵 국제야구대회 우승 기념 선수단 사인볼

1982 프로야구 입장권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최고령 윤동균 선수 선서식 모습

❶ 디지털야구박물관 (koreabaseballmuseum.com)

'봄이 오면 새싹보다 먼저 어깨를 들썩이는' 사람들. 겨우내 옷장에 고이 '모셔둔' 좋아하는 선수의 유니폼을 꺼내 입고 소속 구단의 응원도구를 챙겨 야구장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야구팬들이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복병에 의해 경기가 대부분 취소된 2020년, 야구장으로 달려가는 기쁨을 강제로 차단당한 뒤 요즘 신조어로 '현타(현실자각타임의 준말로, 욕구 충족 후 밀려오는 무념무상의 시간을 일컬음)'를 실감한다고 하소연하는 야구팬들이 적잖다.

이러한 프로야구 열혈팬들의 아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1982년 출범했으니 이제 40년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한국 프로야구가 걸어온 길과 다양한 기록물 등을 볼 수 있는 '디지털야구박물관'이 개장한 것이다.

감동과 영광의 순간 담긴 기록물 2만 여점 선보여

사실 한국야구박물관 건립은 꽤 오래전부터 한국 야구계의 숙원사업이었다. 실제로 이에 대비해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아카이브센터를 두어 짜릿한 감동과 영광의 순간을 오롯이 담고 있는 선수들의 물품부터 역사적인 경기의 환호와 감격을 생생하게 기록한 사진과 영상 등 다양한 자료와 기록물을 수집, 관리해왔다. KBO 아카이브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은 2020년 말 현재 3만 여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물관 건립은 시간을 요하는 터라 각종 기록물이 공개되는 시기가 불투명했다. 이런 차에 디지털야구박물관이 문을 열고 열혈 야구팬들을 맞기 시작했다. 2만 여점의 소장 기록물을 만나볼 수 있으니 야구장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 팬들의 기쁨은 두 배.

경기마다 수많은 기록들이 나올 만큼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다. 디지털아카이브는 이 기록을 견주고 조합하는 재미를 즐기는 팬은 물론 용어마저 생소한 이들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콘텐츠를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Btory'의 '숫자의 비밀'에서는 야구공 실밥이 몇 개인지, '전설'에 비견될 영구결번의 주인공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야구의 역사는 기본, 구단별 야구용품 컬렉션과 함께 2만 여점의 기록물을 시대별, 형태별, 출처별로 검색할 수 있다.

연표로 만나는 장엄한 프로야구 역사

특히 빼곡하게 프로야구의 역사를 전하고 있는 '연표'는 장엄하기까지 해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팬들에게 향수와 추억을 부르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 1981년 12월 11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프로야구가 정식 출범한 때부터 2019년 12월 16일 발표된 2020 KBO 정규시즌 경기일정까지 연도별, 월별, 일자별로 세세하게 정리해 놓았다.

KBO아카이브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오래된 기록물은 연도, 장소 등이 제공자 또는 기증인의 기억에 의존하기에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 디지털야구박물관이 일반인에게 서비스됨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팩트체크가 되고 있고 실제로 오류를 바로잡은 사례도 있다.

한편 야구를 좋아한다면 소중하게 간직하는 기록물 하나쯤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린이 회원 시절 각 프로야구 구단에서 받은 기념엽서를 비롯해 선수 사인이 담긴 유니폼이나 야구공, 목이 터져라 응원했던 그날의 야구장 입장권이나 응원 도구, 선수나 경기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 서적 등등. 디지털야구박물관에는 이런 소장품을 혼자만의 보물이 아니라 다른 팬들과 공유할 수 있는 창구도 있다. 기증이라는 방법이다. 참여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디지털야구박물관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기증절차를 알려줄 뿐 아니라 기증 신청도 가능하다. 기증이 이루어지면 웹사이트 내 '제공자 명단'에 본인 이름이 등록되는 영광도 누릴 수 있다.

디지털야구박물관을 즐기는 꿀팁!

'찐팬'들과 나누는 나만의 소장품

프로야구사, Btory, 아카이브 등을 통해 다양한 기록물과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다보면 아끼는 소장품이 하나둘씩 떠오른다. 기증하기는 왠지 모르게 아깝고, 혼자만 간직하고 있자니 아쉽다. 그럴 때 '기증안내' 메뉴 중 '팬 소장품'을 클릭해보자. 이 메뉴는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의미 있는 소장품을 다른 야구팬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공간. 디지털야구박물관의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참여와 소통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다. 자,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혹은 어디선가 잠자고 있는 소장품을 꺼내서 맘껏 자랑해보자!

❷ 자원봉사아카이브(archives.v1365.or.kr)

사랑의 탑, 구세군 종소리와 자선냄비, 연탄과 김장 나누기… 연말연시면 어김없이 등장해 따뜻한 기운을 전파하는 이웃사랑 캠페인들이다. 이 때문에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나눔은 차가운 겨울에만 강조되는 듯한 착시를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1년 365일, 묵묵하게 일상 속에서 수천 가지 형형색색의 빛깔로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도 살 만하구나, 이웃에 온기와 격려를 불어넣고 팍팍하고 불안한 세상을 긍정의 에너지로 채워가는 이들 덕분에 어쩌면 지금의 일상이라도 유지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여기, 이들 나눔과 봉사의 메신저들이 펼치는 컬러풀한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세상이 있다는 걸 아시는지. 이 기특한 주인공, '자원봉사아카이브'를 만날 차례다.

자원봉사 가치 함께 즐기는 기록저장소

자원봉사아카이브는 자원봉사활동 기록을 통해 자원봉사의 가치를 기억하고 함께 즐기는 디지털 공간이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더불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을 시민문화유산으로 기억하기 위해 2014년에 구축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 아카이브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와 10개 유관기관이 공동운영협약을 맺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원봉사 기록들을 수집, 보존,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아카이브된 기록물 규모는 7천여 건. 연구보고서, 교육자료, 소식지, 사례집 같은 문서 자료를 비롯해 전국 자원봉사센터의 활동 현장을 생생히 보여주는 사진 자료, 홍보와 교육 동영상 자료, 기념품이나 자원봉사활동에 쓰인 박물 자료를 아우른다.

검색 기능을 통해 기록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검색 기본값은 생산자와 생산연도인데 자원봉사, 사회복지, 재난재해 등 주제어 검색도 가능하다. 또 새로 도착한 기록, 즉 신착 기록 검색으로 아카이브에 신규 입수된 기록물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SNS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재미를 주는 태그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코로나, 올림픽, 서해안 유류 피해… 전시콘텐츠로 만나는 현대사 속 자원봉사

자원봉사아카이브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전시콘텐츠이다. 코로나19라는 재난 경험과 극복 노력을 모은 자원봉사기록전부터 2018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2008 서해안유류피해극복, 1988 서울올림픽경기대회 등 우리 현대사에서 수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준 주요 역사적 사건 현장 속 숨은 영웅인 시민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온라인 전시로 만나볼 수 있다.

반면 자원봉사센터와 유관기관을 통해 개발, 보급해온 연구 자료와 교육 콘텐츠는 연구자나 활동가들에게 더 의미 있게 활용될 듯하다. 자원봉사아카이브가 260곳 넘는 공동운영기관과 협약기관들이 함께하고 있는데다 생산, 발간한 콘텐츠들을 모아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 가능한 서비스이다. 이외 자원봉사 현황, 역사 등 공식적이고 주요한 이력들을 종합해 해마다 발행하는 자원봉사활동 통계, 자원봉사백서, 우수 프로그램 사례집 등도 유용하다.

디지털아카이브의 최고 장점은 해당 영역의 기록물을 누구나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더해 이용자들에게 참여 기회도 열어놓고 있다. 좋은 예가 기증인데, 자신의 자원봉사활동 기록들을 온라인 수집창구를 통해 기증할 수 있다. 개인의 기억이 아카이브에 소장, 서비스되는 경험은 자원봉사자만이 누리는 '선물'일 것이다.

실제로 88올림픽 당시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기증한 IC카드, 자원봉사수첩, 활동복장, 사진 등이 서비스되고 있다.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자원봉사아카이브의 따뜻한 초대에 응해보시길.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이에게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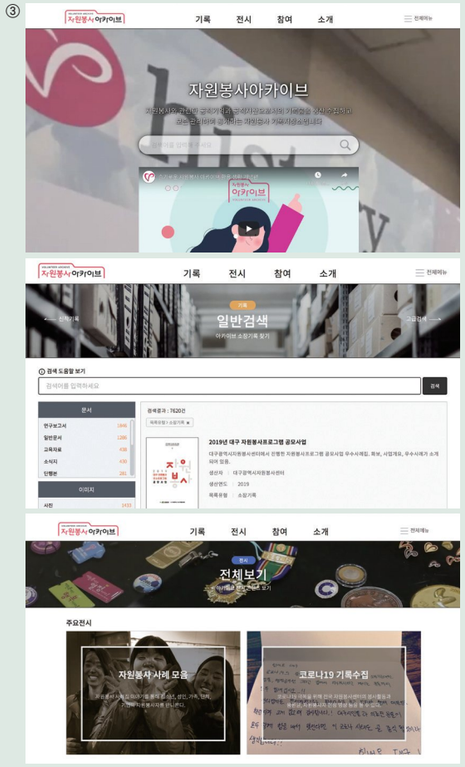
한평생 자원봉사의 삶 산 故 허상회 자원봉사자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살아서는 사람의 거름, 죽어서는 나무의 거름〉은 故 허상회 자원봉사자의 삶을 보여준다. 자신의 아픔에서 시작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한평생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산 故 허상회 자원봉사자. 오래도록 그를 기억하고, 자원봉사를 한 공간을 지키며, 실천을 이어가는 자원봉사자들의 증언을 듣다보면 어느새 마음이 뭉클해진다.
(다큐멘터리 만나기 https://archives.v1365.or.kr/items/show/5261)

①

②

④



③

⑤

① 횡성군자원봉사센터 활동
②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진천군자원봉사센터 안녕캠페인 활동
③ 자원봉사아카이브 홈페이지
④ 나라사랑 태극기나무 만들기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활동
⑤ 안심대기선 IN 미세먼지 OUT 창원시자원봉사센터 활동

디지털아카이브, 서울과 가까워지는 또 하나의 방법

흔히 거대한 정보·기록 저장소이자 콘텐츠 저장소로 설명되는 디지털아카이브는 온라인만 연결되는 조건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친절하고 문턱 낮은 서비스이다. 일상적인 소통을 위해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또한 분야별 주제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 시민들이 서울시 가까이에서 각종 정책과 정보·기록을 얻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중 서울정책아카이브와 공유아카이브, 서울혁신파크아카이브를 소개한다.

도시정책&도시정보 저장소

❶ 서울정책아카이브

세계적인 스마트도시이자 2019년 한 해 동안 1750만 명 넘는 외국 관광객이 방문하고 UIA(국제협회연합,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기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국제회의가 개최된 서울은 압축 성장을 상징하는 글로벌 도시로 꼽힌다. 크고작은 문제와 갈등이 여전하지만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여러 도전을 서울시만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도시가 드물기 때문이다. 서울정책아카이브(www.seoulsolution.kr)는 이 과정에서 경험하고 축적한 지식을 후발주자 도시들과 공유하며 국내외 도시개발 관련 민관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디지털아카이브이다. 서울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집, 연구해 국내외에서 통합적으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는 물론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계 도시정보 저장소를 지향하고 있다.

서울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과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가 공동 운영하는 서울정책아카이브에서는 도시계획, 주택, 교통, 물관리, 환경, 전자정부, 도시안전 등 핵심 도시정책 7개 분야 180개 정책이 등록되어 있어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교통카드시스템, 도시철도 소방방재시스템, 전자정부시스템 등 해외에서 벤치마킹한 서울시 우수정책, 서울형 ODA(공적원조사업) 등을 비롯해 서울을 나타내는 각종 통계도 서비스하고 있다. 자료실에서는 세계 도시들의 정책 동향을 정리한 연구보고서와 발간물, 영상자료도 제공한다.

물건부터 공간까지… 서울시 공유정책활동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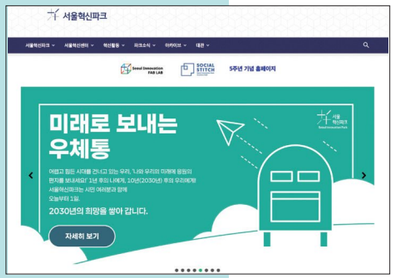
❷ 서울시 공유허브

공구, 장난감, 따릉이, 정장….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서울에 사는 시민 상당수가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이다.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무한 소비, 무한 소유의 생활 방식을 지양하고 그 자리에 공동체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품목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것이다.

공유하는 생활방식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라이프스타일 전환공유 플랫폼 '공유허브(www.sharehub.kr)'를 찾아봐도 좋겠다. 공구와 장난감뿐 아니라 공간과 주거공유(셰어하우스), 공유부엌(소셜다이닝), 휴먼라이브러리 등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공유경제 관련 정보와 함께 후암주방, 성동공유센터, 을지로중개소 등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유사업, 서울오래컵 대여사업이나 제로웨이스트샵 등 서울 동네 곳곳에서 펼쳐지는 기발한 이벤트 정보까지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아카이브' 카테고리에는 정책활동 관련 전문가의 기고문, 포럼 등을 통해 발표되는 시의성 있는 네트워킹 주제, 연구보고서,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서울의 혁신활동

❸ 서울혁신파크아카이브



청년청, 제작동, 재생동, 미래청, 상상청, 맛동, 공유동. 이름부터 톡톡 튀는 이 공간들은 모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글로벌 혁신생산기지'를 자처하는 서울혁신파크 안에 소재한 곳이다. 이 안에서는 청년과 사회적 경제, 에너지, 인간적 소통, 평등과 공유, 놀이와 제작, 미래 농업, 전통과 공동체 등 대안적인 미래를 추구하는 수많은 혁신 주제들이 모색되고 관련한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자체적으로 오프라인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혁신파크는 온라인에도 활동 소식을 전하고 있다. 5주년을 맞은 서울혁신파크의 아카이브(www.innovationpark.kr)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파크에 입주해 필요한 것을 스스로 제작하며 전환적 삶을 실천하는 '파크 메이커'들의 이야기이다. 또 '선 넘은 혁신가' '해볼까 시리즈' '지역문제 해결 시민 실험실' 등 각 공간 활동가들의 프로젝트 소식도 흥미롭다. 더불어 사회혁신 트렌드리포터 등의 보고서와 사진, 영상 등의 자료도 열려 있다.

2020
Archiving Book

Part 2

서울을 수집하다

서울기록원은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서울기록화를 위해 2018년부터 매해 주제를 정해 서울의 역사와 시민의 삶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제는 주거혁신과 한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비드19 팬데믹'을 긴급 특별주제로 선정해 재난에 대처하고 함께 극복해가는 시민들의 다양한 기록을 수집하였습니다.
아카이빙북은 이에 더해 바이러스감염병과 관련된 시민들의 기록활동 사례를 발굴해 소개합니다.

마을잡지, 주민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다

①

②

③

마을학교 '산아래문화학교' 김유선 대표의 코로나19 이야기

방과 후엔 집에서처럼 공부를 안 해도 돼 너무 좋다는 동연이, 수업과 수업 중간 쉬는 시간 5분 동안이라도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 위해 화장실에 간다는 수아와 태영이, 입시 걱정이 큰 승욱이, 가입한 동아리 모임을 한 번도 가지지 못했다며 아쉬워하는 미진이.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으니 각각 초중고, 대학 1학년생들이라는 점이다.

초중고대 1학년, 마을이 축하하기

새학년, 새친구, 새교실… 이 모든 새로움 중에서도 변화폭이 가장 크고 자연 '경험 부자'가 되는 1학년 시간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고스란히 빼앗긴 다섯 학생이 한 자리에 모인 건 지난 8월 중순이었다. 서울 금천구를 중심으로 한 시민마을학교인 '산아래문화학교'가 펴내는 매거진 '닮다'가 초대한 자리였다.

"'코로나19시대'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가 가장 큰 피해자일까?'를 묻게 됐어요. 학생들, 그 중에서도 1학년이더라고요. 2020년, 태어나 처음 학교라는 곳에 가게 되는 초등 1학년부터 발랄한 중1, 청소년기의 절정인 고1, 입시지옥을 통과해 드디어 청년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대학 1학년생까지 이 친구들에겐 졸업식도 입학식도 없었던 거예요. 가장 행복한 시기일 텐데 아쉬움과 설렘, 딱 그 시기에 누릴 수 있는 느낌은커녕 같은 반 친구 얼굴도 모른 채 한 학기를 보냈더라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마을이 대신 초대해 축하해주자 했어요."

산아래문화학교 김유선 대표의 말이다. 그리고 이들 다섯 친구는 환한 웃음으로 '닮다' 여름호 표지를 장식했다.

①
금천구 보건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②
금천구 마을 매거진 '닮다'에 소개된
초중고교와 대학 1학년생들
③
산아래문화학교의 홍보 이미지
④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
⑤
학교 급식실에는 좌석마다
투명플라스틱 칸막이가 설치됐다.
⑥
거리두기를 고려해
운동장에 배치된 의자에 학생이 앉아 있다.

모두에게 처음인 괴상한 사건 한가운데 선 주민들

금천구에서만 1천부가 배포되는 동네잡지 '닮다' 편집위원들이 여름호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를 코로나19로 정하기까지 일사천리, 김 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티끌만 한' 이견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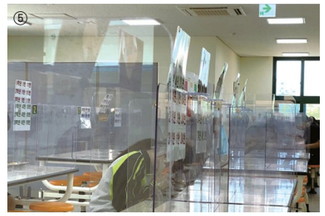
"온 세상을 뒤덮은 이런 괴상한 사건이 4월쯤 벚꽃 필 무렵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 바람이 무너졌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게 아니겠구나, 꽤 오래 벗어날 수 없겠구나,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개개인에게 누군가 안부를 물어봐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모아졌던 것 같아요."

잡지를 매개로 안부와 위로, 격려를 나눌 대상도 빠르게 좁혀졌다. 전통시장 상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주민을 비롯해 볕바라기주간보호센터와 멘토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주민들이 둥지처럼 이용하는 시설을 제일 먼저 둘러보았다. 최일선에서 방역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 의사 등 의료진에게는 응원을 보내고, 생활 속 방역 가이드라인을 지키며 돌봄과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핀 다음 도움이 필요한 곳과 줄 수 있는 곳을 연결하고 있는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활동가와도 연대의 인사를 나눴다. 막막한 고립감과 두려움 사이를 오가는 청년과 배우, 엄마에게도 지면을 통해 이웃과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배의 한숨은 코로나로부터 맞은 첫 주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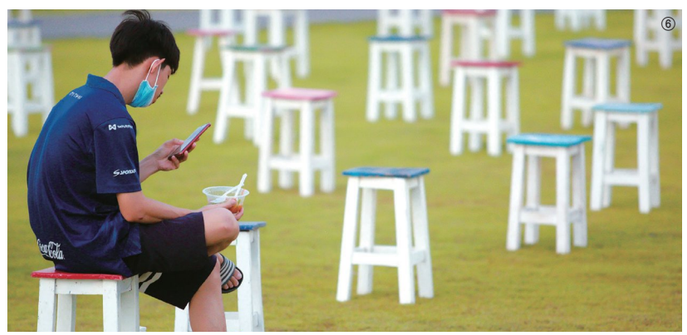
주민들이 털어놓은 이야기에는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뚝뚝 묻어났지만 동시에 어두운 터널을 함께 통과하기 위해 서로 등을 두드리고 작은 웃음이라도 찾으려 애쓰는 모습이 담겼다. "'힘들어 죽겠다… 진짜…'. 처음 듣는 선배의 한탄이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연극 현장에서 처음 만난 선배,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힘을 주던 사람.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씩~' 한 번 웃고는 힘내자며 토닥여주던 선배. 그의 깊은 한숨이 휴대전화 너머 들려왔다. 그 한숨은 코로나로부터 맞은 첫 주먹이었다."(김영승씨)

④


⑤

"살면서 어떤 생필품을 주민등록번호랑 날짜 생각하면서 샀던가요? 그것도 약국에서 판매하는 시간에 맞춰서, 다 나갔을까봐 미리미리 줄까지 서면서 말예요. 장보러 가면서 할인하는 시간이라면 모를까 참 생소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어요, 이런 풍경."(박새솜씨)

"코로나19가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코로나 블루(우울증)'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은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 지난 5월 말 새 식구 '루미'를 데려왔다. 평소 각종 알레르기를 달고 사는 큰딸아이의 적극적인 추천에 고양이를 입양하기로 한 것. … 아침 일찍 일어나 돌아다니며 얼굴을 핥아대고 그르릉 대며 쓰다듬어 달라고 놀아달라고 따라 다닌다. 아이들도 나도 이런 루미가 예뻐서 웃음이 끊이질


⑥

⑦

⑧

않는다."(조순아씨)
그중에서도 특히 공감이 컸던 이야기는 역시 아이들 소식, 많은 걸 놓쳐 짠한 '1학년들'과 관내 한 중학교 선생님이 3월 말과 5월 말 두 차례 진행한 설문조사였다. 조사 결과 시사하는 부분이 많았다. 학생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 방역지침을 잘 따르고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기간에 휴대폰 사용이 증가한 친구가 52%에 달했고,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결손이 실제로 뚜렷해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 와중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설문조사를 하신 걸 보면 역시 선생님은 다르더라고요. 수치화된 부분도 의미 있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꼼꼼히 적어낸 아이들의 표현에서도 많은 걸 읽을 수 있었어요."

⑦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많은 전통시장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
⑧
마을매거진 '닮다' 2020년 여름호 표지
⑨
모든 공용 공간에 비치된 손소독제
⑩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살핀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활동가들이 잠시 익살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
⑪
왼쪽부터 김유선 대표와 '닮다'의 표지를 장식한 초중고교와 대학 1학년생들이다.

⑨

주민들과 나누는 기분 좋은 유대감

이제는 구독하겠다는 연락도 심심찮게 받는 '닮다'는 공공기관과 도서관은 물론 동네 카페, 미용실, 병원 등에서 주민들과 만난다. 무심코 잡지를 집어든 주민 중에는 표지를 넘기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제호의 사연에서부터 빙긋 웃음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제호 '닮다'의 글씨가 매번 달라요. 이번 여름호는 금나래초등학교 행복반 어린이 21명이 참여해서 작성했어요. 알록달록 예쁘죠? '집'을 주제로 한 2019년 겨울호는 살구평생학교에 입학해 한글배우기에 나선 이보숙님이, 재밌게 노는 방법을 찾아나선 2019년 여름호는 유성훈 금천구청장님 글씨였어요. 잡지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이름에서부터 주민과 소통하고 싶은 우리의 작은 정성인데, 알아봐주시면 엄청 기분 좋죠."
김 대표와 편집위원들이 힘들어도 동네잡지를 만들고 있는 바탕에는 이런 기분 좋은 유대감이 자리잡고 있다.
"2016년 창간호를 냈는데 초기에는 글쓰기교육까지 받으며 만들었어요. 쉽지 않았죠. 그런데 갈수록 동네잡지의 힘을 더 강하게 느껴요. 주민의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사명감도 커지고요. 선물 같은 공간을 나누는 법, 같이 밥상을 즐기는 모임, 함께 행복한 놀이법을 취재하면서 구성원은 물론 잡지를 보신 주민들과도 공유하는 게 점점 풍성해지거든요."

⑩

일흔 어머니와 마흔의 딸, 열 살 손녀 3대와 코로나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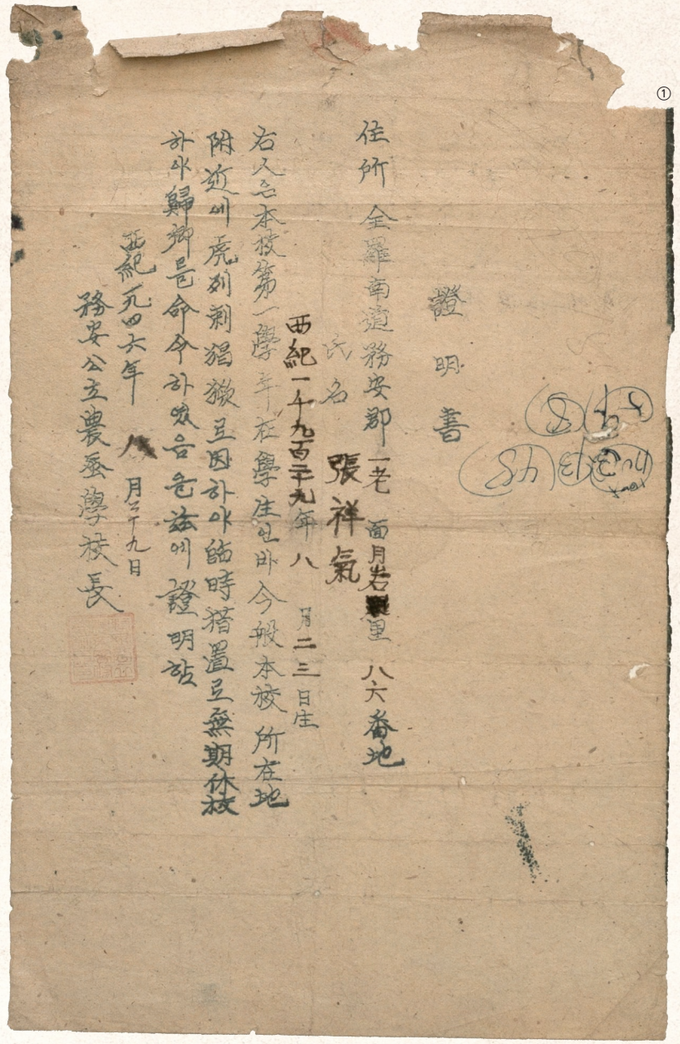
필자들은 더욱 특별한 경험을 한다. 섭외나 청탁을 받는 초기에는 부담스럽다가도 취재를 빌미로 주민을 만나는 과정, 또는 직접 글을 쓰면서 위로를 얻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닮다'의 말미, 편집위원과 필진들이 한마디씩 후기를 남기는 '포스트잇'에는 언제나 희망의 기운이 넘실거린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⑪

"칠십대 우리 엄마에게는 칠십평생 처음 겪는 코로나19,
사십대 나에게는 사십평생 처음 겪는 코로나19,
십대인 딸에게는 십년평생 처음 겪는 코로나19,
모두에게 코로나19는 평생에 처음 겪는 무서운 바이러스다. 그러나 무서운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코로나19 안녕~"

1946년의 콜레라, 기록으로 만나는 서민열전

교과서 밖 보통 사람들의 기록물 수집하는 **박건호 컬렉터**


①

①
1946년 콜레라 창궐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
학생 귀향 명령 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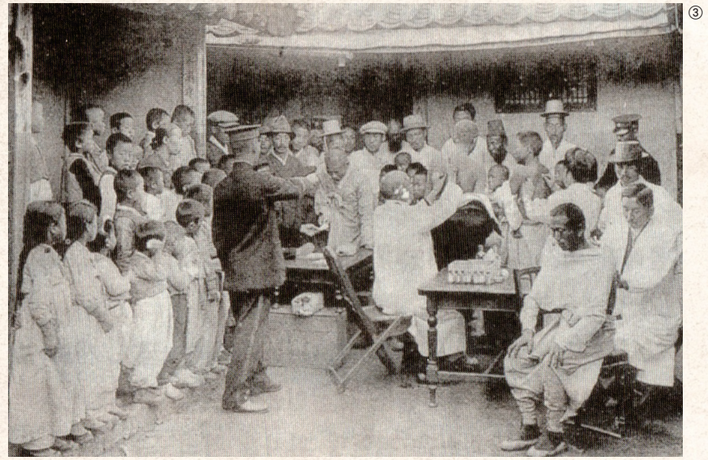
②
'40호 부락이 전멸 사태'임을 전하고 있는
〈영남일보〉 1946년 8월 4일자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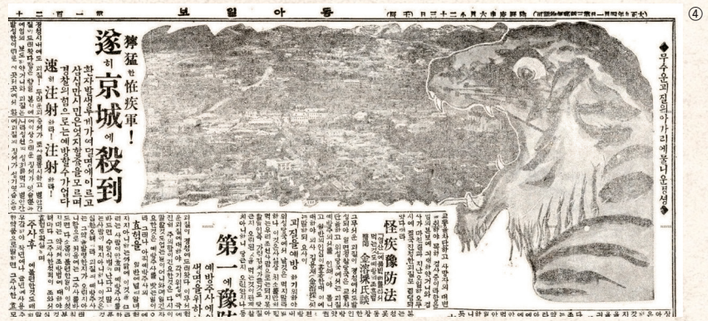
③
1920년 인천의 한 동네에서 위생경찰과
한 조를 이룬 의사들이 주민들에게
콜레라 예방 접종을 하는 모습

④
〈동아일보〉 1920년 8월 7일자는
콜레라를 무서운 호랑이와 연결시켜
재난 상황을 전하고 있다.

②

四十戶部落이(全滅狀態)
論工面에虎疫慘禍
達城郡
(玄風支局三日電話)防疫運動은邑村을不問하고活潑히展開되여있는이때에洞면의부注意인지達城郡論工面下洞一子에는全戶數가四十戶불過한데患者數는二日現在三十명死亡者는
이러나자三日부터檢便事務를當分間中止하였다
憂鬱한消息
虎疫死亡者二千名突破
憂鬱한虎列刺의發生消息이根絶되지않고오날도
그數字의憎惡感을느끼게하는것이있다
即二日現在調査에依하면大邱發生十九名中十一名死亡 漆谷四名中一名達城十六名中九명의發生과死亡者을보았다
이로말미아마全道內累計는三千三百十九명이며死亡者는二千廿四명이다 그리고이날(二日)道內에서報告中全治者는十五명이였다


③


④

수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느낀 두 사례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첫째가 병자년 가뭄의 고통을 담고 있는 문서 기록입니다. 온라인 경매사이트에서 10만원에 구입한 기록물이에요. '애간장 타는 한여름의 가뭄, 저 구름에 비가 올까 이 구름에 비가 올까…' 간절한 마음으로 문장이 시작되는데 말미에 '병자년 4월 5일'이라는 글자가 보여요. 병자년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세요? 국사 시간에 배운 일본과의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일 거예요. 그런데 가뭄이라니… 자료를 찾아보니 실제로 1876년은 19세기 최악의 가뭄으로 힘들었던 해였어요. 당시 인구의 다수를 차지했을 농민들에겐 무엇이 더 큰 관심사였을까요. 강화도조약으로 벌어질 일보다 당장의 가뭄이 훨씬 절박하지 않았을까요. 구구절절한 문장을 보고 아, 내가 모르는 역사가 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 제게 비어 있던 역사를 수집품을 통해 메울 수 있었던 거죠.

너머의 역사를 알게 해준 병자년 가뭄과 1946년 콜레라

또 하나의 사례인 '귀향 명령 증명서'도 그랬습니다. 학사 졸업 논문 주제가 '여운형의

듣도보도 못했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이하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빙빙 돌고 있는 한가운데, 휘청거릴지언정 하루하루 멈추지 않고 살아내고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찾아다닐 무렵이었습니다. <컬렉터, 역사를 수집하다-평범한 물건에 담긴 한국근현대사>를 막 펴낸 역사 기록물 컬렉터를 어느 미디어에서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영수증이나 엽서, 편지, 사진, 심지어 사직서 같은 일상의 물건에 숨어 있는 이야기라… 거창하지 않지만 어디서도 접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궁금해 책을 주문했는데, 기대만큼이나 흡인력 강한 기록물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호열자'! 코로나19와 겹쳐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1946년 해방 조선을 덮친 콜레라를 이겨낸 그 시대의 이야기가 오늘에 전하는 울림을 듣고 싶었습니다. 입시학원 역사 강사이기도 한 박건호 컬렉터는 교과서 밖 보통 사람들의 기록물을 통해 민초들의 삶을 복원해 들려주는 '찐'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이에 기사 형식보다 일인칭 시점으로 그의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조근조근 이어지는 그의 이야기 그대로가 매력적인 콘텐츠였기 때문입니다. 역사 기록물 컬렉터가 안내하는 시민열전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⑤
강연을 하고 있는 박건호 컬렉터
⑥
'국기 배례'가 행해진 1950년대 결혼식 기념사진
⑦
TV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 박건호 컬렉터가 수업 중 학생들의 반응을 전하고 있다.
⑧
권봉출이 포로수용소에서 부모님께 쓴 편지의 일부
⑨
1963년 콜레라 방역을 위해 애쓴 공로로 부산의 한 의사가 받은 표창장
⑩ ⑪
순서대로 시흥공립보통학교 7회와 8회 졸업사진.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제복에 칼을 찼던 교사의 복장이 양복과 한복으로 바뀌었음을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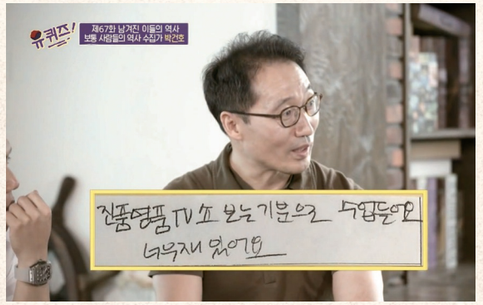
⑤

좌우합작운동'이라 해방 직후 사회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경매사이트에서 '1946년, 호열자 창궐' 등의 글자가 있는 사진이 눈에 띈 거예요. 구매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4년 1월 6일 수집을 했더군요. 내용은 1946년 여름 호열자가 유행하자 전남 무안의 공립농잠학교가 무기 휴학하면서 장상기 학생에게 발급한 '귀향 명령 증명서'였어요. 해방 직후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에 들어가고 6월에는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발언으로 불안이 커지는 한편 여운형, 김규식 선생 등이 좌우합작을 통해 분단을 막으려 애쓰던 혼란의 시기였어요. 그런 정치사로만 알던 1946년이 '호랑이가 살점을 뜯어내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하여 붙여진 호열자(虎列剌), 즉 '괴질'이라고도 불린 콜레라가 창궐해 수많은 민중이 죽어간 해였던 겁니다. 신문기사를 찾아보니 〈영남일보〉 1946년 8월 4일자에 40가구인 경북 달성군의 어느 부락에서 30명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해 13명이 사망했다는 보도와 함께 '우울한 소식 호역 사망자 이천명 돌파'라는 보도도 있더군요. 변변한 치료약이 없어 걸리면 대부분 사망할 수밖에 없는 괴질 사태에 당시 백성들은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을까요. 증명서 수집을 계기로 관련된 감염병 상황과 처방, 용어 등을 연구하면서 지옥도나 다름없었을 그 시대의 이면을 좀 더 알게 됐습니다. 한편으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그 시대를 떠올리면 약간 힘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낸 이들의 후손이니 코로나19 시련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랄까 낙관 같은 게 생기는 거죠.

⑥

이들은 왜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

역사 기록물 컬렉터가 된 지 벌써 20년, 수집품이 수만 점은 될 거예요. 그중 80%가 사진이나 문서류이고요. 오랜 기간 이어지다보니 특별한 소명의식이 있는지 묻는 분도 계신데 사실 계기는 보충 자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생들을 집중시키고 이해를 돕는 자료가 있으면 좋잖아요. 근현대사도 까마득한데 조선시대, 고려시대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무래도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슬라이드를 활용하다가 교과 내용과 연관된 사진이나 문서 같은 기록물을 보고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 조선시대 사회신분제도다 하면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호패', 재산 분배로 성리학적 질서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분재기(分財記)' 등을 보여주는 식이죠. 학생들 반응도 좋았습니다. 졸업 후에도 '인상적이었다' 'TV진품명품쇼 보는 것 같았다'는 얘기를 듣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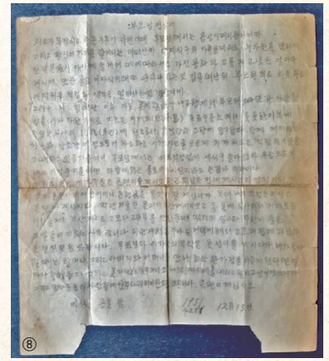


⑦

지금도 매번 두세 개 정도 옛 자료를 보여주려 애씁니다.
경매사이트를 드나들다 보면 꼭 보충 자료가 아니라도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사든 안 사든 역사를 공부하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수집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기록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여성은 회고록이라 할 수 있는 5미터 넘는 문서를 남겼는데,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된 가족 이야기부터 온갖 고통을 적어놓았어요. 충청도 영동의 한 남성은 1930년대 부산과 울산 사이 철도 공사장에서 일한 경험을 '철도공사여행일기'라는 기록을 통해 그때의 여정, 품삯, 매일의 일상 등을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적은 곳이 1971년도 달력이에요. 꼼꼼한 내용을 보면 어딘가에 써놨다가 나중에 옮겨 적은 듯해요.

흔적을 모아 글쓰기로 진화하다

이런 기록물을 만나면 궁금하잖아요. 이들은 왜 이런 걸 썼을까? 이때 기록은 지식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남긴 자기 흔적입니다. 포로수용소에서 부모님께 쓴 편지도 있어요. 하나같이 시대적 상황 속에 선 한 평범한 인간이 남긴 흔적인데, 그것이 주는 진한 울림이 느껴집니다. 교과서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정말 소중한 자료구나, 이 또한 역사구나 싶은 거죠.
또 수집품이 쌓이면서 확장되는 영역이 있어요. 글쓰기입니다. 수업에 쓰려고 수집한 '임팩트' 강한 기록이 쌓이면 신기하게 스토리가 생기거든요. 자연스레 글로 옮기게 되죠. 결혼식 사진이 좋은 사례예요. 결혼식장 중앙에 걸린 태극기가 재미있어서 모으다 보니 태극기의 유무부터


⑧

⑨

⑩

⑪

시기별로 복장이 다르고, 식순이 달라요. 1956년 결혼식 식순에는 국민의례도 있고요. 유추해보면 일제강점기 때 국가주의가 남긴 흔적으로 읽힙니다.

'시흥공립보통학교' 졸업사진은 특히 남다른 인연이구나 싶은 기록 중 하나입니다. 1919년 3월 20명 정도 학생과 제복에 칼을 찬 4명의 교사를 찍은 7회 졸업사진을 먼저 수집했어요. 그로부터 10년쯤 뒤 8회 졸업사진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교사들의 복장이 한복이나 양복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전국적인 3.1운동 이후 문화통치로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보존하고 있는 조선총독부 직원 명단을 찾아 교장과 교사의 이름도 확인했습니다. 컬렉팅의 묘미가 이런 거예요. 이 기록을 통해 알게 된 작은 진실이 새로운 자료나 기록으로 보충이 되는 거죠. 마치 퍼즐을 맞춰가는 쾌감과 비슷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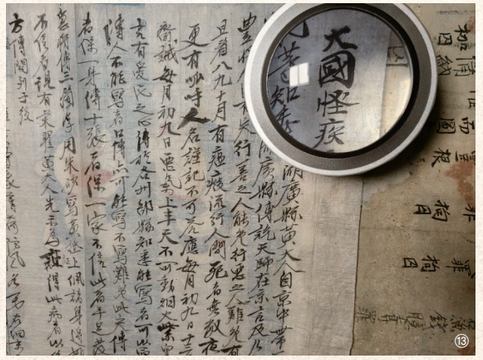
소명의식?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대신 들려줄 뿐

그런 연구가 모여 글쓰기로 진화하는 거죠. 분명 개인적인 흥미나 필요에 충실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민열전'이 된 것 같습니다. 기록물의 주인들이 자신은 남겼으니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해서 들어주다가, 그 다음엔 '좀 써줄래?' 하니 쓰게 되는 거죠. 민초들,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대신 들려주는 건데, 그게 나름의 소명의식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비교적 따뜻한 시각으로, 최대한 정확하게 그들의 삶과 주변 역사를 복원해 세상에 전하려 애쓰는 거죠. 남겨진 자료는 많지만 달려들어 정리하는 데 흥미를 갖는 경우는 적으니까 후대에 도움이 되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글은 그때그때 '레디앙' 같은 온라인 공간에 공개하기도 하고, 강연 등에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컬렉팅 자체의 재미와 의미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기록물 수집이 제 개인에게 큰 변화를 몰고 왔거든요. 제 삶이 아예 바뀌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역사의 흔적인 기록물을 수집한 다음 그것을 모아 엮고 잇고 해석을 더한 글을 쓰고 발표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지속한 결과 이제 책까지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문이나 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독자들도 만나고 있고요.

⑫



⑬

⑫
박건호 컬렉터

⑬
괴질을 설명하고 있는 기록. 콜레라가 '호열자'로 불리기 전에는 '괴질(怪疾)', 즉 '괴이한 질병'이었다.

⑭
박건호 컬렉터는 수업에서 교과서 속 역사를 당대 기록과 연결해 학생들에게 설명해 이해를 돕는다.

시대를 읽는 열쇠를 찾는 여정

시간이 축적되면서 제가 기록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물도 저한테 작용을 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된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보통 사람들의 기록물을 모으고 흔적과 대화하는 일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록물에는 '아비투스'가 반영되어 있어요. 그 시대를 구성하는 특정 환경에서 산 사람들의 성향이나 방식, 혹은 태도 같은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박물관에 있는 기록물이 아니어도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 열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수집 전도사로서 글과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학생들에게 보여주기도 하면서 꾸준히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는 열쇠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역사 기록물 컬렉터 도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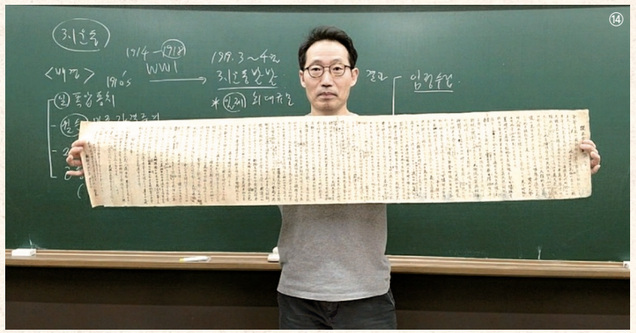
관심주제 정했다면 비용과 함께 공간도 살피세요!

온라인을 통한 역사 기록물 수집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경력 20년 박건호 컬렉터의 안내가 쏠쏠한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수집 대상 기록물의 용도와 주제, 수집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방대한 기록물의 바다에서 헤매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 컬렉터가 숙명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보관 공간 확보와 직결되는 수집품의 부피이다. 초기에는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으나 컬렉터로 오래 활동하려면 공간 문제야말로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수집품이 수만 점에 달하는 박건호 컬렉터가 큰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작은 사진이거나 문서류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컬렉터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비용문제이다. 그런데 박 컬렉터는 의외로 수집 비용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의 경우도 마라톤 선수 손기정 선생의 역사적인 사인을 몇 백만 원에 구입한 적이 있지만 이런 사례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다. 추정해보면 월평균 수집 비용은 50만원 내외로, 골프나 술 마시는 등 취미에 대한 지출을 줄이면 조정 가능한 범위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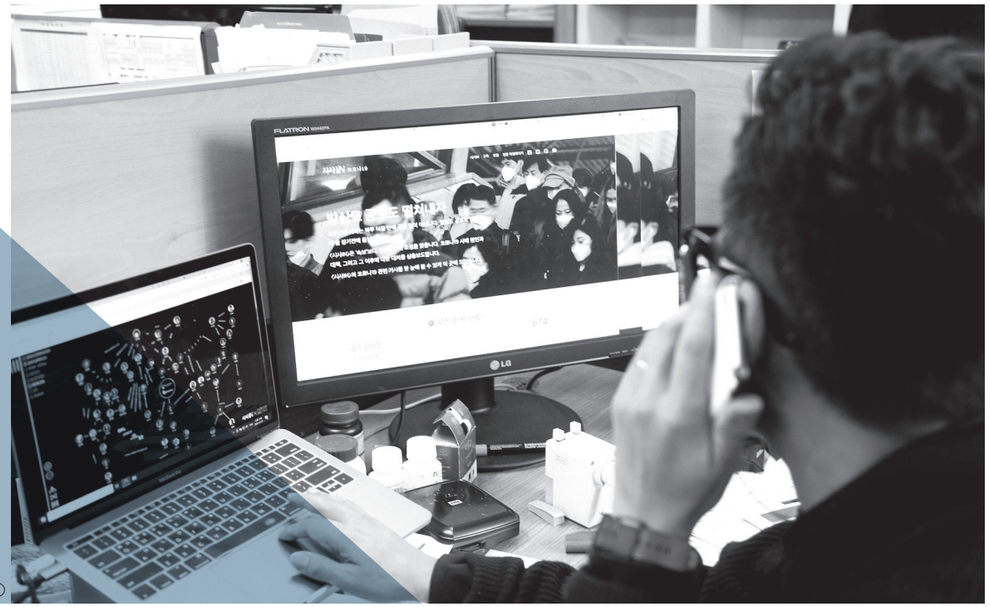
그러니 초보 컬렉터의 경우 '가볍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경매사이트에 올라 있는 기록물 상당수가 1천원부터 몇 만원 사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선택의 폭이 결코 좁지 않다는 것이 박 컬렉터의 조언이다. 다만 꾸준히 주제와 관련된 분야를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안목을 키워야 한다. 간혹 가치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경매에 붙여진 기록물을 만날 수 있는데, 이때는 눈 밝은 컬렉터의 안목이 가치와 가심비 높은 기록물을 수집하는 데 결정적인 변수이기 때문이다.



⑭

감염병 재난을 대하는 언론의 자세는 정확한 정보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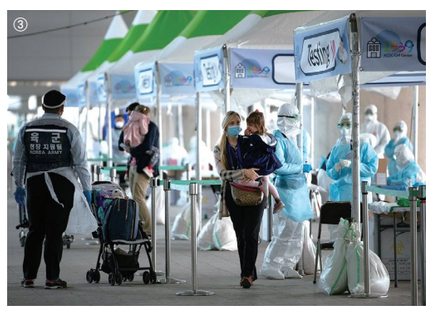
'코로나 기사 아카이브' 서비스하는 **고제규 〈시사인〉 기자**



①

②

①②③④
covid19.sisain.co.kr
홈페이지 첫 화면과
관련 데이터 및 사진 기록들



③

④

질병관리본부 속보
자세히 보기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홈페이지
자세히 보기 →

세계보건기구(WHO) 상황 보고서'
자세히 보기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연구팀의 '실시간 지역별 감염자 지도'
자세히 보기 →

이동훈씨가 만든 '코로나맵'
자세히 보기 →

개발자 둔딘과 소저씨가 만든 '코로나19 상황판'
자세히 보기 →

홈페이지에는 관련 사이트도 연결되도록 해놓았다.

재난정보의 불평등은 곧바로 재난의 불평등으로 연결되기 마련,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보에 대한 접근은 개개인의 생존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정확한 정보가 발빠른 대처와 예방 지침이 돼 구성원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불행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전 지구적 재앙인 코로나19 사태는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우리 사회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위기대응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정보와 무관하지 않다. 무수한 가짜뉴스가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지만 그래도 K-방역을 주도해온 정부와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유통하려 노력한 덕분이다.

재난 앞에서 공유한 공공재로서 언론의 역할

정보 유통에 핵심 역할을 하는 곳 중 하나가 언론이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해 소임을 다한 언론사로 두고두고 주목받을 곳이 있다. 훨씬 큰 규모의 언론사들이 자극적인 제목을 내건 속보경쟁을 서슴지 않는 동안 남다른 행보를 선택한 주간지 〈시사인〉이다. 차별화 지점은 편집국 구성원이 공유한 세 가지 원칙이다. 속보 대신 정확한 정보, 코로나19 기사에 관한 한 발행 즉시 무료 공개, 그리고 코로나19 기사 전용 국문과 영문으로 된 별도의 디지털 페이지 서비스가 그것이었다. 2020년 2월 전후, 당시 편집국장으로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 방침을 세워야 했던 고제규 기자의 기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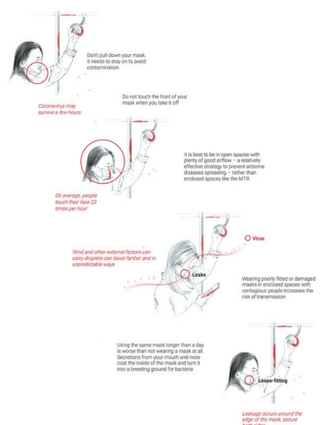
"솔직히 초기엔 우리도 코로나19의 실체를 몰라 좌충우돌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상상해야 하는 것은 공공재로서 언론의 역할이라고 봤어요. 그에 대한 합의가 재난 시에는 오보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기에 최대한 과학적으로 접근해 확인한 정확한 정보를 담은 뉴스를 추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별로 취재 영역을 특화한 이유였다. 한 기자는 바이러스, 백신, 방역 등 핵심 키워드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 생산에 집중했고, 다른 기자는 주간 매거진의 장점인 '되돌아보고 내다볼 수 있는 기획'으로 전문가들과 감염병을 다각도로 조명한 '주간 코로나19'를 축적해나갔다. 또 한 기자는 재난을 성장을 위한 또 하나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전 국민 고용보험제' 같은 미래지향적 어젠다를 제안했다. 중간중간 '중국봉쇄론'처럼 정치쟁점으로 비화한 사안이 불거질 때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을 추적해 검증하는 시도도 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상당 부분은 전문가와 탄탄한 협업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전문가와 기자 협업이 빚난 심층보도

"기자는 제네럴리스트예요. 제가 생각하는 기자의 능력 중 하나가 일이 터졌을 때 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코로나 초반에는 기자도 기본 전문지식은 알아야 한다면서 같이 논문을 읽어주시고, 주장별 팩트체크와 관점이나 방향을 잡는 일까지 전문가 그룹에서 좌우 없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양질의 심층보도가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는 〈시사인〉 기자들에 대한 신뢰 덕분이기도 했다. 정보가 거의 없다시피 한 초기, 한 기자는 그때까지 유일한 경험국인 중국 쪽 관련 논문을 50~60편이나 구해 검토했고, 이어 현지 통신원과 같이 취재한 다음 다시 전문가들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의학이나 의료적 접근에 한정하지도 않았다. 사진기자의 제안으로 '작은 대한민국'을 담아낸 '코로나19 최전선의 우리들'은 〈시사인〉다운 대표적인 기사로 꼽힌다. 코로나19 1차 파동의 진원지였던 대구 동산병원을 찾아가 의사와 간호사, 방사선사 등 의료진은 물론이고 방역업체와 의료폐기물



〈시사인〉에서 공유한 SCMP 인포그래픽팀이 제작한
'코로나바이러스 설명하기'.

처리업체 직원, 요양보호사, 운영팀 물류파트와 청소업체 직원, 그리고 지하에서 근무하는 전기기사와 자원봉사자까지 만나 코로나19 극복 현장을 생생하게 전한 것이다.

코로나19 기사를 실시간으로 무료 공개한 것 또한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다. 정기구독자 비중이 70%나 되는 매체의 특성상 시차를 두고 온라인 서비스를 해왔지만 재난 앞에 선 공공재 언론은 무엇보다 정보 접근권이 우선이라 판단한 것이다.

'코로나19 특별 페이지'를 운영한 이유

이와 함께 〈시사인〉은 2월로 접어들며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자 온라인에 '코로나19 특별 페이지(http://covid19.sisain.co.kr)'를 개설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자체 생산한 코로나19 관련 기사를 공유하는 별도의 온라인 공간을 만든 것이다. 코로나19 페이지는 기사 외에 매일매일 국내 검사 및 확진자·사망자, 전세계 국가별 일일 신규 확진자 상황 등 코로나 현황 정보와 함께 불특정 다중지식의 힘이 응집돼 자발적으로 구축된 네티즌 사이트,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들의 사이트를 링크해 놓았다.

"코로나19 기사 묶음방이라 할 수 있겠죠.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 경로를 단순화하자는 취지였어요. 그래야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동시에 별도의 영문 페이지도 구축했습니다. K-방역이 국제적으로 주목받으며 해외에서 인입해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정확한 정보와 무료 공개, 접근성 보장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시사인〉의 독자적 패키지 서비스가 됐고, 그만큼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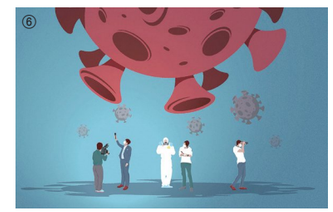
한편으로 아쉬움이 없지는 않다.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취재 전말을 아우른 '응답하라 7452'부터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박근혜 게이트 아카이브-기록의 힘' '대림동에서 보낸 서른 번의 밤' '소리없이 퍼지는 도시의 질병, 빈 집' '정점마을의 17년-해바라기 꽃 필 무렵' 등에 이르기까지 이미 많은 이들이 놀라고 칭찬한 디지털프로젝트의 완성도에 비하면 이번 코로나19 특별 페이지는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시각화 작업 등이 뒷받침되지 않은 원천 콘텐츠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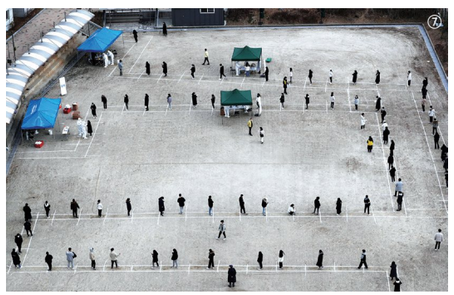
신뢰받는 디지털아카이브는 언론사의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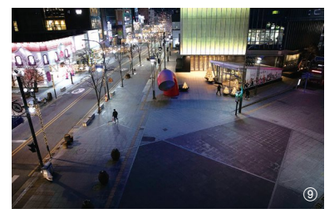
그렇다고 이를 〈시사인〉의 한계라 비약하기는 어렵다. 소규모 언론사로서 적잖은 비용 부담에도 영문 페이지까지 서비스하고, 기존 디지털프로젝트를 꾸준히 유지, 관리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실제로 선의에 공감한 파트너업체의 배려에 힘입은 바 크다. 또 비용을 줄여보려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시선도 받았다. 이를 감수하고 꾸준히 디지털아카이빙을 계속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이 언론사로서 가장 본질적이면서 보다 현실적인 경쟁력이라 믿는 것이다.

"위기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잖아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쉽고 눈에 띄는 뉴스를 빠르게 소비하는 행태가 재난을 계기로 정확한 뉴스,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매체에 대한 소비로 연결된다고 보니까요. 흔히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의 강점을 독자들이 다시 알아가는 거죠. 더욱이 1년, 2년 뒤에 되돌아보면 각 언론이 어떤 보도를 했는지 두고두고 평가 자료로 회자될 거예요."

고제규 기자는 이때 뉴스를 깊이 있게 생산, 보도하고 그 뉴스를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서비스하는 것과 관련해 '기록과 보관의 힘'인 디지털아카이브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언론사가 자기 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해답이 되리라 전망한다. 인포데믹시대, 글로벌기업인 구글이 〈시사인〉을 지원한 것도 이 작은 매체가 진전시키고 있는 언론의 미래 때문일 것이다.







⑤⑥
Covid19 영문 특별 페이지의 사진 기록들
⑦
Covid19 영문 특별 페이지에 실린 〈연합뉴스〉 사진
⑧⑨
Covid19 영문 특별 페이지의 사진 기록들
⑩
코비드19 팬데믹 발생 초기부터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디지털아카이브를 운영한
고제규 당시 편집국장

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코로나 記

'안네'와 친구 되고 온라인으로 연극 공연…
이것이 코로나 실화!

서울기록원은 2018년부터 꾸준히 '서울기록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록 못지않게 중요한 시민의 기록을 수집해 서울을 표상하고, 그 기록을 다시 시민들이 매력적인 콘텐츠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20년 선정한 수집 주제 중 하나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이하 코로나19)'이다. 서울시민의 삶에 코로나19만큼 극적인 영향을 미친 주제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집 영역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집활동 범위를 고려해 '언택트사회: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시민사회'로 한정했다. 빅데이터 분석기를 통해 도출한 관련 키워드는 '학교'와 '놀이', 'K방역'이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였다. 수집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변화된 일상과 함께, 특히 사회적 재난에 취약한 분야의 시민들을 심층 면담하고 관련 기록을 발굴했다. 더불어 수집활동에는 현장 연구에 자주 접목되는 사회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해 시민들이 직접 사회적 재난의 한가운데 있는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게 하는 시도도 있었다. 자신의 생활을 사진으로 찍어 설명하는 '포토보이스(Photovoices)'와 일정 기간 일기를 쓰게 하는 '다이어리 메소드(Diary Methods)' 방법이었다. 생생한 지금, 여기를 기록하는 사진과 일기를 통해 하루하루 자기 일상을 들여다보고 삶의 변화를 예민하게 인지하는 개인의 성찰과 애착, 희망들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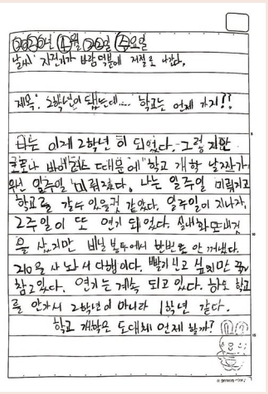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이어리 메소드에 참여한 정이담, 장유유 두 학생의 코로나일기이다.

초등학생 정이담의 코로나일기

#1

'210미리'라서 다행이다

'자전거가 바람 덕분에 저절로 나간다'고 멋지게 날씨를 적은 초등학생 정이담(가명)은 2학년이 된 후 자꾸 개학이 연기돼 너무 속이 상한다. 도대체 학교는 언제 가지? 1주, 2주 연기되던 것이 한 달을 넘겨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담이에게는 '다행'인 것이 있다. 학교에서 신으려고 새로 산 실내화가 '210mm'라는 사실이다. 지금의 자기 발보다 훨씬 큰 사이즈였던 것이다.



제목 : 2학년이 됐는데... 학교는 언제 가지??

나는 이제 2학년이 되었다. 그렇지만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학교 개학 날짜가 우선 일주일 미뤄졌다. 나는 일주일 미뤄지고 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2주일이 또 연기되었다. 실내화도 새것을 샀지만 비닐봉투에서 한 번도 안 꺼냈다. 210을 사 놔서 다행이다. 빨리 신고 싶지만 꼭~ 참고 있다. 연기는 계속되고 있다. 하도 학교를 안가서 2학년이 아니라 1학년 같다. 학교 개학은 도대체 언제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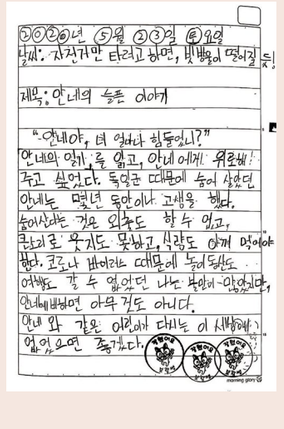
다이어리 메소드에 참여한 정이담 학생이 4월 22일에 쓴 일기.

이담이가 쓴 일기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색다른 시선을 잘 보여준다. 이를테면 당장 학교에 가지 못할 만큼 위기가 닥칠 때는 응당 현재보다 조금 큰 치수의 실내화를 사 놔야 한다는 사실 같은 것 말이다.

#2

안네야, 너 얼마나 힘들었니?

이불 밖은 위험해! 다 같이 즐기는 대신 흩어지고 거리를 유지하며 생활해야 하는 이 고약한 감염병 시대 고립감을 이담이라고 모를 리 없다. 그 고립감은 60여 년 전 동무의 마음을 떠올리게 한다. 2차 세계대전의 한가운데, 1942년부터 1944년까지 독일군의 감시를 피해 숨어 지내며 열세 살 생일 선물로 받은 일기장에 일기를 쓴 안네이다. 이담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집에 머물 것을 강요받는 생활을 하며, 외출은커녕 큰소리로 웃을 수도 없었던 안네의 마음을 알겠다고 일기장에 쓴다. 안네와 이담이가 기록으로 만나는 순간이다.



제목 : 안네의 슬픈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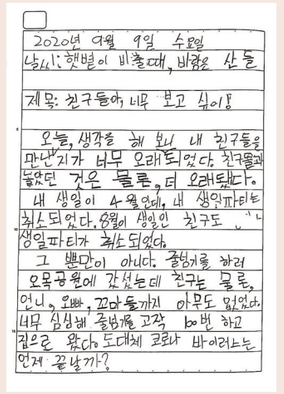
'안네야, 너 얼마나 힘들었니?' 〈안네의 일기〉를 읽고, 안네에게 위로해 주고 싶었다. 독일군 때문에 숨어 살았던 안네는 몇 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다. 숨어 산다는 것은 외출도 할 수 없고, 큰소리로 웃지도 못하고, 식량도 아껴 먹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놀이동산도 여행도 갈 수 없었던 나는 불만이 많았지만, 안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안네와 같은 어린이가 다시는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정이담 학생이 5월 23일에 쓴 일기.

#3

오목공원에 갔었는데, 아무도 없었다

2020년 9월 초, 햇볕이 비치고 바람이 산들한 날이었다. 이담이는 이렇게 날씨가 맑으면 친구들 생각이 더 난다. 학교, 동네, 학원, 온갖 데서 다 만날 수 있었던 친구들. 하지만 개학도 늦고, 학교생활도 거의 온라인으로 하면서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너무 없다. 4월에는 이담이 생일잔치를 하기로 했는데 개학도 늦춰진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아서 취소했더랬다. 어느새 9월, 여전히 친구의 생일잔치는 취소다. 오목공원으로 달려가도 나와 놀아줄 친구가 아무도 없다. 혼자 나와 있으니 이담이는 줄넘기를 100번밖에 하지 못했다.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다. 이담이는 친구들과 생일잔치도 하고, 공원에서 같이 뛰놀고 싶다. 하늘을 향해서일까, 슬프고 답답한 이담이는 질문을 던진다. "도대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 끝날까?"



제목 : 친구들아, 너무 보고 싶어!

오늘, 생각을 해 보니 내 친구들을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 친구들과 놀았던 것은 물론, 더 오래됐다. 내 생일이 4월인데, 내 생일파티는 취소되었다. 8월이 생일인 친구도 생일파티를 취소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줄넘기를 하려 오목공원에 갔었는데 친구는 물론, 언니, 오빠, 꼬마들까지 아무도 없었다. 너무 심심해 줄넘기를 고작 100번 하고 집으로 왔다. 도대체 코로나바이러스는 언제 끝날까?

다이어리 메소드에 참여한 정이담 학생이 9월 9일에 쓴 일기.

고등학생 장유유의 코로나일기

ZOOM 화이트보드 기능을 사용해 친구들과 논 유유

#1

코로나19 시대에도 노는 법을 알려ZOOM~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장유유(가명) 역시 코로나19로 한참이나 늦춰진 개학 이후에도 등교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2020년을 마무리할 참이다. 그래도 초등학생보다는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는 속도가 빠른 것 같다. 친구들과 만나기 어려워 '이제 같이 노는 거는 못하겠네' 했는데, 웬걸! 온라인 수업 도구인 '줌(이하 ZOOM)'에 장착된 화이트보드 기능을 사용해서 함께 '공동으로 그림 그리는 놀이'를 하며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닌가.
온라인 도구들을 활용한 돌파구는 생각보다 다양했다. 시험 기간에 유유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영상 타이머 기능이 탑재된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다. 각자 자기방 책상에 있지만 앱으로 연결된 또 하나의 세상에서 모르는 걸 묻기도 하고, 가끔 딴길로 새기도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일정 시간이 지나 애플리케이션이 꺼지면 핑계 삼아 잠시 쉬었다가 다음 공부 팀과 조우한다. 어른들에겐 한없이 낯설고 적응하고 싶지 않은 시스템이지만 청소년 세대에게는 어느새 일상이 된 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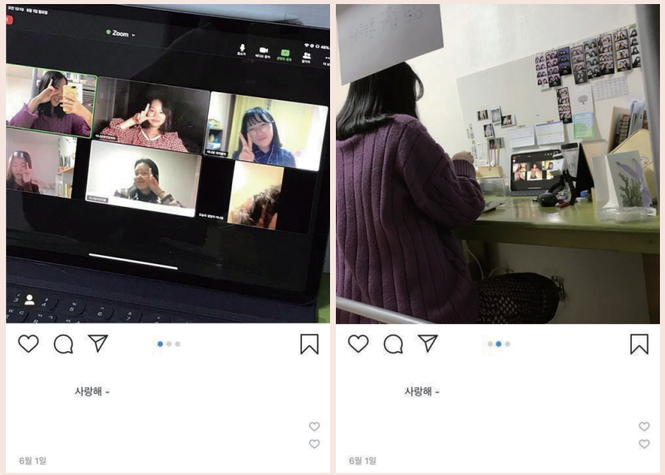
#2

온라인으로 생일 축하해ZOOM

생일잔치를 취소한 이담이와 달리 고등학생 유유는 온라인으로나마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주었다.
누구는 자기 방에 '생일축하해' 문구를 써 붙이고, 누구는 케이크에 초를 밝히고, 누구는 폭죽을 터뜨린다. 노래는 모두 같이 떼창으로 불러준다. 저마다의 방에서 치른 한 사람을 위한 잔치. 카메라 너머로 생일상을 받은 그 친구의 마음은 어땠을까? 좀 억울하고 슬프긴 하지만, 아무리 훼방을 놓아도 우리 아이들은 연결하고야 만다!

6월 1일이 친구 생일이었는데 생일파티를 한다고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온라인 생일파티를 준비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진행됐고, 각자 집에서 화면으로 생일파티를 하니까 만나서 하는 오프라인 생일파티와는 다른 색다르고 조금은 억울하고 슬픈, 생일파티였던 것 같다.

유유와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함께 한 생일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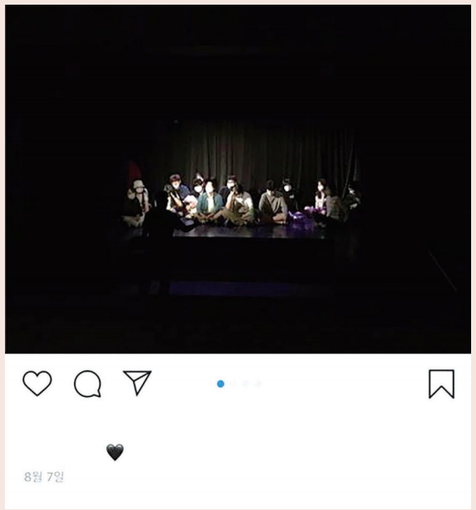
#3

이런 상황에서 연극 한 편을 무대에 올려ZOOM

유유네 학교는 고1 교과과정에 전교생이 다 참여하는 연극 수업이 편성되어 있다. 각 반 단위로 연극을 한 편씩 만드는데, 공연 한 편에 연출, 희곡, 배우, 음향, 소품, 장치, 조명 등 크든 작든 모두가 역할을 하나 이상 맡아야 한다. 그런데 연극만큼 접촉을 통해 호흡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도 중요한 활동도 없지 않은가. 한데 코로나19로 등교를 못하니 어쩌나. 이제 유유네 학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한여름 밤의 꿈' 연극 수업이 무산이 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미래로 쭉쭉 뻗어 가는 아이들은 역시 달랐다. 희곡은 구글 드라이브를 열어 놓고 공동으로 참여해 창작하고, 무대 블록킹이나 배우들의 동선은 파워 포인트 슬라이드 쇼로 같이 짰다.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무대 장치 도면을 같이 그리고, 안무나 노래 연습은 실시간 혹은 녹화 영상을 통해 진행했다. 무대 올라가기 전 리허설에서는 마스크를 끼는 등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했다. 연습이 한창일 때면 간식을 사서 주던 학부모들은 저마다 집에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넣어 주었다. 공연 관람은 유튜브에서 온라인 상영을 기본으로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회당 관람객은 40명이 넘지 않게 해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관람하게 했다. 연극 작업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니! 그 어려운 일을 유유와 친구들이 해냈다.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원망스러울 때가 한여름 밤의 꿈(한꿈) 수업을 할 때인 것 같다. 연극이라는 게 같이 모여서 서로의 온기를 공유하면서 해야 하는 활동인데, 지금 이 언택트 상황에서 연극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한계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할때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줌을 적극 활용해 오프라인으로 회의할 때만큼의 결과를 잘 이끌어 낸 것 같다. 등교 수업을 할 때는 마스크를 끼고 실제로 연극을 하는 것을 위주로 수업을 했는데 표정도 많은 역할을 하는 연극이라는 활동을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된다는 게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무대에서 연극을 할 수 있을 만큼 진행이되었다는 것에 만족스러운 것 같다.

유유와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진행한 연극 수업과 공연 장면



공간을 공유해, 관심을 함께해, 우리를 기억해

기록을 통해 보는
'오늘공동체' 사람들이 사는 법

오늘공동체 전경

2020년 화제가 된 부동산 은어 '영끌'. 빚은 기본,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라도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질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번민하고 시험에 들었다.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것'이라는 공익 구호가 아무리 강조되어도 1960~70년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이후부터 줄곧, 사는(buying) 사람들로 인해 살던(living) 이들이 내몰리는 경험을 되풀이 쌓아 온 시민들은 사방에서 출렁거리는 부동산 경기에 끝없이 흔들렸다.

하지만 작용이 강한 곳에는 반작용이 따르기 마련. 집이 투기의 대상, 욕망의 대상으로 인식될수록 새롭게 형성되는 흐름도 생겨났다. 공공주택정책 등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한편으로 공동체 주택이나 셰어하우스, 코하우징 등 시민들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통해 실험하는 주거혁신 모델이 속속 등장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2020년 서울기록원은 이 주거혁신 흐름을 수집 주제로 정했다. 초기 조사 과정에서 서울 도봉산 아래 안골에 위치한 '오늘공동체'가 눈에 들어왔다. 개별로는 47~48명, 가구로는 13~14가족이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공간을 따로 또 같이 사회적 가족을 이루며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주택인 오늘공동체는 아이를 서로 돌보고, 의료비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고질적인' 도시문제까지 자생적으로 풀고 있는 진정한 주거혁신 사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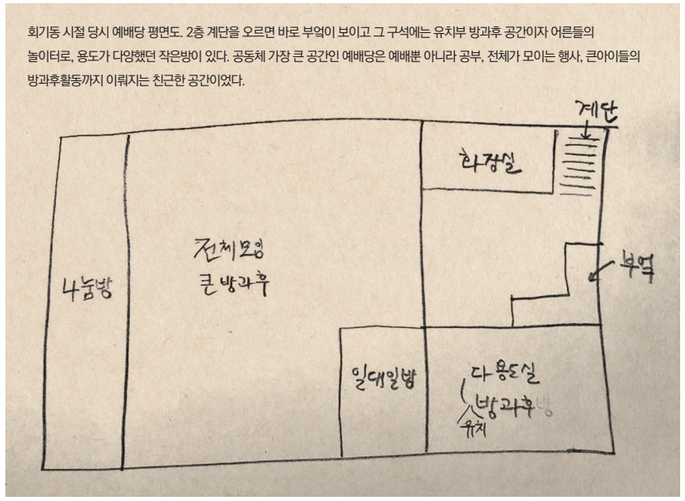
이에 서울기록원은 오늘공동체와 함께 그들이 신나게 개척하고 있는 주거실험의 역사를 '수집'하기로 했다. 머리를 맞대고 상상하며 수없이 반복해 그린 설계도면, 밤늦도록 펼쳐지는 유쾌한 이벤트와 동아리 활동을 담은 사진과 그림에는 오늘공동체 구성원들이 느끼는 행복감과 열정, 배려가 고스란히 배어 있다. 기록으로 재구성해보는 오늘공동체의 지향과 생활을 안내한다.

주거문제 해법1 가까이 살기

2000년대 중반, 동대문구 회기동에 자리 잡은 은혜공동체(2020년 6월 바뀐 오늘공동체의 예전 이름으로, 변경 이전 내용일 경우 당시 표기를 따름)에는 예배당 외에 공동으로 식사하고 소소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엌과 동아리방이 함께 마련되었다. 예배를 마치면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시간을 즐기다 보니 어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차츰 밥이나 술 아니어도 함께 있고 싶어 하나둘 교회 근처로 이사를 했다. 공동체에 관한 공부를 '찐하게' 하는 동안 같이 놀고 어울리는 시간도 '찐하게' 지나갔다.

당시 구성원들은 은혜공동체와 함께 나이를 먹으면서 비슷한 시기에 굵직한 일들을 겪는다. 혈혈단신 청년들이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건'을 경험한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일처럼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크기와 종류의 일이 점점 늘었다. 같이 어울리고 놀던 공동체 식구들은 자연스레 같이 돌보고 살피는 사이가 되었다. 은혜공동체 전체 역사에서 이 시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 서로에 대해서 알아 가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다는 연대감을 쌓아 가는 시간이었다.

회기동 시절, 은혜공동체 예배당은 공연장이자 행사장이자 배움터이자 구성원들의 사랑방이었다.



회기동 시절 당시 예배당 평면도. 2층 계단을 오르면 바로 부엌이 보이고 그 구석에는 유치부 방과후 공간이자 어른들의 놀이터로, 용도가 다양했던 작은방이 있다. 공동체 가장 큰 공간인 예배당은 예배뿐 아니라 공부, 전체가 모이는 행사, 큰아이들의 방과후활동까지 이뤄지는 친근한 공간이었다.

주거문제 해법2 혈연 넘어서기

언제부턴가 공동체 식구들은 단순한 친밀감을 넘어 서로에게 필요하고 필수인 관계가 되었다. 같이 살아 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마다 조금씩 차올랐다. 이 무렵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실험으로,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는 연합가정에 도전해보기로 한다.
그때 싱글맘과 아이가 있는 두 집이 합친 연합가정과 싱글 여성 4명, 싱글 남성 4명이 각각 합친 연합가정이 탄생했다. 혈연을 넘어선 관계들이 일가를 이루니 공간도 훨씬 개방적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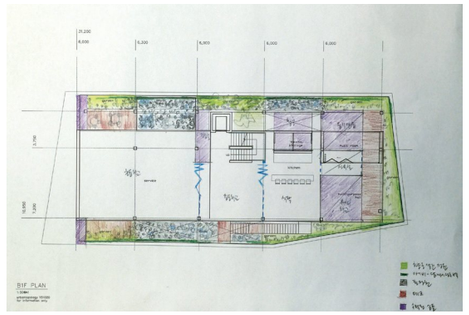
확장된 집은 은혜공동체 식구들에게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풍요로움을 선물했다. 육아나 살림 같은 일들이 한 개인에게 몰리지 않아 풍요로웠고, 놀러 가는 지인들은 편안한 쉼터가 생겨 풍요로웠다. 좁은 집 마루일지언정 파티에, 연주에, 연극까지, 드나들 핑계가 끊이지 않아 풍요로웠다. 싱글맘의 고단한 육아나 싱글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 싱글 남성들이 집에서 느끼는 무기력감 같은 것들이 서로서로의 힘으로 무색해졌다.

싱글맘 연합가정에 몰려든 사람들

연합가정의 식탁은 늘 풍성하다. 저마다 반찬을 하나씩만 가지고 와도 우르르 금세 잔칫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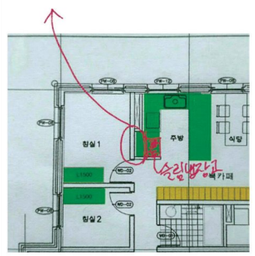
주거문제 해법3 같이 살 집 직접 지어 살기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세 번째 실험은 현재 오늘공동체 구성원의 절반이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주택 '은공1호'이다. 오늘공동체 구성원들은 연합가정 경험을 거치며 다 같이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었다. 전체가 함께 살려면 새로 지어야만 했다. 게다가 많은 구성원들의 생각과 취향을 모아 공동체주택을 짓겠다고 했을 때, 모두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은공1호 준비 과정에서 재원 조성 부분을 맡았던 은혜공동체 식구 승엽씨. 집 짓는 일을 본격 추진하면서 공동체 안에도 보증금이 없어 고액의 월세를 부담하거나 노후 주택에 사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조합원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승엽씨는 공동체주택을 짓는 일이 식구들의 주거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더 부듯했단다.

냉장고를 양문형이 아닌 슬림형으로 설치하려고합니다. 슬림형은 크기가 폭60cm깊이60cm높이190cm정도라 주방사우트였공간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될것같은데 변경후 뒷부분에 남는 공간을 침실1공간으로 넣는게 변경이 가능할지요?



오늘공동체 식구들은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를 놓고 치열하고 진지하게, 한편으로 즐겁고 신나게 논의해 나갔다. 이 기록들이 모두 '도봉산 건축방'이라는 온라인 채널(네이버 밴드)에 쌓여 있어 그 지난한 과정들을 엿볼 수 있었다.

주거문제 해법4
주거문제 해결 받고, 도시문제 해결 더블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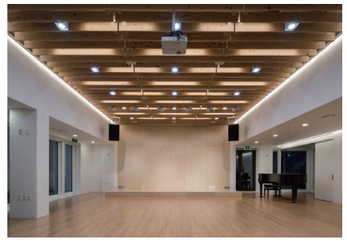
'같이' '산다'는 것은 물리적 공간을 같이 점유하는 것 이상이다. 우리 삶은 단 한 사람이어도 먹고, 자고, 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같이 살면서 닥치는 문제들은 같이 해결해나갈 수밖에 없다. 오늘공동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두 눈을 번쩍 뜨고, 두 귀를 활짝 열고 맞서 왔다. 덕분에 오늘공동체는 주거문제뿐 아니라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여러 문제들을 '클리어' 하고 그때그때 '미션 컴플리트' 하며 끊임없이 '레벨 업' 되고 있다.

그동안 출판된 오늘공동체 책자들

오공의 기록활동 ❶
오늘공동체가 오늘공동체를 기록하다

오늘공동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다양한 형태로 공동체 일상을 기록하고 있다. 먼저 오늘공동체 출판동아리가 주도해 주제를 정해 전체 식구들을 모아 엮은 책을 해마다 펴내고 있다. 또 오늘공동체 출범과 함께 공부 자료나 활동사항을 기록해 둔 다음카페, 공동체주택인 은공1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오고 간 자료를 담아 둔 네이버밴드들을 운영하고 있다. 오늘공동체 대안학교 청소년들의 교육과정도 여러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해외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이들이 수행한 공동체 내부 아르바이트 관련 영상은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출판팀에서는 오늘공동체를 소개하는 안내서를 만들 계획이다. 오늘공동체가 궁금해 찾아오는 이들과 함께 한 소개 라운딩만도 수백 차례. 공동체의 다양한 면모에 대해 각 구성원마다 자기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글을 모아 생생한 소개 자료를 만들 것이다.

'은공1호'의 가장 큰 특징은 공유공간을 극대화하고 사유공간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크게는 전체 활동공간, 생활방식과 성격이 맞는 구성원들끼리 부족 단위로 함께 쓰는 부족 생활공간들은 공유하고, 잠자고 씻는 일만 사유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도 식구들은 크게 불편함이 없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밤늦도록 좀처럼 자기 방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문을 잠그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공유공간에서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행복하기 때문이다.



강당, 식당, 카페, 옥상데크, 다락방 등 은공1호의 공유공간은 다채롭다. 밴드나 춤 연습실도 있다. 1층에는 카페와 손님들이 묵을 수 있는 게스트룸이, 2층과 3층은 4개 부족들이 나누어 쓰고 있다. 부족단위로 생활하기에 각각 공용부엌과 공용거실, 세탁실 등을 갖추고 있다. 층마다 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상담실, 작업실, 좌식 거실, 영화 및 게임공간 등 개성 넘치는 공유공간들이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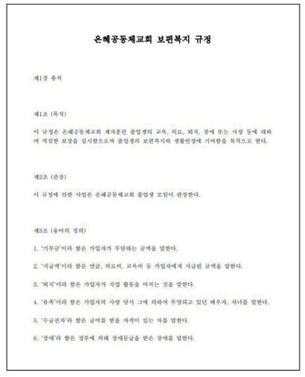
돌봄과 **육아문제**의 해결

오늘공동체는 공동체주택에 살기 전부터 구성원들이 임신과 출산, 양육 문제 앞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감각할 수밖에 없었다. 머리를 맞대며 돌봄과 육아, 교육문제에서 많은 해법을 찾았다. 예배당 한구석에 아이들 돌봄공간을 마련한 것, 공동체 식구들이 출산 전후로 산모도우미를 자청하며 각 가정으로 찾아간 것 등은 돌봄활동의 예이다.

'은공1호'가 지어진 뒤에는 아이들이 오늘공동체 안에 설치된 대안학교에서 영유아 시절부터 돌봄을 받는다. 공동체 전 구성원이 당번을 짜서 돌봄조를 자청하기도 하고, 대안학교 수업을 전담하는 교사도 있다. 일반학교든 대안학교든 구별 없이 유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전액 무상이고, 대학교는 반액을 공동체가 부담한다.

오늘공동체의 또 다른 핵심 복지 영역은 의료비이다. 전액 무상으로,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 그 비용을 공동체가 보전해준다.

복지비에는 실업급여와 노후연금도 포함되어 있고, 최근에는 동아리활동비 등 문화비를 지원해 주기도 한다. 실업급여의 경우 정부 고용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면 사회시스템에서 보전하고, 스스로 퇴사하거나 임금을 챙기기 어려울 때는 공동체에서 지원해준다.


은혜공동체교회(오늘공동체) 보편복지 규정

수학공부 끝나고 이모 삼촌들이 수현이 과자 쟁탈전에 들어갔다. 쉽게 먹을 것을 내주지 않는 수현이지만 이모들의 집중 공략에 항복!! 수현아~~ 나눠먹는거야~~

공동체 식구 윤미씨가 산모도우미의 도움을 받던 시절에 쓴 육아일기

지속가능한 **행복**, 두려움이 없는 **삶**

노후, 건강, 자녀교육… 언젠가부터 '두려움'과 짝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이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설렘이 아니라 걱정으로 둔갑시키는 장치는 도처에 널려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 안전하고 충만하면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좀 더 너그럽고 긍정적이고 용감해질 수 있다. 또 현재가 즐겁고 재미나면 이를 지속하고 싶은 의지도 커진다. 오늘공동체가 구성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안전한 삶이 지속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공동체를, 주거문제는 물론

도시민이 맞닥뜨리는 삶의 문제에 대한 필수적인 솔루션이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해법이 너무 이상적이라며 외면하려는 기존 질서 앞에 오늘공동체는 또렷하고 생생한 반증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의 해결

공동체 규모가 커지다 보니 이 안에서도 크고작은 일자리들이 생겨났다. 저렴한 가격을 책정해 식구들 밥을 해주거나, 대안학교 교사, 혹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 주는 일도 한다. 청소년들은 여행기금을 모으기 위해 이런저런 심부름을 하기도 한다.

여기서 더해 오늘공동체는 공동체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퓨전레스토랑 팝'과 동네 술집 '이자까야 빡', 낮시간 동안 어르신을 돌보는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데이케어센터에 납품할 도시락을 만드는 '오늘도시락', 도봉산 산행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곰아저씨네 행동식' 등이다. 각각 역할과 권한 차는 있지만 모두 구성원들이 손수 운영하는, 공유공간의 확장판인 셈이다.

오늘공동체 상준이 운영하는 퓨전식당 팝.

오늘공동체에서는 다 같이 집에서 밥 먹고, 파티하고, 온천하고, 공연하고, 축제를 벌인다. 퇴근하고 집으로 오면 '노는 일상'이 펼쳐진다.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오늘공동체 식구들의 취침시각은 자정을 넘기기 일쑤다.

공동체가 이 어려운 것을 해내다

공동체 안전망은 사회적 안전망보다 더 촘촘하고 긴밀하고 따뜻하다. 시스템과 보호받는 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예외나 변수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다. 시스템이 작동하는 동안 사람의 호흡과 나란히, 유기체처럼 연동하는 것이다. 거대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거시사회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다. 공동체가, 이 어려운 것을 해낸다! 오늘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박민수 대표의 한마디가 오래오래 가슴에 남는다.

"같이 살면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아니,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지난 20년 동안 공동체살이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공의 기록활동 ❷

오늘공동체가 기록하는 한강

오늘공동체 옥상에 오르면 앞으로는 수락산이, 뒤로는 도봉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집을 나서서 10분이 채 되지 않아 계곡이 흐른다. 선인봉, 만장봉, 자운봉까지 이르는 데 1시간이면 족하다. 일명 '숲세권'에 자리하면서 식구들은 자연에 깃들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하고 있다. 그동안 어떻게 빌딩숲 속에서 버티고 살았나 의아할 정도. 옥상에 마련된 온천탕에서 산자락에 걸리는 구름과 바람, 비와 눈을 만끽하는 삶, 잠시 걸어 나가면 금세 국립공원의 장엄한 풍경 속에 뛰어들 수 있는 삶을 누리면서 서울 구석구석에 아직 남아 있는 자연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졌다. 그런 '눈 뜨임'의 연장선에서 바라보고 연구하고 조사하게 된 한강. 공동체 식구 몇몇은 동아리 '한강팀'을 꾸려, 모래톱으로 가득 차 여름이면 강수욕을 즐기던 시절의 한강 풍경과 놀이 기록을 모으기 시작했다. 당시의 한강은 지금처럼 도로나 높은 아파트로 가로막히지 않았고, 누구든 언제든 뛰어들어 첨벙첨벙 물장구 치고 다이빙 하고 모래찜질을 할 수 있는 곳이었다. 한강팀은 한강의 문헌, 사진, 영상들을 수집해 결과를 발표하고 전시회를 열었다. 또 '그때처럼 한강에서 놀아 볼 수 있을까?'를 실험하기도 했다. 한강에서 놀고 쉬고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로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한 것이다. 그 시절의 한강은 지붕 없는 공동체 집과 다를 바 없었다.

한강팀은 아직 모래톱 흔적이 남아 있는 한강 지류에서 실제로 놀아 보고 '놀았던 추억이 서린 한강'이라는 주제로 영화를 제작했다.

2020
Archiving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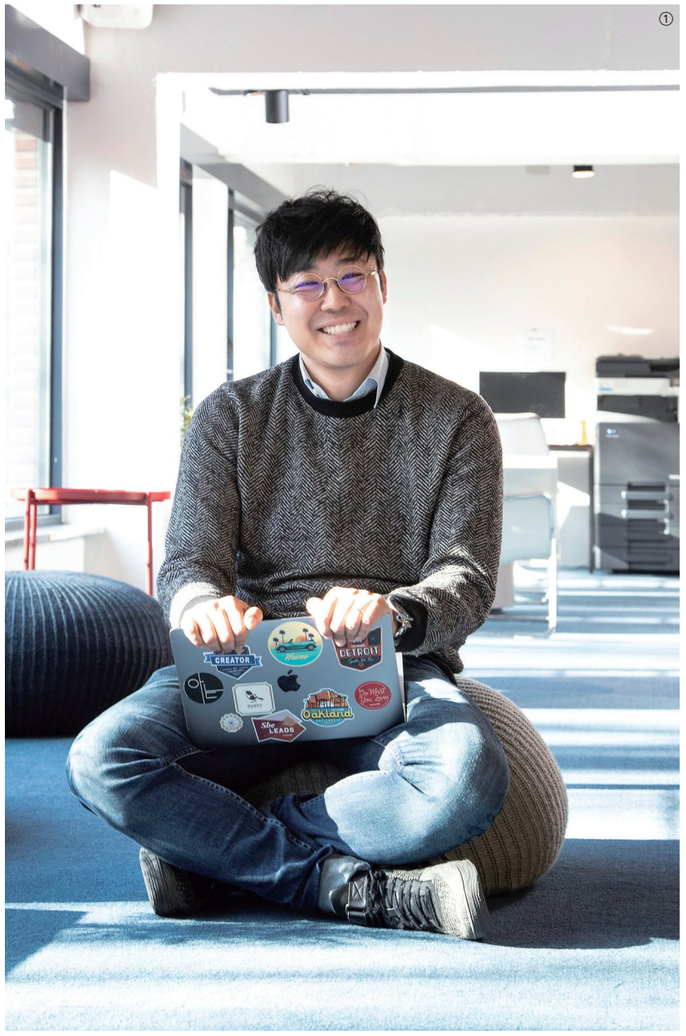
Part 3

기록, 경계를 넘다

‘기록’이 종적으로, 횡적으로 확장 중입니다. 전통적인 기록학이나 공공의 기록관리 영역이 깊어지고 있고,
수많은 분야에서 아카이브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대형 사업과 사건사고가 기록되는 한편으로 마을이나 음식이, 취미나 취향이
아카이브되기도 합니다. 기록물이나 기록활동에 기반을 둔 콘텐츠 비즈니스도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기록이 경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동네문화에서 발견하는 '서울스러움'의 멋·맛·색

도시문화기획가
'어반플레이' 홍주석 대표



'동네를 놀이터로 만들어 파는 곳'. 주위에서는 도시문화콘텐츠 전문 기업 '어반플레이'를 이렇게 표현한다. 도시(urban)와 놀이(play)를 조합한 사명에 꼭 어울리는 세평이다. 어반플레이가 구현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그만큼 소비자에게 '통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창의적으로 잘 노는 것'에 관심 많은 젊은 세대의 호응이 높다. 어반플레이의 성공요인을 얘기할 때 즐길 거리는 동네 밖에서 찾고 소비하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뒤집어 '콘텐츠 중심의 동네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개념을 각인시킨 것을 꼽는 이들이 많다. 지역 기반의 유무형 콘텐츠를 수집, 가공하는 과정을 통해 동네를 새롭게 경험하는 공간 프로젝트와 여러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을 선보인 결과이다.

2014년 공유숙박서비스 '에어비앤비'와 연남동 게스트하우스 10곳의 공용 공간을 빌려 전시와 공연, 플리마켓 등 문화 체험을 기획한 '숨은 연남 찾기'부터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를 소개하는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아는 동네', 동네의 소상공인이나 창작자들과 협업해 마을축제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한 '연희, 걷다' 등이 모두 어반플레이의 시선으로 도시 속 마을의 여러 문제를 연구하고 콘텐츠화한 사업들이다. 이렇게 노후화된 구도심, 젠트리피케이션, 슬럼화 등의 도시 문제와 동네 안에 숨어 있던 콘텐츠 혹은 소프트웨어를 채굴하고 연결해 주목받은 어반플레이는 2018년부터 '공간 만들기'로 활동 반경을 확장했다. 저마다 개성 넘치는 창작자들의 콘텐츠를 아울러 소개하는 복합문화공간 '연남장', 방앗간을 식음료 기반의 동네 경험 공간으로 재해석해 연남동 일대 창작자들의 편집 상점으로 변모시킨 '연남방앗간', 26년 동안 연희동의 사랑방이었던 정음전자를 동네 집수리 컨시어지 서비스 공간으로 멋지게 탈바꿈시킨 '정음철물', 쿠킹라운지와 스토리지, 공간 등을 창작자들과 공유하는 로컬 라운지 '연희회관', 동식물 분야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연희대공원', 콘텐츠 창작 및 교류 공간 '기록상점', 문화전시공간 '캐비넷클럽' 등이 그 사례들이다. 특별한 점은 이 공간들이 과거의 시간과 기억, 스타일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데도 젊은 세대에게 신선한 체험과 감성을 누리는 공간으로 평가받는 대목이다. 관심을 가지고 두텁게 바라보면 낡아서 방치되거나 폐기 직전에 있던 동네의 공간과 기억, 콘텐츠도 얼마든지 시간과 세대 간 단절까지 메우는 매력적인 콘텐츠와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어반플레이의 홍주석 대표를 만났다.

지워진 서울만의 콘텐츠를 다시 찾아 소프트웨어 도시로!

많은 콘텐츠기업이 있지만 도시와 지역, 문화라는 키워드를 골목상권, 동네 상점과 연계해 '지속가능성' 있는 비즈니스모델로 키워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지역에 밀착하지 못하거나 일회성 관심과 다른 접근을 구상한 과정이 궁금합니다.

도시문화의 기본은 다양성입니다. 그렇기에 개개인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비즈니스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면 지역의 경쟁력, 나아가 도시의 경쟁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공 중심의 지역 상생 모델을 넘어 민간 중심 비즈니스 모델로 경쟁력을 갖춰야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지역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에도 OS가 필요하다'는 어반플레이의 철학이 인상적입니다. 서울의 도시문화를 어떻게 규정하고, 또 이 시기 서울이라는 도시는 어떤 콘텐츠를 찾아내고 향유해야 할까요?

서울의 도시문화는 서울만의 시간적 켜 위에 쌓이는 다양성일 겁니다. 산업화, 글로벌화와 맞물려 급성장한 시기에 지워져버린 서울만의 콘텐츠와 스타일을 다시 찾아내는 작업이 지금 서울에서 향유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옛 것을 '레트로'라는 유행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 중심으로 그동안 소중히 여기지 않던 '서울스러움'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적 움직임과 공감대가 생기고 있는 거죠. '도시에도 OS가 필요하다'라는 어반플레이의 슬로건도 이러한 작지만 소중한 콘텐츠들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도시'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① '어반플레이' 홍주석 대표
② 캐비넷클럽
③④ 연남방앗간
⑤ 연남장

언젠가 '새벽에 늘 같은 자리에서 빵 냄새를 풍기는 빵집이 동네 주민에게 주는 안정감'의 가치를 얘기하셨습니다. 서울의 문제에는 콘텐츠 부족만이 아니라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부유하는 소비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도시가 충전해야 할 부분과 함께 어반플레이가 포착한 '서울의 동네가 가진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가치를 높게 여기지 않았던 서울의 동네에는 다양성이라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만의 가장 창의적인 콘텐츠가 시작되는 곳이고, 대기업 자본의 힘에 눌려 피지 못했던 한국인의 창의성이 가장 잘 발현되는 곳이 서울의 동네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의 창의성과 서울의 동네가 가진 역사적, 문화적 자원들이 융합되면서 서울만의 아주 독특한 매력들이 발현될 것입니다.

⑤

철물점, 방앗간…
동네 커뮤니티 기능을 살리는 공간들

연남방앗간, 연남장, 정음철물 등 지역의 창작자와 콘텐츠를 경험하는 동시에 동네의 지속가능성까지 이룰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간 서비스와 관련해 재해석하거나 새롭게 개척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옛 도심에 상권이 생기고 활성화되면서 원주민이 급속히 밀려나는 현상) 이슈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공간이 철물점, 방앗간, 목욕탕 같은 곳이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이 공간들은 단순 상업 공간이 아니라, 동네 커뮤니티 기능을 암묵적으로 해온 곳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간들의 '커뮤니티성'을 문화복합공간의 성격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공간 비즈니스로 정의해보고자 했습니다. 연남방앗간을 시작으로 연남장, 정음철물, 캐비넷클럽, 기록상점 등 여러 취향을 녹인 커뮤니티 중심 공간들을 만들어왔는데, 모든 공간이 콘텐츠 중심으로 여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⑦

어반플레이의 공간 서비스는 새로운 도시재생프로젝트 같기도 합니다.

우리처럼 민간에서 지역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공간과 접목하는 실험이 문화로 형성된다면 현재 공공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 비용이 장기적으로 줄어들고, 성장 가능한 지역 생태계가 풍성해지는 등의 사회적 가치가 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레트로는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콘텐츠이자 무형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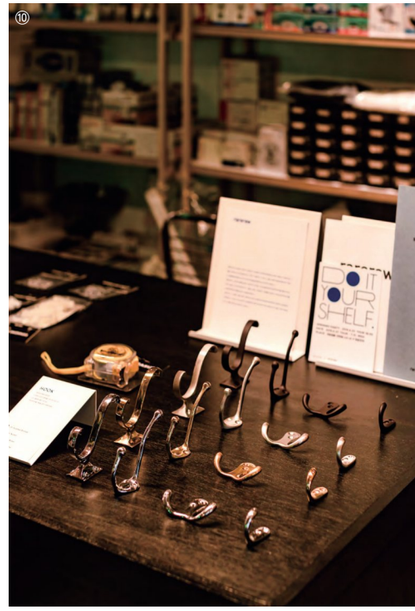
어반플레이의 공간에서는 '레트로'의 재탄생을 접하게 됩니다. 글자 폰트부터 가구와 샹들리에, 내부 장식을 과감하게 활용하고, 방앗간이나 철물점 등 과거의 것으로 여겨지면서 밀려나던 공간에 멋과 색을 입혔습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기억을 소환해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면서도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레트로를 하나의 디자인적 트렌드가 아니라 한국만의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콘텐츠이자 무형자산으로 바라봅니다. 일반적으로 레트로한 감성을 소비하는 현상으로 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국만의 스타일에 대한 호감을 기반으로 스토리를 경험하려는 욕구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레트로, 혹은 좀 더 시의성 있는 표현으로는 '뉴트로'라고 하는 트렌드를 젊은이들이 더 즐기는 것 같습니다.

⑧

⑨



⑩

⑥⑦ 연희회관
⑧⑨⑩ 정음철물
⑪ 기록상점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형의 자산에 자신의 콘텐츠를 입히자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가치가 발현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옛것의 본질을 지키면서 현대적인 감각이 입혀지다 보니 거기에 문화와 예술성을 느끼고 소비하는 거죠.

낯익은 것을 낯설게 바라보기

어반플레이는 내부에 아카이브랩을 두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가요?

어반플레이가 하는 프로젝트의 시작점은 대부분 도시와 지역에 대한 관찰과 기록이에요. 그 중심에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고요. 2013년 창업 초기부터 단순 리서치를 넘어 아카이브를 회사 비즈니스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아는 동네' 매거진 역시 일상적인 것을 아카이브해서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으로, 낯익은 것을 낯설게 바라보는 자세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네의 기억과 기록이 녹아 있는 물건과 공간 등을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활동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기록 자체를 곧바로 비즈니스화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의미 있는 기록이 시간이 쌓여 가치를 갖게 되면 그것을 활용해 소비자의 공감을 얻는 콘텐츠를 만들고 비즈니스화를 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봅니다. 디지털 서비스, 전시나 강연, 교육 등의 문화 서비스를 융합해 기록 콘텐츠를 잘 가공한다면 훨씬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할 거예요. 이를 공공 차원의 일로 한정 짓지 말고 공공도 능동적으로 아카이브 작업을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민간의 움직임에 '임팩트'를 발견하고 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하면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기만의 콘텐츠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동네 많아지길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제야 조금씩 기록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에 눈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 아쉬움과 기대가 있다면?

기록과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 위주로 진행하다보니 아직은 학술적인 부분과 주민활동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역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좀 더 색다른 활동과 사업으로 확장되길 기대합니다.

어반플레이의 향후 2~3년 '서울 구상'이 궁금합니다.

우리는 자기만의 콘텐츠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동네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이든 지방이든 무형적 가치를 많이 품고 있는 동네에 주목하게 되고요. 여러 아카이브 작업을 하면서 그런 동네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동네를 발견하고, 그 동네가 더 풍부한 콘텐츠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실험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⑪

기록을 꿰고 엮어 특별한 감동을 빚다

① 〈서울은 소설의 주인공이다〉 전시장 전경
②⑤ 소설 〈나목〉 속 전쟁 상황을 구현한 영상, 당시의 사진 기록과 물품으로 꾸며진 전시장
③ 전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류위남 학예연구사(오른쪽)
④ 4•19 혁명 당시 발표된 시들의 시구를 시각화한 전시장 모습
⑥ 1953년 당시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어 있는 PX와 그 주변 즐비해 있던 미제 물품 가게를 담은 사진 기록을 활용한 전시장

큐레이터
서울역사박물관 류위남 학예연구사

거기 있으되 쓰임이 없는 것은 외면받아 가라앉기 십상이다. 존재를 증명해야 더 빛나고 커지는 것이라면 안내자를 두어서라도 효용을 높여야 한다. 서고 안, 서랍 안 기록도 마찬가지다. 봉인된 처지에서 벗어나 활용되어야 비로소 눈길을 받고 나눌 수 있다. 박물관, 역사관처럼 가치 있는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억기록기관이 눈 밝은 이를 두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동체가 가치 있는 기록을 누릴 수 있도록 매개하는 좋은 길잡이 중에 전시큐레이터가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류위남 학예연구사와 기록을 꿰어 감동을 빚어내는 전시큐레이터의 세계를 알아보았다. 특별히 류 학예연구사를 '찜'한 이유는 그가 서울과 문학 작품을 연결해 서울역사박물관의 2020년 전시 중 가장 주목받은 〈서울은 소설의 주인공이다〉를 기획했기 때문이다.

친절한 기록 안내자

유물을 포함해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일은 상당 부분 그 가치를 시민과 연구자들에게 친절하고 깊이 있게 나르고 공유하기 위한 전시기획의 전 단계인 경우가 많다. 〈서울은 소설의 주인공이다〉도 바탕에는 2018년 서울대 방민호 교수가 서울과 소설가를 연계해 조사한 연구보고서가 있다.

"애초 연구는 1950~60년대 문학 작품을 통해 서울을 들여다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후 한국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이 되는 해인 2020년 전시를 구상하다 기존 연구 결과물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주제를 발견했습니다. 사료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기존 전시와 달리 사람, 즉 소설가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에 집중하면 풍부한 감정들이 녹아 있을 것이기에 색다른 접근이 되지 않을까 했어요."

전시큐레이터는 주제가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관련 기록을 찾고, 그 기록을 다시 씨줄날줄로 엮어나간다.

"전시를 위해서는 모아놓은 자료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 시대나 상황을 겪은 사람의 기록이 사실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훨씬 울림이 크거든요. 그런 기록을 만나기 위해 공부하고 여러 기관의 문을 두드리고 검토해서 다시 선별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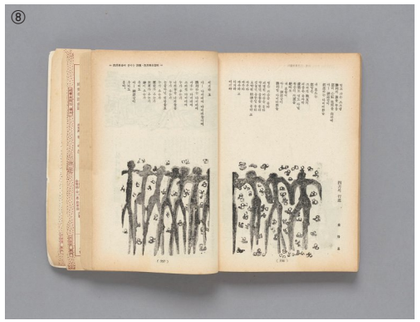
시각자료, 구체적인 시대별 박물 확보도 주요 활동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한국전쟁 기록을 좇아간 과정은 큐레이터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방대한 한국전쟁 관련 자료 중 전쟁 상황을 잘 보여주는 작품을 선정한 다음은 그 안에 세밀하게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 대목 살피기이다. 이어지는 단계는 보완 자료 확보하기로, 신문기사나 당대의 간행물이 될 수도 있고 구체적인 박물일 수도 있다. 작품 속에 전철 이야기가 등장하면 서울에 처음으로 전철이 개통하는 날의 소식을 전하는 신문기사와 당시 전철표나 안내문 등을 같이 확보하는 식이다.

이번 전시에서 특히 주목받은 박완서 작가의 소설 〈나목〉 코너는 작품 속 한국전쟁 묘사 부분과 당시 〈여성동아〉의 별책으로 발간된 초판본은 물론 백화점에서 외국인에게 팔던 스카프나 인형 같은 공예품, 그리고 PX(군대 내 매점)를 이용하는 미군의 사진과 그들이 사용하던 대용화폐와 라이터, 시레이션(전투음식) 등이 더해져 소설 속 상황을 입체적으로 담아냈다. 물론 이 기록물들이 모두 박물관 소장품은 아니기에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는 것도 큐레이터의 업무이다.

"문학 작품 전시라고 글만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전시가 결정되면 당시 상황을 잘 담고 있는 시각자료부터 확보하는 게 순서예요. 이를 위해 국내 대표 기억기록기관인 국가기록원부터 시대에 따라 우리보다 더 의미 있는 기록을 보유하고

⑦



⑧

있는 미국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은 기본, 관련 분야 박물관 등을 훑어 대여도 받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문학 관련 귀한 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한국애서가클럽과 삼성출판박물관, 개별 문학관의 협조를 많이 받았어요. 꽤 관심을 받은 기록물이었던 도강증, 인민군 점령기간 동안 뿌려진 선전물 등은 모두 애서가클럽이 소장한 기록물입니다."

욕심 나지만 여건이 맞지 않아 아쉽게 중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 조지훈 시인의 '종로에서'라는 육필원고가 출품 예정이었으나 소장자의 건강 악화로 전시에 소개하지 못한 일, 근현대 문학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기대했던 황석영 작가를 약속을 잡아놓고도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하지 못한 일처럼 말이다.

완성도 높은 종합예술, 전시를 위한 큐레이터의 덕목

영상의 시대,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일 경우 시각화는 기록물 확보에만 머물지 않는다. 갈수록 영상예술의 비중이 높아지는 변화에 맞춰 매력적인 영상 콘텐츠로 발전시킬 기록을 발견하는 일도 전시큐레이터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한국전쟁과 4·19혁명은 직접적인 영상기록을 이미 접한 분들이 많아요. 자연스레 어떻게 하면 다른 차원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을까, 더욱이 엄청난 희생이 따른 전쟁과 혁명의 시대에 대한 위로까지 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러다 1950~60년대 지식인들의 담론장이나 다름없던 〈사상계〉에 실린 '무명기'와 '4월의 행진' 삽화, 뜨거웠던 구호 등을 콘티로 구성해 영상 작가들에게 제안했는데, 다행히 영상 작가 분들이 그 느낌과 메시지를 잘 살려주셨고 반응도 엄청 좋았어요.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과 협업도 전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에요."

〈서울은 소설의 주인공이다〉 전시의 경우 어느 나라보다 극심했던 좌우 이념 대립이 그대로 녹아 있는 기록물을 예민하게 조정하는 일, 시의성을 잘 살리고 기획 의도에 맞는 흐름을 구현하는 일 등이 해당되는데, 매 전시의 주제와 성격에 따라 점검해야 할 항목을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전시큐레이터는 영락없이 종합예술 기획자이다.

"전시라는 분야가 종합예술이니까요. 이 때문에 전시큐레이터는 평소 기록물을 꾸준히 보고 공부해야 해요. 디자인이나 영상은 그 자체로 훌륭한 콘텐츠이기도 하고, 문서기록만으로 부족할 때가 많으니 이에 대한 안목도 필요하고요. 보고 경험해야 안목이 높아지니까 다른 전시를 많이 다니며 참조도 하고, 좋은 기록 소장자와 소장기관을 파악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일도 큐레이터의 몫입니다."

맛있는 전시? 기획자의 안내 따르세요

〈서울은 소설의 주인공이다〉에 이어 류 학예연구사가 추진한 전시는 이름부터 신선한 〈한양을 지켜라–삼군영 소속 한 군인 집안의 고군분투기〉이다. 훈련도감과 어영청, 금위영이 속한 삼군영은 조선후기 도성 방어체제 정비 과정에서 형성된 중앙 군영으로, 소속 군인들은 한양에 상주하며 왕을 호위하는 일부터 궁궐 수비, 도성 방어, 치안 유지 등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 전시는 그중에서도 경상도 영산(현 창녕군 영상면 일대) 지역의 양반이던 이지건과 그의 가족들이 남긴 기록물과 이야기를 통해 당시 한양 상황과 군인들의 삶을 전한다. 류 학예연구사는 두 전시 모두 우리 전시기획의 성장을 보여주는 사례라 덧붙였다.

"서울의 기록물을 열심히 수집하고 연구한 시간이 쌓인 덕분에 이제 '미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가 가능해졌습니다. 문학 작품을 통해 서울을 조망하기 전부터 신림동 고시촌과 명동, 신촌, 창신동처럼 서울을 상징하는 공간이나 고가도로, 전차 등 아주 구체적인 주제의 전시가 지속돼 왔거든요. 성균관이나 삼군영 소속 군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는 동시에 시민들이 그만큼 전시문화를 적극적으로 향유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동반성장인 거죠."

마지막으로 류 학예연구사에게 계획을 물었다. 답에는 고맙게도 '전시를 최대한 즐기는 방법'까지 들어 있었다.

"역사의 한 부분이자 좋은 자료인 기록은 어떻게 드러내고 엮는가에 따라 본연의 가치도 영향을 받아요. 이를 잘 알기에 끊임없이 공부하고 상상하는 큐레이터가 되도록 노력해야죠. 아, 전시를 즐기는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무래도 전시에 대해 가장 많이 숙고하고 아는 이가 큐레이터일 거예요. 기록물 선별도, 동선에도, 기획자의 세심한 의도가 반영돼 있어요. 특히 첫 전시는 그 안내를 잘 따라가면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⑫

⑨

⑩

⑪

⑦
불타버린 보신각종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는 임인식 선생의 사진 작품 전시 모습

⑧
사월의 행진. 김환기 作, 〈사상계〉 1960년 민중의 승리 기념호 삽화

⑨
〈사상계〉 1961년 8, 9, 11월호. 개인 소장

⑩
〈사상계〉에 게재된 '무명기' 1화. 오상원 作, 1961년 8월. 개인 소장

⑪
〈나목〉. 박완서 作, 1976년, 개인 소장

⑫
미 공군장교가 미군 PX(군대 내 매점)에서 기념품을 구입하는 모습. 1952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떠난 자의 뒷모습에 대한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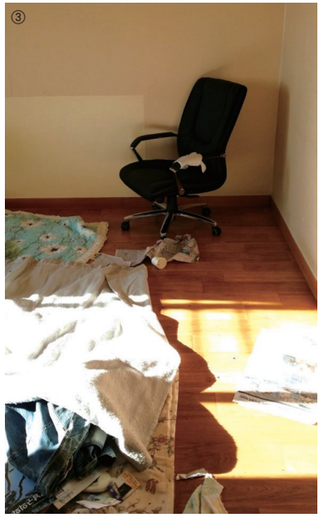
①

침대 위엔 몸의 크기를 과장해서 알려주는 검붉은 얼룩이 말라붙어 있습니다. 베개엔 살아 있을 때 당신의 뒤통수를 이루었을 피부가 반백의 머리카락과 함께 말라붙어 있습니다. 천장과 벽엔 비대해진 파리들이 달라붙은 채 소리 없이 손바닥을 비비고 있겠죠. 이불을 들추면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따뜻한 안식처를 찾아낸 구더기 떼가 뒤엉켜 서로 몸을 들비빕니다.

–〈죽은 자의 집 청소〉 중에서

②

특수청소업체 하드웍스 **김완 대표**



③

①②
김완 대표와 큰 주목을 받은 책 〈죽은 자의 집 청소〉

③
특수청소가 이뤄진 현장 모습

김완 하드웍스 대표는 자신을 '스케빈저'라고 말했다. 첫 인상만큼이나 강렬한 언어로 그는 자신의 업을 규정했다. 스케빈저(scavenger), 우리말로 청소동물이다. 다른 동물을 사냥하지 않고 서식지에 있는 죽은 동물과 식물을 먹어치운다. 대머리독수리, 송장벌레, 검정파리, 말벌, 꼽등이, 너구리 등이 대표적이다.

떠난 뒤에 남은 것

스케빈저는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죽은 동물을 소비함으로써 분해 과정을 완료하는 것이다. 스케빈저가 없다면 자연은 결코 순환할 수 없다.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는, 지속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인간사회에도 '스케빈저'는 도처에 있다. 세상에는 쓰레기와 쓰레기 아닌 것, 오직 두 종류의 물성(物性)만이 존재한다. 이 중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주 많다. 어디에선가, 쓸모없다고 판정된 것을 치우는 그들을 우리는 '청소부'라 부른다.

"저는 누군가 쉽사리 볼 수도, 치울 수도 없는 곳을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독사 현장이라든지 자살 또는 범죄 현장. 극단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집, 그리고 동물 사체와 오물이 가득한 곳, 그런 곳을 주로 청소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특수청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 그는 그냥 '청소부'가 아니다. 죽은 자의 집을 청소하는 '특수한 청소부'이다. 지워지지 않는 지독한 냄새와 섣불리 손대기 어려운 흔적을 남기고 떠난 이들의 뒤처리를 하는 것이다.

"특수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남다른 일, 특별하고 어려운 행위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다를 뿐 일 자체가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식탁 치우기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식탁 위에 차렸던 것을 주방으로 옮기듯 그저 집에 있는 것을 끌어 모아 집 바깥으로 내보내는 일입니다."

그는 심상하게 말하지만 사실 일반적인 정서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심상치 않은 일이다.

죽음의 민낯들

우리는 대부분 살아 있는 자만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간다. 죽음은 아득히 먼 미래의 일이며 실감할 수 없는 비현실의 세계일뿐이다. 죽음은 현실에서 격리되었거나 거의 완벽하게 은폐돼 있다. 그래서 외면하고 싶은 그런 장소에서 그를 부른다.

"홀로 죽음을 맞아 나중에 발견된 분들 중에는 고령자, 우리가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50대 남성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뒤를 40대가 잇는 것 같고요. 제가 현장에서 접한 고독사 사례는 몇 년 전 있었던 서울시복지재단의 연구결과, 통계와 일치합니다. 일본은 70~80대 남성 고독사가 많은데 비해 우리는 40~50대 남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요즘은 20~30대도 많고…. 고독사는 연령과 무관하게 많은 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김완 대표는 서울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랐고 대학에서 시를 전공했다. 출판과 트렌드 산업 분야에서 일하며 오랫동안 '고스트라이터(유령작가)'로 살았다. 전업작가로 살고자 삼십대 후반에 돌연 산골생활을 선택하기도 했다. 취재와 집필을 위해 몇 년 동안 일본에 머물기도 했는데,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후 귀국해 '하드웍스'를 설립했다.

처음엔 일반청소로 시작했는데 하나둘 요청을 받아들이다가 특수청소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의 명함엔 'Hard Works for Humanity'라고 적혀 있다.

"저는 체질적으로 청소를 좋아합니다.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세상의 수많은 일 가운데 청소를 인생의 직업으로 받아들인 가장 큰 동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악취 가득한 실내를 마침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원래의 공간으로 돌려놓았을 때, 살림과 쓰레기로 발 디딜 틈 없는 공간을 완전히 비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집으로 만들었을 때 저는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느낍니다."

지난 10여 년간 그는 궂고 험한 현장을 찾아다녔고 고독사의 현실, 민낯을 마주했다. 노인뿐만 아니라 중년, 청년에게까지 엄습하는 쓸쓸한 죽음. 그 차가운 현실은 세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 생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어떻게든 살아보려 삶의 절벽 끝에서 아등바등 분투한 흔적은 현장 곳곳에 남아 있다.

끝으로 자신을 몰아세운 현장의 기록과 기억

피와 오물을 닦아내고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고 한다. 2020년 5월, 그는 그동안 접했던 현장의 기록과 기억을 묶어 〈죽은 자의 집 청소〉(김영사)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내놓았다. 자신처럼 누군가도 삶을 돌아보고, 살아갈 용기를 얻기 바라며.

"죽은 사람의 방을 치우다보면 의외의 기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붙잡아 줬으면 하는 간절함, 누군가에 대한 원망, 남은 이들에 대한 작별인사가 담긴 짧은 메시지들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죽음에 이를 정도로 이토록 힘들게 몰아 세웠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어쩔 수 없이 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패했던 아픈 기억들, 상처를 줬던 날카로운 말들, 부끄러운 일들이 떠오르고, 저를 옭아맸던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에 도달합니다. 현재의 삶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순간의 일에 집중하려 분투하고요."

김 대표는 어쩌면 쓰레기를 치우면서 어지러운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일까. 스스로 묻는다. '부단한 하루하루의 인생은 결국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것인가.' 해답도 없고 답해줄 자도 없다. 그는 영원히 풀 길 없는 화두를 붙잡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제가 하는 일이 힘들다고 말하기도, 힘들지 않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힘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힘들다고만 말하기엔 뭔가 꺼림칙한, 적잖이 즐거운 면도 있습니다. 세상엔 즐거움으로만 가득한 노동도 없고, 오직 괴로움으로만 이루어진 직업도 없잖아요. 나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즐거운 점 혹은 이점이 있기에 꽤 많은 이가 특수청소를 직업으로 선택하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④

수도꼭지의 운명처럼

그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직업적인 아이러니 속에서 자신이 남긴 기록이 결국 우리 삶을 더 가치 있고 굳세게 만드는 데 참고할 만한 기전(機轉)이 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면서 누군가 인생의 길을 걷다 우연히 주운 쪽지처럼 작은 '설렘'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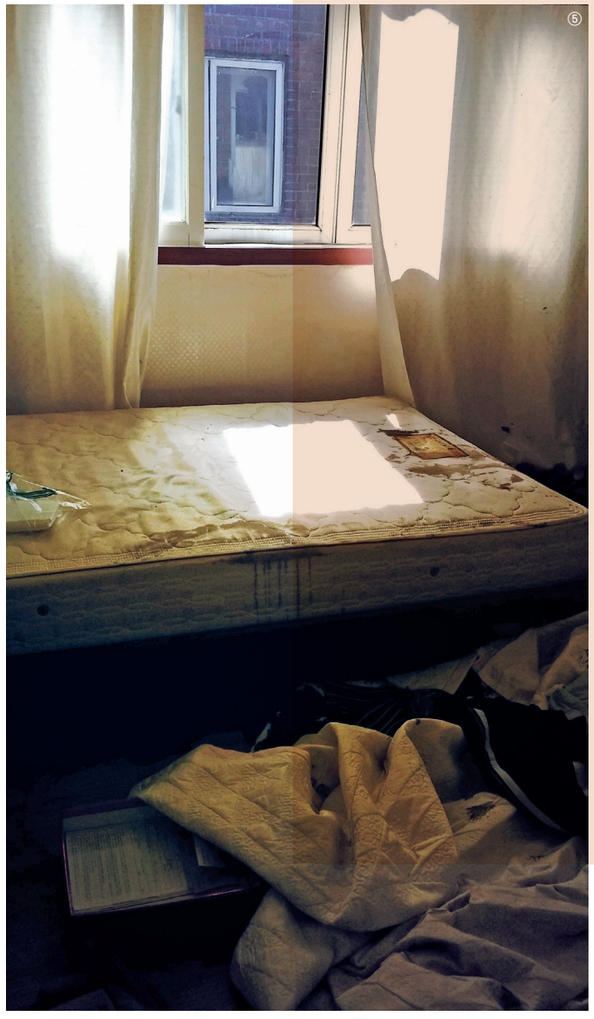
"제가 이 업을 하면서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가 죽은 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죽음의 형상, 죽음이 남긴 자리를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죽음에 대한 관념 자체가 바뀐 것 같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현장을 필름처럼 선명하게 기억한다. 정작 자신이 만난 것은 고인이 아니라 고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며, 그 흩어진 조각을 통해 고인의 삶을 유추하며 재구성한 것이라는 김 대표. 책을 묶기는 했어도 그는 작가로 불리는 것이 몹시 불편하다고 말한다. 생의 마지막까지 '스케빈저'로 살아갈 것이라 다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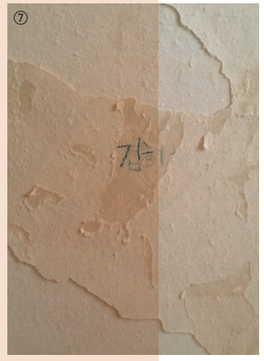
"수도꼭지의 아이러니는 누군가가 씻는데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졌지만 결코 스스로 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집이라면 그가 누구든 그곳이 어디든 가서 군말 없이 치우는 것이 제 일입니다만 정작 제가 죽었을 때 스스로 그 자리를 치울 도리가 없다는 것이 수도꼭지를 닮았습니다. 언젠가 죽은 이가 숨을 거두고 한참 뒤에 발견된 화장실에서 수도꼭지에 낀 얼룩을 닦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존재는 서로 기대어 살아간다. 우리는 누구에게 뜨거운 '스케빈저'인가.

⑥


⑤

죽은 사람의 방을 치우다보면 의외의 기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붙잡아 줬으면 하는 간절함, 누군가에 대한 원망, 남은 이들에 대한 작별인사가 담긴 짧은 메시지들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죽음에 이를 정도로 이토록 힘들게 몰아 세웠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어쩔 수 없이 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패했던 아픈 기억들, 상처를 줬던 날카로운 말들, 부끄러운 일들이 떠오르고, 저를 옭아맸던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에 도달합니다. 현재의 삶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순간의 일에 집중하려 분투하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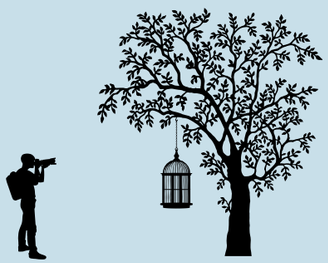

⑦

⑧

④⑤⑥⑦⑧
김완 대표와 특수청소가 이뤄진 현장 모습

사라지는, 남겨지는, 기억하는

서울, 책, 그리고 걷기



역사도시 서울은 길도 다양하다. 쭉쭉 뻗은 10차선, 16차선 도로나 인파 그득한 왁자지껄 쇼핑거리가 서울을 상징하는 것 같지만 사실 시민의 곁을 지키고 있는 길은 그렇게 들떠 있거나 차갑지 않다.

서울 외곽과 중앙 도심을 감싸고 있는 외사산, 내사산 둘레길부터 경복궁과 덕수궁 옆 돌담길, 익선동이나 북촌의 고즈넉한 골목길, 한강시민공원의 강바람길, 구불구불 동네 공원길에 이르기까지, 가만한 표정으로 있던 길은 기꺼이 동행을 허락한다.

그래서일까. 길 위에서 서울의 시간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는 책이 유난히 많다. 제목과 부제목을 합해 '서울을 걷다'라는 이름을 단 책만도 10여 권에 이른다. 서정렬은 "걷는다는 것은 걷는 곳의 장소를 경험한다는 것이고 장소의 경험은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정체성의 체험"이라 하였다. 걸으며 발견한 서울의 기억되는, 남겨지는 그리고 사라지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책들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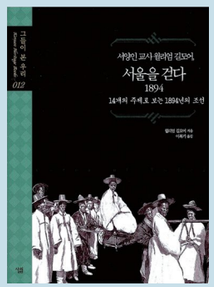
책들을 따라가다 보면 슬쩍 마음 깊은 곳에서 동하는 무언가를 느낀 이들은 서울을 걸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서울 걷기' 책이 등장할 것이다. 그가 당신일 수도 있으니 길 위에서 설 때는 '걷기노트'를 장만해보는 건 어떨까.

오래 전 이방인이 걸었던 서울

'서울을 걷다'라는 이름이 붙은 책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서울을 이야기한 이는 의외로 이방인들이다. 첫 주인공은 서양인으로 한국 최초 근대식 공립교육기관인 육영공원에서 교사생활을 한 윌리엄 길모어로, 그가 쓴 〈서양인 교사 윌리엄 길모어, 서울을 걷다 1894〉는 행정, 관습, 언어, 결혼제도 등 당시 한국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14개 주제로 분류해 정리했다.

〈1901년 서울을 걷다〉는 미국 여행가이자 사진가인 버튼 홈스가 1901년 제물포를 거쳐 서울로 들어오는 과정을 시작으로 조선에서 만난 사람들, 우연한 기회에 초대받은 궁에서 황실 인사들과의 만남, 서울에서 마주친 낯선 광경들을 글과 사진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편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기도 한 가와무라 미나토가 쓴 〈한양 경성 서울을 걷다〉도 있으나 절판됐다.

윌리엄 길모어. 2009.
〈서양인 교사 윌리엄 길모어, 서울을 걷다〉
살림



버튼 홈스. 2012.
〈1901년 서울을 걷다〉
푸른길

옛 지도가 안내하는 서울

조선시대 한양으로 불리던 서울은 도성으로 둘러쌓인 성곽도시였음에도 오늘날 서울 시내를 걸으면서 성곽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도시를 둘러싼 성곽은 밤이 되어야 비로소 산등성이를 따라 밝혀진 불빛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 불빛 안의 공간, 한양을 둘러싼 성곽의 안쪽이 '진짜' 서울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역사지리학자 이현군 선생은 '옛 지도를 보면서 현대 도시를 걷고, 걸으면서 느끼고, 느끼면서 상상하는 답사'를 통해 서울의 진면목을 전하고 있는데, 그의 책 〈옛 지도를 들고 서울을 걷다〉는 서울의 옛 지도 10여점과 등고선 지도, 현재 서울의 사진 등을 보여주며 이어짐과 끊어짐을 반복하는 성곽길, 도성 안과 밖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서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문헌학자 김시덕의 서울걷기'라는 부제를 단 〈서울 선언〉은 서울을 규정하는 방법도, 장소도 다르다. 아파트 단지와 상가, 골목, 공단과 종교 시설, 주택가와 빈민가, 유흥가와 집창촌, 서울 안의 농촌 지대 등 실제로 서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찾은 그는 "서울이 어떤 도시인지 파악하려면 서울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를 걸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현군. 2009.
〈옛 지도를 들고 서울을 걷다〉
청어람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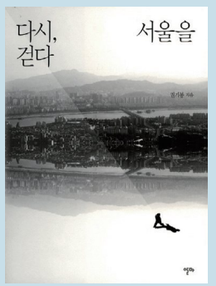
김시덕. 2018.
〈서울 선언〉
열린책들

책으로 서울을 가장 많이 걸은 권기봉 작가

책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을 가장 많이 걸은 이는 단연 권기봉 작가일 것이다. 서울이라는 공간에 담긴 역사적 사건과 의미, 문화성, 장소가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일상, 문화, 의미, 장소 네 가지 코드로 나누어 전하는 〈서울을 거닐며 사라져가는 역사를 만나다〉를 필두로 〈다시, 서울을 걷다〉 〈권기봉의 도시산책-서울의 일상, 그리고 역사를 걷다〉 등 서울의 일상과 지근거리에 있는 공간들을 작가의 걸음 속도로 안내하고 있다.

'단언컨대 역사를 그린 것 중 가장 아름답고 파격적일 것'이라 소개하는 〈오래된 서울을 그리다〉는 동갑내기 글쟁이 정명섭 작가와 그림쟁이 김효찬 작가가 1년여 동안 서울을 함께 걸으며 기록한 서울 답사기이다. 먹의 농담으로 표현된 서울은 깊다가도 호쾌하다. 종묘와 서순라길, 덕수궁과 정동, 서촌과 벽수산장, 백사실 계곡과 부암동 등 서울의 역사를 탐방할 수 있는 8개 코스를 풍부한 감정을 담고 있는 글과 그림, 사진 등으로 소개하고 있다.

권기봉. 2012.
〈다시, 서울을 걷다〉
알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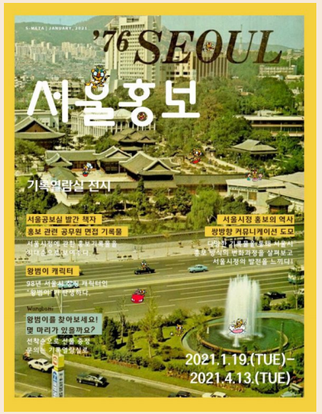


정명섭·김효찬. 2019.
〈오래된 서울을 그리다〉
초록비책공방

권기봉. 2015.
〈권기봉의 도시산책 -서울의 일상, 그리고 역사를 걷다〉
알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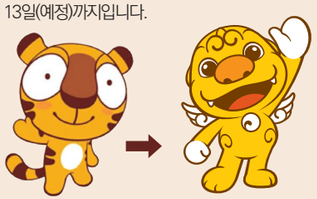
ARCHIVING NEWS | 2021년 서울기록원은…

서울기록원은 서울의 공공기록과 시민기록을 모으고 전문적으로 관리해 시민과 공유하는 대표 문화기관이자 기억기록기관입니다.
서울기록원은 시민이 기록을 체계적이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의 역사와 상징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기록 전시를 통해 시민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기록열람실은 관심 있는 누구나에게 열려 있고, 시민교육과 견학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의 주요 정책은 물론 사건, 장소, 사람에 관한 체계적인 기록 목록을 만들고, 기록의 이해를 돕는 가이드 등 설명 도구를 제공합니다. 모두 직접 방문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아카이브(SDA)'를 통해서는 현재 개최 중인 전시는 물론 지난 전시 소식까지 접할 수 있습니다. 서울기록원은 앞으로도 꾸준히 준비해온 결과를 시민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우리의 아카이브 역사는 짧습니다. 행정기관보다는 문화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서울기록원은 시민 곁에서 시공간을 넘나들며 서울의 기억과 기록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기록열람실 작은 전시
지금의 '해치'가 그때는 '왕범이'였다고?

현재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 아이콘 '해치'를 모르는 시민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해치는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여 안다고 하는 상상 속 동물'인데, 여러 재앙을 물리치는 수호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치는 2008년 5월 13일 최종 선정된 뒤 이듬해 3월 25일 서울시 상징 캐릭터로 선포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서울의 아이콘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1998년 탄생한 '왕범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비운의 캐릭터'인 셈인데요, 이처럼 서울의 홍보와 관련된 작은 전시가 열립니다. 서울기록원 소장 기록물 중 과거 서울시 상징 캐릭터였던 왕범이의 탄생 과정을 비롯해 여러 이야기가 담긴 기록물,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발행된 서울시정 홍보 책자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홍보' 전시 기간은 1월 19일부터 4월 13일(예정)까지입니다.



1998년 탄생한 '왕범이' 2008년 탄생한 '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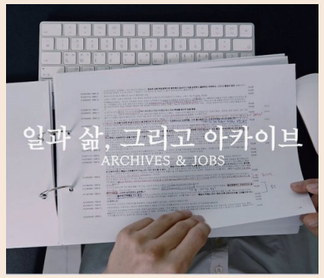
주제 서울 홍보
기간 2021년 1월 19일 ~ 2021년 4월 13일(예정)
장소 서울기록원 2층 기록열람실

상설전시
한강에서 건져 올린 서울의 기록

서울기록원이 시민 여러분께 새로운 '한강'을 선물합니다. 2021년 6월 22일부터 2023년 6월(예정)까지 2층 상설전시실에서 열릴 〈한강에서 건져 올린 서울의 기록〉 전시를 통해서입니다. 이번 전시는 한강 개발의 역사를 비롯해 한강의 다리와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 한강과 서울 시민의 삶 등을 담고 있는 시정 기록과 관련 자료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중심을 관통하며 오늘도 묵묵히 흐르고 있는 한강은 희망과 위로를 건네는 안식처이자 고통과 슬픔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삶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한강'을 이번에는 서울기록원에서 만나 보세요.

주제 한강에서 건져 올린 서울의 기록
기간 2021년 6월 ~ 2023년 6월(예정)
장소 서울기록원 2층 상설전시실

서울기록원 시민교육프로그램 (온라인)



2021년에도 온라인 시민교육프로그램이 계속됩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기록하는 열정적인 아마추어를 만나 인터뷰하는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과 기록을 매개로 프로페셔널한 직업 세계를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리즈 〈Archives&Jobs〉입니다.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봄과 여름에, 에디터와 포토그래퍼의 직업 세계를 기획 중인 〈Archives&Jobs〉는 가을과 겨울에 시민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브랜드북 〈아카이브 서울〉 vol.3 5월 발간

5월에는 서울기록원 브랜드북 〈아카이브 서울〉 vol.3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서울기록원의 대표 브랜드 매거진인 〈아카이브 서울〉은 서울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시정기록과 시민기록을 소개합니다. 주제와 관련된 소장 기록을 기록연구사가 직접 해제하고, 그 기록의 가치와 의미를 독자와 공유하는것. 그리고 주제를 다룬 시민기록을 함께 소개하는 것. 이것이 서울기록원 〈아카이브 서울〉의 정체성(identity)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처음 발행한 vol.1은 '기억의 바통터치'라는 주제로 청도문서고에서 서울기록원으로 시정기록과 사람들의 기억을 이관하는 이야기를 전했고, 2020년 vol.2에서는 서울의 공원을 키워드로 선정해 기록원의 소장 기록과 시민기록을 '기억으로 산책하기'라는 주제로 담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1년 브랜드북 〈아카이브 서울〉 vol.3도 기대해주세요.

브랜드북 〈아카이브 서울〉 vol.2

#서울기록원
#전시
#프로그램
#소식

서울기록원 소식은 온라인 홈페이지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소셜미디어, 서울시 홍보 창구를 통해서도 배달됩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서울기록원이 더 궁금하면 여기로~!

www.archives.seoul.go.kr
instagram.com/seoul.archives
facebook.com/seoul.met.archive

오신상회
하얀집

종로갤러리

2020 서울기록원 아카이빙북

서울은 당신을 기억합니다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발행일 2020년 12월
제작 행정국장 김태균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기록정책과장 김은실
학예연구사 박희연
제작부서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 서울기록원
문의 02-350-5600 | archives.seoul.go.kr
기획·제작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P&WG손
디자인 김해정
인쇄 SJC성전

©2020. 서울특별시
본 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와 서울기록원에 있습니다.

ISSN 2765-1428 01
발간등록번호 51-6113815-000014-10

발간등록번호
51-6113815-000014-10

9 772765 142004 05
ISSN 2765-1428

서울기록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 • 02-350-5600 • archives.seoul.go.kr